

연구보고서(수시) 2017-05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미곤 · 여유진 · 정해식 · 박이택 · 김성아

【책임연구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국민행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의 효과적 수행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이택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고서(수시) 2017-05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7년 12월

저자 김미곤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6,000원

발간사 <<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치자(治者)는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보여 주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다.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행복 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1974년 발표된 후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 사회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대안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체계를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을 발표하고 있다. 부탄에서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지수들은 삶의 질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거나 자국의 경제·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 우리의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행복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

문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상황하에서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행복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49명의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1,000명에게 행복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복결정요인과 행복 수준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행복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교수 등 전문가와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연구진은 바라고 있다.

본 연구에는 본원의 김미곤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여유진 연구위원, 정해식 부연구위원, 김성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외부 연구진으로는 고려대학교 박이택 교수가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평가자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하며, 연구 수행 중 수차례 자문 회의에 참석해서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21
제2절 행복을 측정한 국내외 선행 연구	33
제3절 행복 측정을 위한 지수화 이슈와 접근 방법	68
제3장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75
제1절 행복지수 체계 개발	77
제2절 행복지수 체계에 따른 행복도 평가	95
제3절 소결	98
제4장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행복 불평등	101
제1절 문제 제기	103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04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수준	108
제4절 행복의 불평등	115
제5절 소결	121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23
제1절 요약 및 함의	125
제2절 정책 건의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7
부록 1. 전문가조사표	137
부록 2. 일반국민조사표	150
부록 3. 일반국민조사 결과 기술통계표	153

표 목차

〈표 2-1〉 김승권 등(2008)의 행복결정요인	35
〈표 2-2〉 황명진, 심수진(2008)의 한국인의 행복지수	36
〈표 2-3〉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 구성	38
〈표 2-4〉 통계청 삶의 질 지표 구성 체계	44
〈표 2-5〉 영국 통계청의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	51
〈표 2-6〉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54
〈표 2-7〉 OECD Better Life Index의 영역과 지표	57
〈표 2-8〉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의 행복 영역	64
〈표 2-9〉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의 행복 영역별 개인 단위 주요 측정 지표	66
〈표 2-10〉 지수화를 위한 단계별 선택 이슈	71
〈표 3-1〉 1차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9
〈표 3-2〉 행복 영역 연구진안	80
〈표 3-3〉 행복 영역 중요성 응답 결과	81
〈표 3-4〉 행복 영역 조정 내용	82
〈표 3-5〉 행복 영역별 지표 연구진안	84
〈표 3-6〉 행복 영역별 지표 적절성 응답 결과	85
〈표 3-7〉 행복 영역별 지표 조정 내용	87
〈표 3-8〉 2차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0
〈표 3-9〉 행복 영역과 지표 가중치	91
〈표 3-10〉 김승권 등(2008)과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비교	93
〈표 3-11〉 한국인의 영역별 행복도	95
〈표 3-12〉 행복 영역별 만족도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97
〈표 4-1〉 일반국민조사 개요	104
〈표 4-2〉 일반국민조사 응답자 특성	106
〈표 4-3〉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가중치	107
〈표 4-4〉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점수	109

〈표 4-5〉 개인 특성별, 경제적 지위별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의 평균 점수	111
〈표 4-6〉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들의 결정요인(회귀분석 결과)	114
〈표 4-7〉 주관적 계층별 행복 10분위 점수	116
〈표 4-8〉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 및 행복빈곤 위험률	119
〈표 4-9〉 행복빈곤인구의 계층별 분포	120

그림 목차

[그림 2-1]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 추이	40
[그림 2-2] 이종관 등(2010)의 삶의 질 구성 요인과 중요도 평가 및 전망	41
[그림 2-3]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기본 틀	42
[그림 2-4]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46
[그림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최근 3년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	47
[그림 2-6] 캐나다 웰빙지수 개념도	53
[그림 2-7]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56
[그림 2-8] 사회진보지수의 구성 틀	58
[그림 2-9] UNDP의 인간발달지수	60
[그림 2-10]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62
[그림 2-11] OECD와 유럽 위원회 합동연구센터의 지수화 연구 과정	69
[그림 3-1]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개발 개요	78
[그림 3-2] 연구진안의 한국인의 행복 영역의 도출 구조	80
[그림 3-3] 행복 영역 구성도	82
[그림 3-4] 행복 영역별 지표 구성도	88
[그림 3-5] 국민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가중치 비교	98
[그림 4-1] 성별, 연령 범주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109
[그림 4-2] 가구 규모별, 최종 학력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110
[그림 4-3] 월소득과 주관적 계층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113
[그림 4-4]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지수 분포	117
[그림 4-5] 주관적 계층별 행복지수의 평균, 변량, 지니계수	117
[그림 4-6]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	119
[그림 4-7] 행복의 빈곤 인구의 계층별 분포	120

Abstract <<

Measuring and Analyzing the Korean Happiness Index

Project Head: Kim, Meegon

In this study we aimed at developing the Korean Happiness Index and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Koreans. To that end, we reviewed various concepts of happiness as explored in previous studies in and outside Korea and conducted two expert surveys of 50 experts and a general public survey of 1,000 individuals. First, the two experts surveys helped identify a total of 36 indicators in 7 dimensions of happiness for Koreans. With respect to the weight, work account for 18.3%, health for 17.4%, relationships for 16.8%, life values and goals for 14.9%, economic security for 13.3%, governance quality for 10.1%, and the environment for 9.1%. Second, the general public survey revealed that the happiness indicator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life satisfaction scores and with the level of subjective happiness. Women reported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an men. Also, happiness levels were higher among those with larger families, religious faith and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Happiness levels were found to be substantially lower in those unemployed and with low income.

Co-Researchers: Yeo, Eugene · Jung, Haesik · Park, Yi-taek · Kim, Seonga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였음.
 -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음.
 - 하지만 소득과 행복 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1974년 발표된 후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지표로서의 GDP의 한계가 더 드러남.
-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는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GDP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사회지표를 탐색할 필요성을 국제적으로 제기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체계를 구축하여 발표함.
 - 부탄에서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함.

4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 영국에서는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을 발표함.
- 그러나 상기 지수들은 삶의 질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거나 자국의 경제·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 우리의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음.
 -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가 행복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함.

□ 연구의 목적

-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함.

2. 이론적 배경

-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을 명시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함.
- 행복은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서의 행복감, 전반적인 조건에 기반을 둔 충족감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가능성을 계발하고 채우면서 얻는 삶의 질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되며(프라이, 2015), 과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하는 시간적 개념을 포괄함.

-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정 운영 지표로서의 행복지수를 설정함에 있어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과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행복을 측정할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결과, 개인 및 사회의 측정 단위에 따라 주관적 만족,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 거버넌스, 안전, 거시적 조건, 자유, 관용 등의 영역과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제시되며, 각각은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가 결정됨.
-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가변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공적 논의의 과정이 요구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접근 방법을 채택함.
 - 첫째, 행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닌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가치 평가의 공리(公利)적 접근을 지향함.
 - 둘째,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행복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를 구성함.
 - 셋째,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현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함.

3.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 3장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개발을 위한 과정을 정리하였음.

○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2차례의 전문가조사와 일반국민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조사는 이메일을 이용한 조사로 목표 표본은 50명임.
- 일반국민조사는 전화조사로 1천 명을 대상으로 함.

□ 행복지수 체계 개발

○ 행복지수 체계 개발을 위해 한국인의 행복 영역 및 지표를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확인함.

- 전문가조사는 연구진이 행복 영역의 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는 이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연구진이 영역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함.
- 연구진이 제안한 10개 영역 3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영역 36개 지표로 조정함.

○ 1차 전문가조사 및 연구진의 수정을 통해 확정된 행복 영역 및 지표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도출함.

- 전문가들은 일 영역 18.3%, 건강 영역 17.4%, 관계 영역 16.8%,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 14.9%,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 13.3%, 거버넌스의 질 영역 10.1%, 환경의 질 영역 9.1%의 가중치를 보였음.

□ 일반국민조사

- 행복 영역별로 일반 국민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관계 만족도가 평균 7.32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거주 주택과 주변 환경 만족도,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평가 등의 순서로 나타남.
- 행복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행복도를 설명하는 회귀계수를 도출함.
 - 계수의 크기는 삶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만족도, 생활 만족도, 관계 만족도의 순서로 나타남.

□ 전문가조사와 일반국민조사의 비교

- 전문가는 일 영역, 건강 영역, 관계 영역에 높은 중요도 및 가중치를 부여함.
- 일반 국민은 삶의 가치, 경제적 만족과 관계 만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

4.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

-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행복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행복지수의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했음.
- 첫째, 가중치 적용 방식의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평균, 분포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행복도,

8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미래 안정성 점수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임.

○ 둘째,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 수준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이 외에도 종교 유무와 실업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됨.

○ 셋째, 본 보고서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행복 불평등도와 빈곤율 산출 결과,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음.

- 이는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행복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층된 행복 빈곤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아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은 행복의 결핍으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

□ 분석 결과, 행복 연구가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5. 결론과 정책 제언

-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므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보여 줄 필요가 있음.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해 왔지만,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 사회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사회에 부합하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를 제안함.
- 이 연구에서는 행복지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접근 방식을 채택함. 첫째, 행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가치 평가의 공리(公利)적 접근을 지향함. 둘째,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를 구성함. 셋째,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현시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함.
- 2차례의 전문가 이메일조사와 일반국민 전화조사를 통해 생산된 기초 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행복지수에 따르면, 실업자, 저소득층 등 행복도가 낮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행복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소득 이외의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측된 행복빈곤에서

10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아,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이 행복의 결핍을 야기하는 경로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주요 용어: 한국인의 행복, 행복결정요인, 행복 수준, 행복의 불평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국가를 지탱하는 두 기반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정책의 무게 중심은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있었다.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 내외이나, 주요한 사회지표들은 대부분 매우 나쁜 수준이다. 예컨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반면에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고, 청년들은 헬조선(hell朝鮮)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듯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가 행복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치자(治者)는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보여 주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하였다.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행복 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1974년 발표된 후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지표로서의 GDP의 한계가 더 드러났으며,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프랑스는 GDP가 경제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Stiglitz, J. E.)와 센(Sen, A.) 교수 중심으로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이하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1년이 넘는 연구와 논의 끝에 2009년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GDP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적 사회지표를 탐색할 필요성 있음을 국제적으로 제기하였다(Stiglitz, Sen, & Fitoussi, 2009).

이와 같이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OECD에서는 가입국의 삶의 질을 파악, 비교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 체계를 구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체계는 발전 수준이 유사한 국가군의 삶의 질 수준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단일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모든 비교 국가가 공유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비전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²⁾

한편, 아시아 변방 저개발 국가인 부탄에서 국민행복을 최우선 국가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GDP를 대체하는 사회지표로서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부탄 정부에서는 지수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근거로 하여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총행복 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탄의 정책 실험도 저개발 경제 수준과 왕정에 의한 입헌군주제라는 부탄 특유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한국인의 국민행복을 탐색하기 위한 지표로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2011년 『문제 측정하기

2) 이러한 이유로 Boarini 등(2014)은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 국가에 적합한 지표체계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Measuring What Matters)』 보고서 발간을 기점으로 하여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이 있으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달라 이도 우리나라의 행복지표로 바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의 행복지표에 관한 연구가 시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다소 오래전에 이루어진 연구이거나(김승권 등, 2008), 주관적 행복지표 중심 또는 객관적 행복지표 중심 연구이거나, 행복의 유사 개념인 ‘삶의 질’ 등의 연구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복지수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상황을 감안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행복의 개념을 규명한다. 둘째, 개념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현시대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산출한다. 셋째, 산출된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 및 행복 불평등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 2장에서는 현시대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검토가 선행될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행복론을 다루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³⁾에서 행복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⁴⁾하면서

3)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과 짝을 이루는 고전이자 『정치학』의 전편에 해당된

개념 정의를 내렸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민행복을 천명하였다. 그러므로 추상적 개념인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행복과 관련된 유사 개념을 검토한다.⁵⁾ 그리고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통해 행복 수준 및 유사지표의 수준과 체계를 검토,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의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행복지표와 영역의 가중치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된 지표체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일반국민 전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활용해 제4장에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확인하고, 다차원적 불행도, 대상별 행복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행한다.

2.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의 개념, 국내의 행복지표, 가중치 산정 방법 등을 검토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2차 자료를 분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등을 바탕으로 하여 행복결정요인

다. 개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윤리학』의 핵심 주제인 반면에, 『정치학』은 개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공동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그렇다면 이 문제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인데, 『정치학』의 첫 구절은 “모든 국가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agathon)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로 시작된다.

- 4) 행복이 무엇인가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성에 따르는 이성적 영혼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선이며 행복이라고 보았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권 7장).
- 5) 학계에서는 객관적 환경에 대한 묘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녕(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풍요(flourishing)를,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원의 주관적 묘사에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을 탐색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델파이조사를 시행하여 행복의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결정요인을 설정하고,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는 이메일조사로 실시한다. 네 번째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발된 자료로 행복결정요인별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여 궁극적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문회의를 실시한다. 자문 위원은 행복에 대하여 관심과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제2절 행복을 측정한 국내외 선행 연구

제3절 행복 측정을 위한 지수화 이슈와 접근 방법

2

이론적 배경 <<

제1절 행복의 개념과 측정

1. 행복의 개념

가. 헌법적 가치로서의 행복과 행복추구권

한국은 헌법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⁶⁾을 명시하여 행복이 헌법적 가치임을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2장의 첫 조문인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⁷⁾라고 규정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로서의 행복은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무엇인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다(김명식, 2002, pp. 161-164). 그것은 행복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다의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헌법적 가치로서의 행복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국민들이

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한민국헌법’. 이 구절은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한민국헌법’. 행복추구권은 1980년 개정 헌법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 국정 목표로 행복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이 국정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측정하여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나. 기본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헌법에 등장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국민의 권리와 그것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헌법 제10조에 규정하여 둠으로써 적어도 두 가지 점은 명백하게 되었다.

첫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규정한 것으로는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문, 1946년에 공포된 일본국 헌법, 1980년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인데(전찬희, 2010, p. 323), 이 헌법들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였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에 기초한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헌법들이다.⁸⁾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반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그 역사

8)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식민지 본국인 영국에 예종된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의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의 독립이 필요함을 선언한 것이다. 1946년 미군정하에 공포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멸사봉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군국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진 국가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헌법이다. 대한민국의 1980년 개정 헌법은 민족의 중흥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던 유신체제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헌법이다.

적 의미는 매우 크다.

둘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행복이 추구의 대상임을 명백하게 하였다. 추구의 대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장 세련되게 정립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제약하는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에 완전히 구속되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인간의 외양을 쓴 동물의 삶이라고 보았다.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인간적인 삶이라고 보았으며,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적을 행복(eudaimonia)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국민이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에 완전히 구속되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에 완전히 구속되지 않도록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하여 불행한 결과를 산출한다면,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행복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한국인의 행복

행복을 추구할 국민의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였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인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문명이어서, 행복의 실체적 개념은 문명에 따라 사뭇 다르지만, 우리들은 서양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나 해피니스(happiness)의 번역어로서 행복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⁹⁾ 행복을 국정 목표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국인에게 행복의 개념은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절에서는 서양의 에우다이모니아와 해피니스의 개념을 살펴본 후, 한자 문명권에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용어를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덕(德) 윤리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¹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다른 존재와는 달리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보게 된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그것인데, 이 물음의 대극에 있는 것이 “인간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라 표현하였는데,¹¹⁾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론의 핵심은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물질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에 완전히 구속되는 삶이 아

9) 에우다이모니아나 해피니스를 언제 행복으로 번역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세기 일본 학자들이 철학(philosophy), 경제학(economics) 등의 서구 개념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서, ‘happiness’를 행복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천주실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천주실의』 제1편 제1장에는 “덕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복록입니다. 덕이 결여된 행복은 행복이라 잘못 말한 것으로, 실은 걱정 속에 살 뿐입니다(成德乃眞福祿, 無德之幸, 誤爲之幸, 實居基患耳.)”(마테오 리치, 1999, p. 39). 덕을 갖춘 행(幸)이 진정한 복록(福祿)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는데, 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제시하면, 『천주실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을 수용하여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스킨라 철학자가 중국의 선비와 대화하는 양식으로 기술된 책으로,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철학을 중국 문화권에 전수한 핵심적인 저서이다.

10)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행복경제학 연구는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 ‘덕(德) 윤리학(virtue ethics)’으로부터의 통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Sachs(2013, pp. 80-97)는 행복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덕 윤리학으로부터의 통찰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1) 이 그리스어는 영어권에서는 happiness(행복)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공리주의자들의 happiness(행복)와 구분하기 위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나라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삶의 의미를 확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설정한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에서 여유가 필요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한데,¹²⁾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¹³⁾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가장 좋은가? 이 물음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회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서양에서 출현하였는데 계몽주의가 그것이었으며, 계몽주의자들이 사회개혁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공리주의자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다. 공리주의에서 행복은 추구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의해 얻어진 귀결이라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와 다르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행복론은 쾌락에 대한 욕망과 고통에 대한 혐오에 종속된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칸트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인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예컨대 보통교육, 의료보장, 참정권과 기본 인권,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을 창출하는 데 계몽주의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제프리 스카, 2010, pp. 206-207).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와 공리주의의 행복에 해

-
- 12)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사회의 부정의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거나 과도한 희생을 동반하게 된다면, 그 삶을 즐기기는 어렵다. 행복에 있어 사회의 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13)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의 전제 조건을 지적하기는 했다. 다음의 문장이 그것이다. “행복은 명백하게 추가적으로 외적인 좋음 또한 필요로 한다. 일정한 뒷받침이 없으면 고귀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일들은 마치 도구를 통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통해, 또 부와 정치적 힘을 통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또 이를테면 좋은 태생, 훌륭한 자식, 준수한 용모와 같은 것의 결여가 지극한 복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용모가 아주 추하거나 좋지 않은 태생이거나, 자식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온전히 행복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더 어렵기는 아마도 아주 나쁜 친구들과 나쁜 자식들만 있는 사람, 혹은 좋은 친구들과 자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순조로운 수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다.”(아리스토텔레스, 2011, p. 35)

당하는 동양의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행복을 “마음은 비워 주고 배는 채워 줌(虛其心, 實其腹)” 등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인위적인 이름(名)에서 벗어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장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승희, 2015. p. 27). 공자는 자신이 총애하는 제자 안회에 대해 “한 그릇 밥과 한 쪽박 물을 먹으며 누추한 거리에 살고 있으면, 남들은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거늘, 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참으로 회는 어질도다(一簞食와 一瓢飲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어늘 回也不改其樂하니 賢哉라 回也여).”라고 하였는데, 이것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장기근, 2002, p. 261). 가난하게 살면서도 굳자다운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탁월한 삶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낙도(樂道)는 탁월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리주의자의 행복에 해당하는 표현은 명말 청초의 격변기에 사회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던 학자들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저서가 황종희의 『명이대방록』(1663년)이다. 『명이대방록』의 신하론에는 “대개 천하의 치란은 일성의 흥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근심과 즐거움에 있다(蓋天下之治亂, 不在一姓之興亡, 而在萬民之憂樂)”라고 하였는데(황종희, 2000, pp. 60-63), 여기에 나오는 만민지우락(萬民之憂樂)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황종희는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왕조의 흥망이 아니라 만백성의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선언하고, 만백성의 괴로움을 줄이고 즐거움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체제를 기획한 『명이대방록』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락(憂樂)¹⁴⁾이 바로 공리주의의 행복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동양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적인 결핍이나 사회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떤 점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는가는 문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양의 고전인 논어는 군자삼락(君子三樂),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 벗들과 교유하는 것,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깨끗이 살아가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장기근, 2002, p. 82). 현재 한국인들도 세상과 인생의 멋과 맛을 알아가고, 가족과 친구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깨끗이 살아가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양식에 있어 동양과 서양의 차이보다 고대와 현대 간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행복한 삶에 대한 동양적 가치 부여 체계가 현재 한국인에게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그 가치 부여 체계도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변화를 파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 행복의 세 차원과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

덕(德) 윤리학에서 행복(eudaimonia)은 스스로 설정한 삶의 목적이며, 행복감이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

14) 우락(憂樂)이란 용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괴로움과 즐거움이며, 벤담의 쾌락에 대한 욕망과 고통에 대한 혐오를 포괄하는 용어로 볼 수도 있지만, 앞서 인용한 논어의 구절(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은 소인의 괴로움(憂)과 군자의 즐거움(樂)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우락(憂樂)이란 군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소인의 행복까지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의 정도이다.

삶에 대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을 행복(eudaimonia)과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덕 윤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감이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즉 부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동일하지 않다. 결핍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만족감은 행복의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지만, 행복(eudaimonia) 그 자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라는 덕(德) 윤리학적 물음보다 행복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에 분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프라이(2015, p. 36)는 행복을 다음과 같은 세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 (1) 행복(happiness):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감정
- (2) 삶에 대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전반적인 충족감
- (3)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또는 좋은 삶(good life): 자신의 가능성을 계발하고 채우면서 얻는 삶의 질

행복을 이와 같이 세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OECD도 마찬가지인데, 프라이(2015)의 ‘행복(happiness)’, ‘삶에 대한 만족감(life satisfaction)’,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에 대응하는 것이 OECD(2013, pp. 30-32)의 ‘감정(affect)’, ‘생활평가(life evaluation)’,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이다. OECD(2013)는 행복의 세 차원을 포괄하는 용어로 행복(happiness)이 아니라 주관적 행복(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¹⁵⁾ 주관적 행복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하는 모든 다양한 평가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보이는 감정적 반응을 포함하는 좋은 정신 상태(Good mental states, including all of the various evaluations, positive and negative, that people make of their lives and the affective reactions of people to their experiences)”(OECD, 2013, p. 10).

한편, 행복의 개념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행복은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retrospective)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전망(prospective)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Tatarkiewicz, 1966, p. 1; 문진영, 2012에서 재인용). 이 주장의 핵심은 “행복이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며, 이 세 구성요소가 모두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이다(Tatarkiewicz, 1966, p. 2; 문진영, 2012, p. 57에서 재인용). 행복에서의 시간 개념 도입은 이스털린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1) 일정 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지만, (2) 시계열적인 분석을 해 보면, 일정 수준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의 증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Easterlin, 2010; 문진영,

15) Subjective well-being은 주관적 안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OECD의 subjective well-being은 행복의 세 차원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이라 번역하였다.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 분석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¹⁶⁾이라고 한다.”(문진영, 2012, p. 55)

2. 행복의 측정

가. 국정 운영 지표로서의 행복지수

행복을 추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요구하는 사회 시스템을 파악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국민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제대로 된 행복지수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지수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보다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여야 한다.

행복지수의 장점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경제학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1인당 GDP를 국정 운영의 핵심 지표로 활용했지만, 1인당 GDP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인당 GDP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1인당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1인당 GDP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복지 지표나 사회진보지수들이 만들어졌다. 이 객관적 복지 지표나 사회진보지수는 1인당 GDP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여 주기는 했지만, 현재 한국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현재 한국인

16) 자세한 내용은 문진영(2012),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십시오.

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정보는 행복지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행복지수가 없다면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에 둔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행복지수는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의 자손의 행복감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행복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의 행복과 환경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행복지수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지수는 객관적인 복지 지표나 사회진보지수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OECD(2013)는 현재 주관적 행복 척도를 국정 운영의 지표로 삼을 만큼 신뢰성을 가진 조사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 주관적 행복 척도의 질, 즉 관련성,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 객관적인 복지 지표나 사회진보지수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삶의 평가(life evaluation) 지표의 신뢰성은 감정(affect)이나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보다 높아 신뢰성의 허용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이나 소득 등과 같은 통계에 비하면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감정이나 에우다이모니아를 측정하는 조사는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평가하기 어렵다(OECD, 2013, p. 13). 행복지수를 국정 운영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나.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과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

주관적 평가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방법은 외부로 드러난(revealed) 보다 강건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경제학 내에서 이루어진 효용함수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에 대한 논의에서 얻을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소비자 선택이론에 기초를 두었는데, 이 소비자는 잘 정의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예산제약하에서 이 효용함수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것은 공리적(axiomatic) 이론 체계에서의 논의로서, 효용함수를 어떻게 계측하고, 그것을 현실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주지는 않는다. 공리적 이론 체계로서의 경제학과 실용적 학문으로의 경제학이라는 념을 수 없을 듯한 답을 허문 것은 현시선호이론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였다. 현실적으로 행해진 다양한 선택 행위는 선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실행된 선택 행위로부터 선호 체계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복원된 현시선호만으로도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그에 적합한 객관적 조건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의 모색과 선택 행위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낸다. 이렇게 드러난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의 평가 체계는 현시된(revealed)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행복지수보다 더 강건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지수의 신뢰성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은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하여 고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을 참조할 수 있다.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은 물질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 직업과 근로소득, 주거, 건강상태, 일과 삶의 균형,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 등 11개 영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주관적 웰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영역이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에 해당한다(OECD Korea Policy Centre, 2014, p. 26).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지표들 중 일부는 때로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다른 대용 지표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van Zanden 등(2014)은 1820년 이래 세계의 웰빙 추이를 추계하였는데, 기본적인 발상은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과 같지만, 장기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표는 대용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¹⁷⁾

제2절 행복을 측정된 국내외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행복을 측정된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관점과 접근 방식에 따라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행복(happiness)’이나 ‘웰빙(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등의 용어가 상이하게 활용되었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을 보다 강조한 ‘행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문헌들과 객관적 조건을 보다 강조한, ‘삶의 질’로 대표되는 관련 개념을 사용한 문헌들로 범주화하였으며, 전자는 웰빙,¹⁸⁾ 후자는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17) 구체적인 내용은 2절에서 다룬다.

사회진보, 인간 발달 등의 유사 개념을 포함한다.

1. 행복을 측정한 국내 연구

가. 행복¹⁹⁾²⁰⁾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포함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는 김승권 등(2008)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200명과 일반인 100명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인 단위의 행복결정요인을 산출하고, 일반 국민 2,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국내의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행복의 결정요인 1차안에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결정한 행복의 결정요인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정, 가족결혼, 개인적 관계, 지역사회, 일상생활,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을 구성하는 결정요인은 자아 존중감, 관계 만족도, 여가 및 휴식 만족도, 소유 충족감, 일에 대한 보람, 주관적 건강 수준 등 총 21개이다.

18) '웰빙'은 맥락에 따라 '웰빙', '행복', '안녕' 등으로 번역하였다.

19) 서은국, 구재선(2011)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주목하여 단축형 행복 척도를 개발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함께 반영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0) 김미곤 등(2014)은 개인 단위의 국민행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보다 집단별 특성과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표 2-1〉 김승권 등(2008)의 행복결정요인

영역	행복결정요인(안)
1. 심리적 안정	1.1.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척도 1.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
2. 가족결혼	2.1.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2.2. 현재의 부부 생활(이성 교제)에 대한 만족도 2.3. 출산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
3. 개인적 관계	3.1.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 3.2.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3.3.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
4. 지역사회	4.1.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
5. 일상생활	5.1.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 5.2.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
6. 경제적 안정	6.1. 원하는 만큼의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6.2.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7. 일	7.1.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7.2.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7.3.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
8. 건강	8.1.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 8.2. 가족의 건강 수준 8.3. 규칙적인 운동 여부
9. 주거	9.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자료: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2.

황명진, 심수진(2008)은 선행 연구와 활용 가능한 2차 자료원을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했다. 지수의 구성 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가족, 경제, 직업,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정부와 사회참여의 10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총 43개의 지표로 구성된 이 지표체계는 자료원의 특성상 사회 단위의 평균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6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표 2-2〉 황명진, 심수진(2008)의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역	지표	자료원
1. 가족	1.1. 조이혼율 1.2. 가족관계 만족도 1.3. 소년소녀가장 가구 수	인구동태통계 사회통계조사 20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2. 경제	2.1. 1인당 GDP 2.2. 소득집중도(지니계수) 2.3. 소득 만족도 2.4. 소비생활 만족도 2.5. 생활물가지수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가계조사 사회통계조사 2003 사회통계조사 2003 통계청, 물가연보
3. 직업	3.1. 실업률 3.2. 주당 근로시간 3.3. 근로여건 만족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사회통계조사 2006
4. 교육	4.1. 교육기회의 충족도 4.2. 교원 1인당 학생 수 4.3. 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인식 4.4.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사회통계조사 2004 사회통계조사 2004
5. 건강	5.1. 주관적 건강평가 5.2. 스트레스 인식 정도 5.3. 유병률 5.4. 기대수명 5.5.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5.6. 자살률	사회통계조사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통계조사 2006 생명표 사회통계조사 2005 사망원인통계
6. 주거	6.1. 도시주택 가격지수 6.2. 주택에 대한 만족도 6.3. 방당 거주인 수 6.4.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사회통계조사 2004 인구주택총조사 사회통계조사 2004
7. 환경	7.1. 대기오염도 7.2. 수질오염도 7.3.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 7.4. 소음공해도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사회통계조사 2005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8. 안전	8.1.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8.2.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8.3. 범죄 발생 건수 8.4.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 8.5. 교통안전시설 만족도 8.6. 화재 발생 건수	사회통계조사 2005 사회통계조사 2005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사회통계조사 2004 행정자치부, 화재통계연보
9. 문화와 여가	9.1. 문화예술 시설 수 9.2. 여가 활용 만족도 9.3. 평균 여가 시간 9.4. 공공 체육시설 수	문화관광부 사회통계조사 2004 생활시간조사 문화관광부, 체육시설현황
10. 정부와 사회참여	10.1. 사회단체 참여율 10.2. 자원봉사자 비율 10.3. 사회이동의 가능성 10.4.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회통계조사 2006 사회통계조사 2006 사회통계조사 2006 사회통계조사 2006

자료: 황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pp. 108-109.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경제·사회 영역의 객관 지표를 구성해 2003년 이후 분기별 국민행복지수의 상대적 추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기준 시점을 최초 지수 발표 시점인 2003년 1분기로 하여, 이후 지숫값의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지수 체계와 산출 방식을 활용한다.

지수 체계는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대항목과 하위 중항목 20개 및 소항목 3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은 경제 분야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계층분석과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결과,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19명의 응답을 활용해 산출하였다. 다음 표에서는 소항목의 가중치를 제시하였으며, 중항목의 가중치는 해당 하위 소항목 가중치의 합으로, 대항목은 중항목 가중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항목의 경우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의 가중치는 32.03%, '삶의 질'의 가중치는 34.96%,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은 32.99%로, 항목별 가중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 소항목 기준으로는 대항목 '삶의 질'의 중항목 '고용' 중 '고용률'의 가중치가 7.38로 가장 높고, 대항목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의 중항목 '1인당 소비지출'의 가중치가 5.82, 대항목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중항목 '부패와 신뢰 수준'의 가중치가 5.67, 대항목 '삶의 질'의 중항목 '건강' 중 '기대수명'의 가중치가 5.26로 비교적 높다. 중항목을 기준으로 하면, 대항목 '삶의 질'의 '고용'과 '건강'의 가중치가 각각 $9.55(=고용률 7.38 + 비정규직 비중 2.17)$, $9.42(=기대수명 5.26 + 사망률 4.16)$ 이고, 대항목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의 '1인당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의 가중치가 $8.81(=대학 진학률 1.78 +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공교육비 지출 2.46 + 노동생산성 지수 4.57)$ 로 높은 수준이다.

38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표 2-3〉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 구성

대항목	중항목(20)	소항목(34)	가중치	
1. 경제성과 및 지속 가능성(6)	1인당 소비지출	GDP 내 최종 가계소비지출	5.82	
	1인당 교양 및 오락비 지출	GDP 내 오락문화비 지출	4.13	
	1인당 정부부채	국가채무*	2.89	
	1인당 자본소득	유형고정자산	6.12	
	1인당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대학 진학률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공(정부)교육비 지출 노동생산성 지수	대학 진학률	1.78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공(정부)교육비 지출	2.46
			노동생산성 지수	4.57
1인당 가계부채	가계신용*	4.25		
2. 삶의 질(6)	고용	고용률	7.38	
		비정규직 비중*	2.17	
	건강	기대수명	5.26	
		사망률*	4.16	
	민간 교육비 지출	민간 교육비 부담*	1.44	
		교육시설	2.80	
		고등학교 졸업률(학업 중단율)*	2.25	
	환경	온실가스배출량*	1.03	
		대기오염배출량*	1.42	
		쓰레기배출량*	1.12	
	주거	소득 증가율-주택 가격 상승률	3.84	
	문화시설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	2.43	
	중산층 비중	중산층 비중(중위소득 50~150%)	3.09	
	물가	CPI(소비자물가지수)*	1.44	
생활물가지수*		2.15		
소득분배	지니계수*	1.13		
	소득5분위배율*	1.17		
	절대적 빈곤율*	1.80		
3.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8)	사회 안전	범죄율*	3.45	
		이혼율*	1.07	
		자살률*	2.31	
부패와 신뢰 수준	부패지수*	5.67		
자연 재난/재해 안전	재난/재해 피해액	2.51		
식품 안전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적합률	2.76		
노후 안정	55세 이상 고용률	2.94		
	노인빈곤율	2.68		

주 1) 가중치의 소수점 아랫자리 수치로 인하여 합계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소항목 중 *는 부정적 항목을 의미함.

자료: 국가미래연구원(2017. 12.), 국민행복지수, 국가미래연구원, 〈표 2〉(p. 3)와 〈표 3〉(p. 5) 수정.

최종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각의 소항목 값을 가중평균 하고, 항목 특성에 따라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음 산출식에 따라 대항목 지수를 계산한다. 소항목 원자료의 계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평균을 활용한다.

$$\text{대항목지수} = 100 + 50 \times (\text{긍정적 항목}) - 50 \times (\text{부정적 항목})$$

이렇게 산출된 해당 분기의 대항목 지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상대적 지수로 변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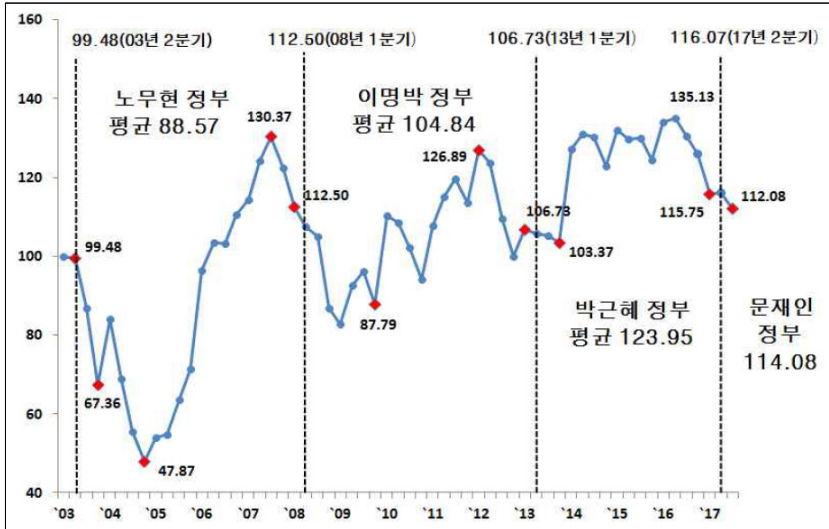
$$100 \times \text{해당분기/기준분기 (2003년 1분기)}$$

최종 국민행복지수는 상기 산식에 의해 산출된 대항목 값을 활용해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text{경제성과 지속가능성} + \text{삶의 질} + \text{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3$$

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국민행복지수의 추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2003년 카드 사태 여파로 인한 국민행복지수의 최저점(2004년 4분기)부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까지의 급격한 상승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중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국민행복지수의 최신값인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3개 대항목에서 다소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2-1] 국가미래연구원의 국민행복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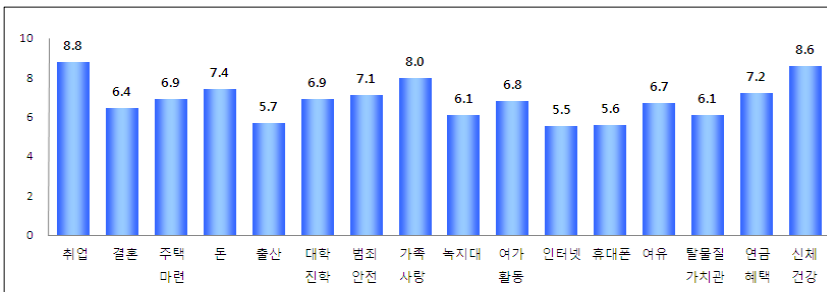
주: 2003년 1분기 기준(100)으로 분석 대상 기간 중 국민행복지수의 상대적 추이를 나타낸 것임.
자료: 국가미래연구원. (2017. 12.). 국민행복지수. 국가미래연구원. p. 7.

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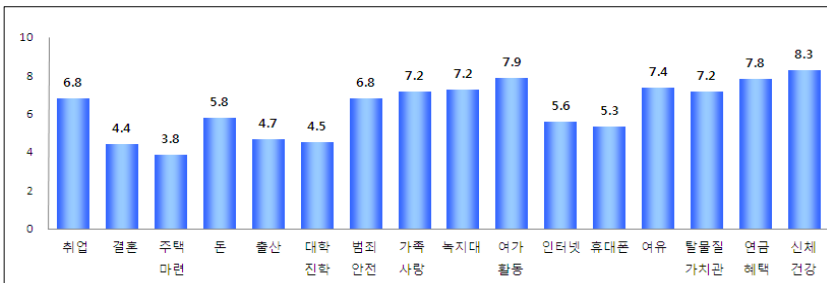
이종관 등(2010)이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 요인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학 전문가 50명 대상으로 확인한 2010년 기준 현재 삶의 질 구성 요소의 중요도와 2040년 미래 전망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삶의 질은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돈, 출산, 대학 진학, 범죄 안전, 녹지대 거주, 여가 활동, 인터넷, 휴대폰, 연금 혜택, 신체 건강 등의 객관적 차원의 요인들과 가족 사랑, 삶의 여유, 탈물질 가치관 등의 주관적 차원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의 중요도는 0~10점의 점수로 평가된 것이다. 2010년 삶의 질 구성 요소 중에서는 취업이 평균 8.8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고, 신체 건강 8.6점, 가족 사랑 8.0점, 돈 7.4점 순이다. 2040년에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요소는 신체 건강(8.3점), 여가 활동(7.9점), 연금 혜택(7.8점), 여유(7.4점), 가족 사랑·녹지대 거주·탈물질 가치관(7.2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 조건이나 물질적 환경을 초월한 정신적 웰빙과 여유롭고 건강한 삶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이종관 등(2010)의 삶의 질 구성 요인과 중요도 평가 및 전망
 〈2010년 현재〉



〈2040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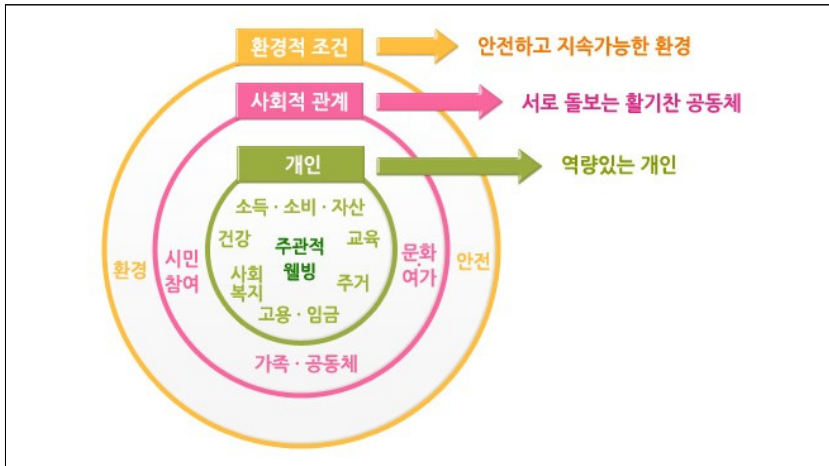


자료: 이종관, 김홍중,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기획재정부, 성균관대학교. pp. 86-87.

42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또한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²¹⁾ 객관적인 생활 조건과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가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 단위의 삶의 질 요소와 사회 단위의 사회의 질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의 동심원 형태로 구성된 통계청 삶의 질 지표 기본 틀 개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통계청의 삶의 질 지표 기본 틀



자료: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qol.kostat.go.kr/blifeguide-proc.do>에서 2017. 8. 22. 인출.

이러한 기본 틀을 구성하는 12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물질 부문에서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서의 소득·소비·자산과 개인의 경제적 자원 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고용·임금을 포함한다.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최

21) 이 내용은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http://qol.kostat.go.kr/blife/main.do>)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며 안전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공동체 소속, 투자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주거를 또한 포함한다.

첫 번째 비물질 영역인 건강은, 질병이나 장애는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평가된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와 여가 활동은 개인들에게 필수적이거나 의무적 활동이 아닌 자유 시간으로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서적, 육체적,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천으로서의 가족과, 사회적 연계의 중요한 근원이 되는 공동체가 강조된다.

다양한 시민참여는 시민적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범죄와 재해, 기타 안전 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는 영역인 안전한 사회는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평가된다.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의 생산, 미래세대 위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며,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은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가를 나타내며, 삶에 대한 만족도, 정서 경험, 에우다이모니아(삶의 목적 등)로 구성된다.

그러나 특정 영역이나 지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 즉 가중치를 부과하여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이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고 있다. 각 영역의 중분류 영역과 측정 지표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4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표 2-4〉 통계청 삶의 질 지표 구성 체계

대분류 영역	중분류 영역	지표
1. 소득소비자산	1.1. 소득소비자산	1.1.1. 1인당 GNI 1.1.2. 균등화 중위소득 1.1.3. 균등화 중위소비 1.1.4. 가구평균 순자산 1.1.5. 지니계수 1.1.6. 상대적 빈곤율 1.1.7. 소득 만족도 1.1.8. 소비생활 만족도
2. 고용임금	2.1. 고용임금	2.1.1. 고용률 2.1.2. 실업률 2.1.3.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2.1.4. 근로시간 2.1.5. 저임금 근로자 비율 2.1.6. 일자리 만족도
3. 사회복지	3.1. 사회복지	3.1.1. 공적연금 가입률 3.1.2.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율 3.1.3. 개인 부담 의료비 비중
4. 주거	4.1. 주거	4.1.1. 1인당 주거 면적 4.1.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4.1.3. 통근/통합 소요시간 4.1.4. 주거비용 4.1.5. 주거환경 만족도
5. 건강	5.1. 건강상태	5.1.1. 기대수명 5.1.2. 고혈압 유병률 5.1.3. 당뇨병 유병률 5.1.4. 주관적 건강평가 5.1.5. 스트레스 인식 정도 5.1.6. 건강 수준별 기대여명
	5.2. 건강 행위 및 환경	5.2.1. 비만율 5.2.2. 규칙적 운동 실천율 5.2.3.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6. 교육	6.1. 교육 기회	6.1.1. 유아교육 취학률 6.1.2. 고등교육 이수율 6.1.3. 평생교육 참여율 6.1.4. 학업 중단율
	6.2. 교육 자원	6.2.1.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6.3. 교육 성과	6.3.1. PISA 백분위 순위 6.3.2. 대졸생 취업률 6.3.3. 학교교육의 효과 6.3.4. 학교생활 만족도

대분류 영역	중분류 영역	지표
7. 문화·여가	7.1. 여가 시간 및 활용	7.1.1. 평균 여가 시간 7.1.2. 여가 활용 만족도 7.1.3. 시간 부족에 대한 인식
	7.2. 문화 활동	7.2.1. 1인당 국내외 여행 일수 7.2.2.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7.2.3. 문화 여가 지출 비율
8. 가족공동체	8.1. 가족관계	8.1.1. 가족관계 만족도
	8.2. 가족 형태	8.2.1. 한 부모 가구 비율 8.2.2. 독거노인 비율
	8.3. 사회적 관계	8.3.1. 자살률 8.3.2. 사회적 관계망
	8.4. 공동체 참여	8.4.1. 사회단체 참여율 8.4.2. 지역사회 소속감
9. 시민참여	9.1. 정치 참여	9.1.1. 투표율 9.1.2. 정치적 자기 역량 인식
	9.2. 시민적 의무와 권리	9.2.1.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9.2.2. 시민의식 9.2.3. 부패인식지수
	9.3. 신뢰	9.3.1. 대인 신뢰 9.3.2. 기관 신뢰
10. 안전	10.1. 범죄	10.1.1. 강력범죄 발생률 10.1.2.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10.1.3.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 10.1.4. 아동 학대 피해 경험률 10.1.5. 자기 보고 범죄 피해율
	10.2. 사고	10.2.1. 도로 사망률 10.2.2.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 10.2.3. 산업재해율 10.2.4. 화재 발생 건수
11. 환경	11.1. 환경의 질	11.1.1. 미세먼지 농도 11.1.2.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1.1.3. 기후변화 불안도 11.1.4. 체감 환경 만족도
	11.2. 환경 서비스/자원관리	11.2.1. 에너지 빈곤층 비율 11.2.2. 하수도 보급률 11.2.3. 폐기물 재활용 비율 11.2.4.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2. 주관적 웰빙	12.1. 주관적 웰빙	12.1.1. 삶에 대한 만족도 12.1.2. 긍정 정서 12.1.3. 부정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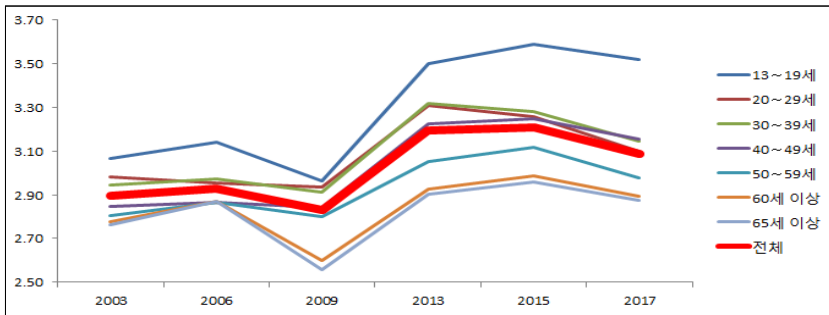
자료: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 <http://qol.kostat.go.kr/blife/main.do>에서 2017. 8. 22. 인출.

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삶의 만족도의 결과를 제공하였다. 우선 다음 그림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삶의 만족도²²⁾의 연도별 평균 변화이다. 2003년 이후 2.9점에서 머물던 평균 삶의 만족도는 2013년 이후 3.1점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에 이르러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²³⁾

[그림 2-4] 통계청 사회조사의 연도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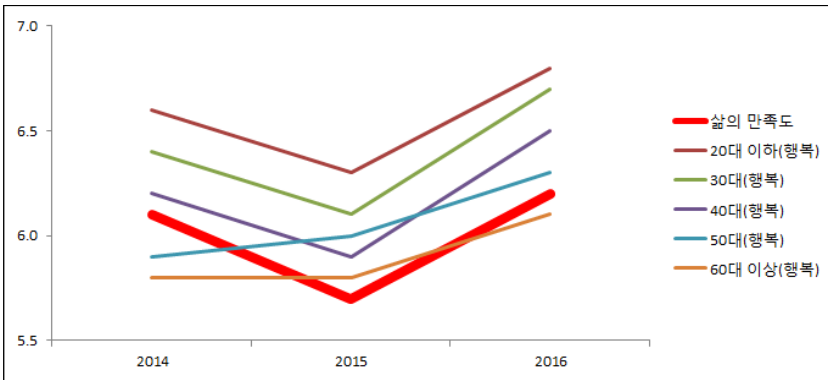
주 1) 2003년과 2006년은 15~19세 인구임.

2)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 리커트 척도의 빈도분석 결과를 평균 점수로 변환한 것임.
 자료: 통계청. (2009~2017).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DA05&conn_path=I3에서 2017. 12. 7. 인출).

- 22)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는 이 특성을 ‘주관적 만족감’ 혹은 ‘주관적 안녕’으로 지칭하였지만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다른 연구들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삶의 만족도’로 통일했다.
- 23)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행복 수준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틀어 40~50대에 최저점을 보이는 역U 자형인 것으로 나타나지만(Stone et al., 2010; Wang et al., 2014).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한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Wang et al., 2014, p. 55)과 일치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매년 발표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삶의 만족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2015년 행복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5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증가 폭이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특정 기간에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 수준이 낮아진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사회적 사건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정해식, 우선희, 2017, p. 8).

[그림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최근 3년간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
(단위: 점)



주 1) 전체 점수는 삶의 만족도 질문의 결과이나 연령대별 점수는 행복의 평균 점수임.

2) 매우 불만족 혹은 매우 불행 0점부터 매우 만족 혹은 매우 행복 10점의 11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 점수임.

자료: 정해식, 우선희(2017),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7호, pp. 5-6을 재구성함.

2. 행복을 측정한 국외 연구

가. 행복

행복 측정에 대한 학계 및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OECD에서는 산재한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측정 도구를 집대성하는 안내서를 발간하였다(OECD, 2013). 타당성과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 도구를 중심으로 하여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Cantril, 1965), 정서(Affect), 에우데모닉 행복(Eudaimonic well-being)(Diener et al., 2010), 삶의 영역 평가(Domain evaluation)(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경험한 행복(Experienced well-being)(Kahneman et al., 2004)으로 범주화하였는데, 이 범주 중 삶의 만족도, 에우데모닉 행복, 정서적 행복(행복, 걱정, 우울)을 핵심 문항으로 제안하였다(OECD, 2013, pp. 13-25). 삶의 만족도는 행복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질문하고(Wang et al., 2014), 에우데모닉 행복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따라, 풍요로운 삶 등 삶에 대한 가치판단을 측정한다(Diener et al., 2010). 그리고 정서적 행복은 응답자의 즉각적인 행복감을 파악하기 위해 어제 경험한 행복과 어제 경험한 우울을 측정한다(Kahneman et al., 2004).

서베이 조사를 통해 실제 측정한 행복 수준을 발표하는 대표적인 국제 연구는 유엔의 연구 자문기구인 ‘지속발전 해법 네트워크(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 의해 연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Helliwell et al., 각 연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만족(subjective well-being) 수준을 측정

하고 있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GWP) 원자료를 활용해 각국의 최근 3년간 평균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추상적 개념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 활용하는 문항은 캔트릴 사다리(Cantril, 1965)이고,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Gallup, 2014, p. 42)

이 보고서는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 수준을 삶의 만족도 질문을 통해 측정하고, 지역별 행복 분포와 함께 경제 수준, 사회적 지지, 기대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등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Skidelsky와 Skidelsky(2012)는 (사회) 경제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집단적 존재를 구축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보고(p. 292), 소득이나 소비와 같은, 좋은 삶을 판단하는 기존의 잣대가 아닌 7가지의 기본재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기본재는 건강이다. 이는 “신체가 온전히 기능하는 것, 즉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완수하는 것(p. 255)”을 말하며, 평균수명, 기대수명, 음주량, 비만율, 우울증 약물 처방, 일 관련 스트레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기본재는 안전으로, “자신의 삶이 전쟁, 범죄, 혁명, 기타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격변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대체로 늘 하던 경로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한 개인의 기대가 정당화되는 것(p. 259)”이다. 여기에는 고용률, 실업률, 불안정 노동 등이 해당한다. 세 번째 기본재는 존중이다. “형

식을 갖추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의 견해와 관심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즉 무시하거나 짓밟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p. 262)” 것이다. 교육 수준, 불평등, 야만적 노동관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기본재는 개성인데, “자신의 취향, 기질, 좋음의 개념을 반영하여 삶을 계획하고 실행할 모든 능력(p. 265)”이다. 주택이나 모기지 등 순자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기본재는 자연과의 조화인데, “미래 세대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p. 228)”, “인간 아닌 모든 생물 종의 번성을 똑같이 보존(p. 229)”하면서 지킬 “우리 자신의 존재 기반(p. 239)”이다. 식료품 자급자족 비율, 직농 비율, 유기농 식품 비율 등이 해당한다. 여섯 번째 기본재는 우정으로, “단단하고 다정한 관계 전체(p. 269)”이다. 이 범주는 사회적 네트워크, 결혼율, 이혼율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본재는 여가인데, “그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정당한 활동의 특수한 한 형태(p. 272)”로 “고역의 감소(p. 275)”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시간과 내용을 말하며 단, 고등교육으로 대체되는 여가는 고역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장은 “기본재 몇몇을 달성할 수단(p. 279)”으로 추구되어야 하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다른 어떤 것의 지표(p. 279)”로 활용되어야 하며, “단기의 실용주의적 이유(p. 280)”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는 성장 자체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영국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ONS)에서도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행복의 영역과 측정 지표를 다차원적으로 구조화한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을 제안,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체계는 개인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일, 거주환경, 재정적 특성, 교육과 숙련 수준 등과 함께 사회 단위

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경제, 거버넌스, 자연환경 등을 포괄한다. 각각의 영역은 최소 2개부터 최대 6개까지 총 41개의 측정 지표를 포함하며, 연도별로 특정 이슈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개인적 웰빙에 주목하여 삶의 만족도, 가치 평가, 행복감과 우울감의 수준과 추이 및 지역별 분포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여(ONS, 2016. 7.) 의회와 정부 부처에, 일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5〉 영국 통계청의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

영역	측정 지표
1. 개인적 웰빙	1.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 1.2. 하는 것들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 1.3. 높은 어제 행복감 1.4. 낮은 어제 불안감 1.5. 인구 정신 건강(mental well-being)
2. 우리의 관계	2.1. 불행한 관계 비율 2.2. 외로움 2.3.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배우자, 가족, 친구
3. 건강	3.1. 성별 건강수명 3.2. 장애 보고율 3.3. 건강 불만족도 3.4. 우울이나 불안
4. 우리가 하는 일	4.1. 실업률 4.2. 직업 불만족도 4.3. 여가 시간 불만족도 4.4. 연간 자원봉사 4.5. 연간 최소 3회의 문화 활동 4.6. 주간 30분 정도의 격렬한 운동
5. 우리가 사는 곳	5.1. 성인 1,000명당 범죄율 5.2. 밤에 혼자 걸을 때 성별 안전 5.3. 연간 최소 주 1회 자연환경에의 접근 5.4. 이웃 소속감 5.5. 주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평균 최소 시간 5.6. 주거 안전
6. 개인 재정	6.1. 중위소득 60% 기준 빈곤율(주거비 제외) 6.2. 가구당 중위자산(연금 포함) 6.3. 실질가구중위소득 6.4. 가구소득 만족도 6.5. 재정적 곤란

52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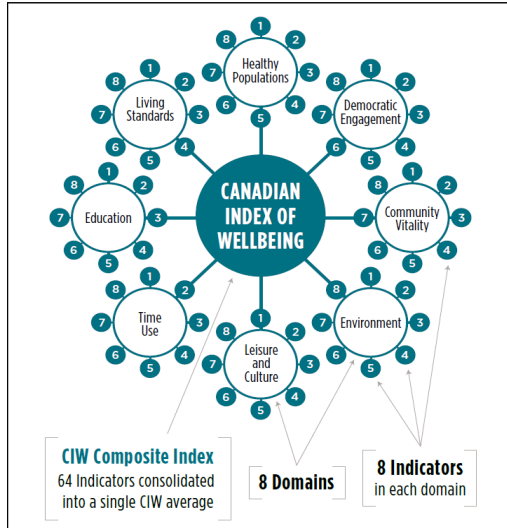
영역	측정 지표
7. 경제	7.1. 1인당 실질국가가처분순소득 7.2. GDP 대비 공공분야 순 부채 7.3. 물가(소비자물가지수)
8. 교육과 숙련	8.1. 인적자원(노동시장에서의 개인의 숙련, 지식, 능력) 8.2. NEET 비율 8.3. 16~64세 무자격 거주자
9. 거버넌스	9.1. 총선 선거율 9.2. 정부 신뢰도
10. 자연환경	10.1. 온실가스 배출 총량 10.2. 보호지역 10.3. 재생에너지 사용량 10.4. 재활용 쓰레기양

자료: ONS. (2016. 9.).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ONS.

캐나다에서는 워털루대학교 연구팀에서 캐나다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건강, 민주적 참여, 활기찬 지역사회, 환경, 여가와 문화, 시간 사용, 교육, 생활수준의 8개 영역과 각 영역을 구성하는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지표의 개수가 64개에 달하기 때문에 단일 조사 결과에서 자료원을 확보하기보다 약 200개의 관련 자료원을 활용하고 있다(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p. 2).

주목할 점은 다양한 지표를 하나의 수치로 지수화하여, 1994년을 기준으로 하는 변화량을 동 기간 GDP의 변화량과 비교함으로써 대안적 사회지표로서의 웰빙, 즉 행복에 대한 정책 관계자, 학계, 대중의 관심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즉, 1994년 대비 2014년 현재 GDP가 38.0% 증가한 데에 비해 CIW의 증가량은 9.9%에 불과하므로, 영역별 변화량을 통해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pp. 3-8).

[그림 2-6] 캐나다 웰빙지수 개념도



자료: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2016 CIW National Report.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p. 16.

부탄은 정책 지표로서 경제성장 위주의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개념을 대체할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개념을 도입²⁴⁾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기도 한다(임형두, 2017).²⁵⁾ 국민총행복 지수로 측정된 결과를 활용해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2007년 파일럿 조사 이후 2010년, 2015년 각각 5년 주기의 서베이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에서 활용되는 조사표는 방법론의 개선 사항 및 조사 시점의 특이 사항을 반영하여 다소 수정되기는 하지만, 다음 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심리적 웰빙, 건강, 시간 사용, 문화 다양성 및 회복

24)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홈페이지,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2/occasional-publications-on-gnh/>에서 2017. 11. 30. 인출.

25) 그러나 1인당 GDP가 2,7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절대적인 저개발 경제 수준과 왕정에 의한 정치체제 등 부탄의 경험을 직접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성아, 2017).

력, 지역사회 활성화, 생활수준, 교육, 좋은 거버넌스, 생태 다양성 및 회복력의 9개 영역과 33개 지표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다수의 지표를 지수화하기 위해 내재적 가중치의 방법을 활용한다(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5; 김성아, 2017, p. 3에서 재인용).

〈표 2-6〉 부탄의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

영역	지표
1. 심리적 웰빙	1.1. 삶의 만족도 1.2. 긍정적 감정 1.3. 부정적 감정 1.4. 영성
2. 건강	2.1. 자기 보고 건강상태 2.2. 건강한 날 수 2.3. 장애 2.4. 정신 건강
3. 시간 사용	3.1. 일 3.2. 잠
4. 문화 다양성 및 회복력	4.1. 숙련 4.2. 문화 참여 4.3. 모국어 4.4. 행동강령
5. 지역사회 활성화	5.1. 기부(시간 및 돈) 5.2. 안전 5.3. 지역사회 관계 5.4. 가족
6. 생활수준	6.1. 소득 6.2. 자산 6.3. 주거
7. 교육	7.1. 읽기 7.2. 학교 7.3. 지식 7.4. 가치
8. 좋은 거버넌스	8.1. 정치 참여 8.2. 서비스 8.3. 거버넌스 성과 8.4. 기본권
9. 생태 다양성 및 회복력	9.1. 야생 보존 9.2. 도시 이슈 9.3. 환경 책임 9.4. 생태 이슈

자료: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2015. 9.), Summary of 2015 GNH Index(김성아, 2017, p. 3에서 재인용) 재분류.

그 밖에 이탈리아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정 복지(Benessere Equo Sostenibile, BES)’, 호주에서는 통계청의 ‘호주 진보 측정(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과 ‘호주국가발전지수(Australian National Development Index)’, 독일에서는 ‘웰빙 측정(Measuring Well-Being)’,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서는 ‘웰빙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보고서(Social Report)’, 스코틀랜드에서는 ‘다이얼 돌리기(Shifting the Dial in Scotland)’, 미국에서는 ‘미국의 현 상태(State of the USA)’, 케냐에서는 ‘글로벌 웰빙지표를 향하여(Towards a Global Index of Wellbeing)’,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웰빙(Well-being in Ireland)’, 이스라엘에서는 ‘웰빙 지표(Well-being in Ireland)’ 등 웰빙, 즉 행복을 열쇠 말로 하여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다차원적 지표 체계를 개발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이탈리아는 BES의 3년간 지프 값 변화 추이 결과를 2016년 정부 예산편성안에 활용하기도 했다 (Giovannini, E., 2017).

나.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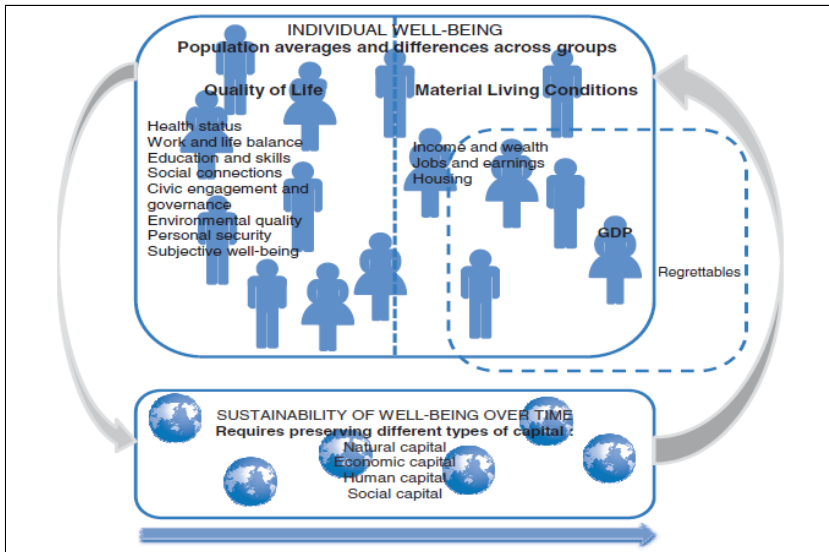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기치로 하는 ‘OECD 보다 나은 삶 계획(OECD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11년 이후 「How’s Life?」 보고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²⁶⁾ 이 계획에서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ve Index, BLI)를 통해 가입국의 삶의 질 수

26)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홈페이지, 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2017. 12. 1. 인출.

준 제고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측정을 위한 지표 등의 방법론을 정립하며, 정책 방향 재설계를 유도하고 있다(OECD, 2011, p. 14).

여기에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Stiglitz et al., 2009)의 제안에 따라 BLI를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물질적 생활 조건, 삶의 질, 지속 가능성의 세 축으로 구성하였다(OECD, 2011, pp. 18-20). 물질적 생활 조건은 주거, 소득과 자산, 직업과 소득의 세 가지 측정 영역으로, 삶의 질은 건강,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 개인의 안전, 주관적 안녕의 8개 측정 영역을 포함한다. 마지막 지속 가능성의 축은 미래 행복(well-being)을 위한 자원으로 자연 자본,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포괄한다. 총 11개 측정 영역에 총 24개 하위 측정 지표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그림과 표와 같다.

[그림 2-7] OECD Better Life Index 개념도



자료: OECD. (2011). How's Life? Paris: OECD Publishing. p. 19.

〈표 2-7〉 OECD Better Life Index의 영역과 지표

측정 영역	측정 지표(단위)
1. 주거	기본 시설이 없는 가구 비율(%) 주거 관련 지출 비중(%) 개인당 방 수(비율)
2. 소득과 자산	가구원당 순가처분소득 (US\$) 가구원당 금융순자산(US\$)
3. 직업과 소득	고용률(%) 직업 안정성(실직 위험률)(%) 1년 이상 장기 실업률(%) 노동자 개인소득(US\$)
4.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원 관계망의 질(%)
5. 교육과 기술	성인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학생들의 기술(평균 점수) 기대 교육 기간(년)
6. 환경의 질	대기의 질(PM 10 농도) 수질에 대한 만족(%)
7.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규칙 제정 과정의 협의(평균 점수) 투표율(%)
8. 건강	기대수명(세) 자기 보고 건강상태(%)
9. 주관적 안녕	삶의 만족도(%)
10. 개인의 안전	범죄 피해율(%) 살인율(10만 인당 피살자 수)
11. 일과 삶의 조화	장시간 근로자(%) 여가·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시간)

자료: 정해식, 김성아(2016),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호, p. 81에서 발췌 정리 및 보완.

그러나 OECD 보고에 따르면, BLI 개념도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우선 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가입국이 공유하는 규범적인 지향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개별 국가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OECD, 2017, p. 22). 또한 양적 지표를 활용해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이므로, 국가 혹은 사회의 하위 단위에 적용할 때에는 조건에 따라 지표 정의에 부합하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없을 수 있다(OECD, 2014). 비교 가능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유사한 이유로 시계열 분석 또한 어려울 수 있다(van Zanden et al., 2014).

한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시도는 비영리단체인 사회진보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에서 발표하는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 SPI)이다(Porter et al., 2017). 이 지수에서는 사회진보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p. 2)으로 정의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유지하며,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p. 2)” 것을 그 사회의 역할로 간주한다. OECD의 BLI와 동일하게 측정 단위는 사회 혹은 국가이나, SPI는 저개발국을 포함하고 있어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양과 기본 의료서비스, 물과 위생, 주거, 개인적 안전의 지표를 포함하는 기본 인간 욕구와 기본 지식에의 접근, 정보와 언론에의 접근, 건강, 환경의 질의 지표를 포함하는 웰빙의 근간 그리고 개인적 권리, 개인적 자유와 선택, 관용과 통합, 고등교육에의 접근의 지표를 포함하는 기회의 세 가지 영역이 SPI를 구성한다.

[그림 2-8] 사회진보지수의 구성 틀

Basic Human Needs	Foundations of Wellbeing	Opportunity
Nutrition and Basic Medical Care Water and Sanitation Shelter Personal Safety	Access to Basic Knowledge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ealth and Wellness Environmental Quality	Personal Rights Personal Freedom and Choice Tolerance and Inclusion Access to Advanced Education
기본 인간 욕구	웰빙의 근간	기회
영양과 기본 의료서비스 물과 위생 주거 개인적 안전	기본지식에의 접근 정보와 언론에의 접근 건강 환경의 질	개인적 권리 개인적 자유와 선택 관용과 통합 고등교육에의 접근

자료: Porter, E. M., & Stern, S., & Green, M. (2017). Social Progress Index 2017. Social Progress Imperative.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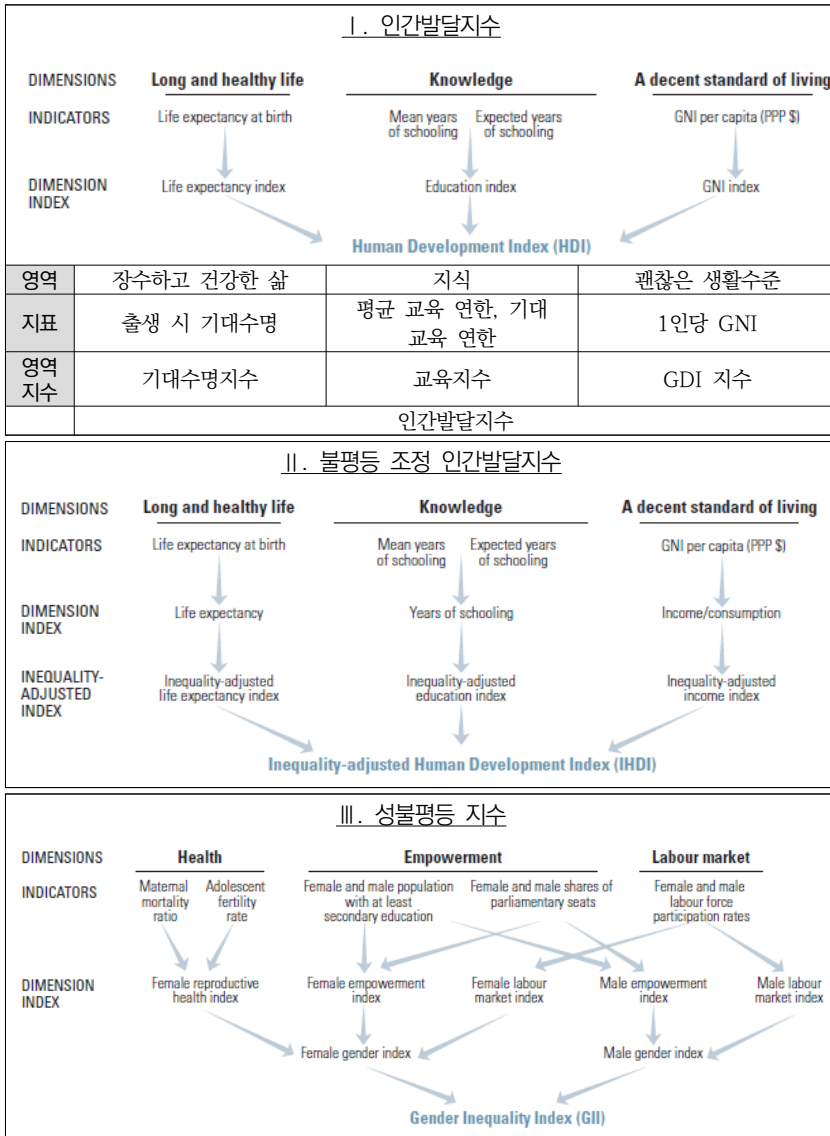
한편, 유엔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1990년 이후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이 오히려 환경 조건에 취약해서 강건한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낮고, 그래서 정책목표로 삼기에 한계가 있다(Sen, 2009)는 점에서 객관적 지표만으로 구성된 인간발달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에서 특이한 점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지표체계에 반영하기보다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3가지 종류의 지표만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건강한 삶을 대표하는 출생 시 기대수명, 지식수준을 대표하는 평균 및 기대 교육 연한,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1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이다(UNDP, 1990, pp.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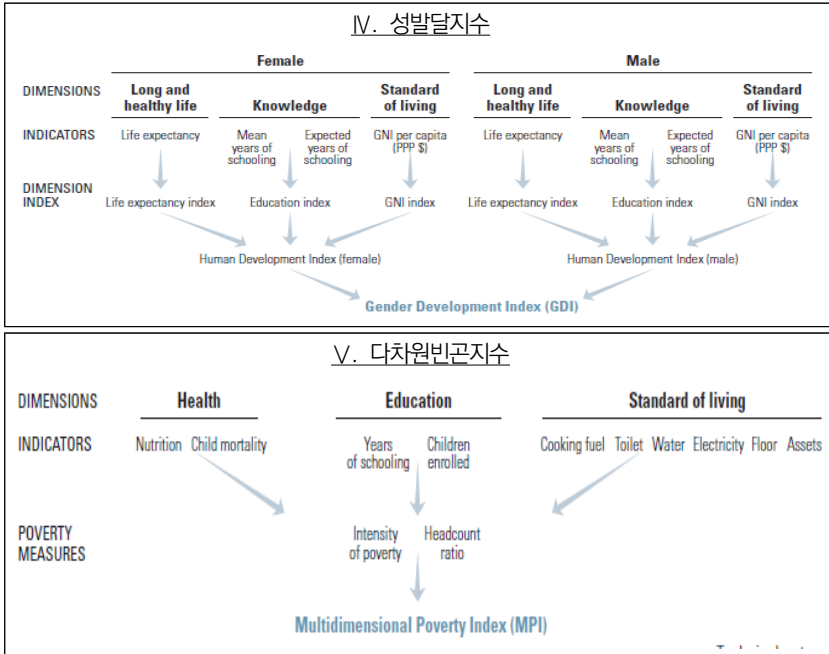
다른 지수들과 달리 HDI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1990년 최초로 발표된 이후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표의 구성과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Hirai, 2017, pp. 73-121).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인간발달지수의 영역 지수 산정 과정에서 불평등 정도를 고려하는 불평등 조정 인간발달지수, 성불평등 정도를 고려하여 지표체계를 재구성한 성불평등 지수, 남성과 여성의 인간발달지수를 각각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는 성발달지수, 빈곤의 심도와 빈곤율을 고려하는 다차원빈곤지수가 그것이다.

그러나 HDI를 주관하는 국제기구인 유엔 개발 계획이 특히 저개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 간결한 지표체계가 삶의 다차원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표체계의 구성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인다(Hirai, 2017). 특히 히라이(Hirai, 2017, pp. 123-140)는 건강한 인간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HDI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이 지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

특히 가치 평가를 반영한 에우데모닉 행복을 집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9] UNDP의 인간발달지수





자료: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Technical notes. UNDP.

마지막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관련 지수는 유엔(United Nations, UN)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이다.²⁷⁾ 이 목표는 2000년에 최초로 선포되고 2015년에 종료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이은 것이다. 당초 MDGs가 극빈곤을 해소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는 등 저개발 국가 중심이었던 데에 비해 SDGs는 평화 유지와 성별 격차 해소 등 선진 국가가 함께하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총 17개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탈빈곤, 탈기근, 건강과 웰빙, 질 좋은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감당할 수 있고 깨끗한 에너지, 편

27) 이 내용은 주로 유엔 지속 가능한 발달 지식 플랫폼 홈페이지(<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에서 2017. 12. 1. 인출)를 참고했다.

삶은 일과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책임지는 소비와 생산, 기후 행동, 해양의 생명, 지상의 생명, 평화·공정·강력한 제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 그것이다. 이 목표는 하나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치로 지수화하기보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제안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점검하기 위한 169개의 정책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0]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news/communications-material/>에서 2017. 8. 21. 인출.

3.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의 행복 영역과 지표

여기에서는 현시대에 맞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앞서 탐색한 국내외 주요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행복의 구성 영역과 지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영역이나 지표는 현시대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통합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웰빙의 이웃 소속감과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삶의 질 지표의 지역사회 소속감은 비친족이지만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타인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게 재분류한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은 주관적 만족감,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 거버넌스, 안전, 거시적 조건, 자유, 관용으로 구분하였다. 일부 내용은 여전히 중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나 관용, 거버넌스가 안전과 함께 사회의 질로 통합될 수 있고, 노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일은 동일 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완전성은 이후 연구 과정에서 진행되는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또한 측정 단위에 주목하였다. 국민계정이나 1인당 GDP나 범죄율 등과 같은 국가나 사회의 집단 단위의 영역 혹은 지표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개인 단위에서 변량을 확보하여 분석할 수 없다. 반면, 주관적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 등과 같은 개인 단위의 영역 또는 지표를 국가 단위에서 비교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평균값은 개별 국가 내 수치의 분포나 집단의 크기에 따른 차이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편향(bias)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개개인의 행복 수준과 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행복 영역과 지표를 선택해야 한다(표 2-8 참조). 그러나 자연환경이나 안전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적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도 고려되어야 한다.

영역	국내				국외						
	김승권 등 (2008)	황명진, 심수진 (2008)	이종관 등 (2010)	통계청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 국민웰빙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 국민총행복 지수	OECD Better Life Index	Skidelsky & Skidelsky (2012)	사회진보지수	인간개발지수
주거	주거	주거	내 집 마련	주거				주거		주거	
교육		교육	대학 진학	교육	교육과 숙련	교육	교육	교육과 기술		기본 지식에의 접근 고등교육에의 접근	교육 연한
참여와 거버넌스		정부와 사회참여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주적 참여	좋은 거버넌스	공공 참여와 거버넌스		개인적 권리	
안전			범죄 안전	안전	(국가)경제			개인의 안전	안전	개인적 안전	
거시적 조건											
자유										개인적 자유와 선택	
관용										관용과 통합	

66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표 2-9〉 국내외의 주요 선행 연구의 행복 영역별 개인 단위 주요 측정 지표

영역	지표	출처
주관적 만족	자아 존중감	김승권 등(2008)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김승권 등(2008)
	어제 느낀 행복	OECD Guideline
	어제 느낀 불안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삶의 만족도	세계행복보고서, OECD Guideline
	삶에 대한 가치 평가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관계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김승권 등(2008)
	부부 생활(이성 교제) 만족도	김승권 등(2008), 황명진 & 심수진 (2008)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김승권 등(2008)
	단체 참여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사회적 네트워크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외로움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배우자, 가족, 친구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이웃 소속감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지역사회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김승권 등(2008)
환경	유기농 식품 비율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물과 위생	사회진보지수, UN SDGs
생활의 질	수면의 양과 질	김승권 등(2008)
	여가와 휴식 만족도	김승권 등(2008),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국내외 여행 일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문화·여가 지출 비율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일하지 않는 시간과 내용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자원봉사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문화 활동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경제적 안정	소득(재산) 충족감	김승권 등(2008)
	구매(소유) 유능감	김승권 등(2008)
	국민연금 가입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가구소득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가구소비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소득(소비) 만족도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순자산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1인당 GDI	UNDP 인간발달지수

영역	지표	출처
일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급여와 근무 환경 만족도	김승권 등(2008) 김승권 등(2008),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일에 대한 보람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실업 장시간 근로	김승권 등(2008)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	김승권 등(2008), 부탄 국민총행복,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가족 건강 수준 규칙적 운동 여부	김승권 등(2008) 김승권 등(2008),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의료비 부담 스트레스 장애 우울이나 불안 의료서비스 접근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사회진보지수
주거	주거 소유 및 질 만족도	김승권 등(2008)
	통근/통학 소요시간 주거 안전 개인당 방 수 1인당 주거 면적 주거 관련 지출 비중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교육	기본 지식에의 접근	사회진보지수
	고등교육 평생교육 참여 기대 교육 연한 평균 교육 연한	사회진보지수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UNDP 인간발달지수 UNDP 인간발달지수
참여	투표 참여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대인 신뢰 기관 신뢰 정부 신뢰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안전	거주지역 내 범죄율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밤에 혼자 걸을 때의 안전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거시적 조건	국민계정 경제성장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UN SDGs
자유	선택의 자유	사회진보지수
관용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사회진보지수

제3절 행복 측정을 위한 지수화 이슈와 접근 방법

1. 측정과 지수화 연구 과정 및 선택 이슈

연구 대상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다수의 지표를 활용하여 단일한 수치로 변환하는 지수화 연구는 지수 체계가 조악하거나 지수화 과정에서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 등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OECD & EC JRC, 2008). 그러나 복잡한 현실을 요약하고,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의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토록 하여 정책 개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이 강력하다(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따라서 지수화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수화 연구 과정을 체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OECD와 유럽 위원회 합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지수화 연구 과정을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가 재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이론적 배경에 따라 틀을 구성하는 1단계부터 시작한다. 2단계는 통계치를 활용하는 통계처리의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1단계에 설정한 이론적 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비교 가능한 데이터세트 구축을 위해 결측값을 처리한다. 그리고 통계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을 수행하고 비교를 위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1단계에서도 출한 이론적 의미를 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산한다. 3단계는 통계검정의 과정이다. 2단계를 통해 합산된 수치의 견고성과 민감성을 검증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여 강건성을 확인하고,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지수를 제시하고 시각화하여 활용하게 된다.

[그림 2-11] OECD와 유럽 위원회 합동연구센터의 지수화 연구 과정

1단계 이론적 틀 구성	[이론적 틀의 구성]
2단계 통계처리	→ [자료 선택] → [결측값의 처리] → [다변량 분석] → [정규화] → [가중치 부여 및 합산]
3단계 통계검증	→ [견고성 및 민감성 검증] → [실제 데이터와 비교] →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 검증]
4단계 활용	→ [제시 및 시각화]

자료: OECD & EC JRC(2008. pp. 15-16);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의 재구성을 재인용.

최종 지수 산출을 위해 각 과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선택 이슈가 있다. 히라이는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간발달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근원과 발전 그리고 전망을 검토하며 지수화를 위한 단계별 선택 이슈를 정리한 바 있다(Hirai, 2017, pp. 41-71). 개념적 차원에서는 측정 목표와 용어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 등의 집단으로 할 것인지, 주관적 인식 차원을 포함할 것인지 객관적 조건 차원만 포함할 것인지, 측정 목표에 대해 단순한 범위에 머무를 것인지 포괄적인 범위로 확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유엔 개발 계획의 HDI는 각국의 인간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인간발달지수’라는 이름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부탄의 국민총행복 지수는 부탄 국민 개인 차원의 지표체계를 구축해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해식 등(2016)과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가 OECD 주요국의 사회통합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회통합지수’를, 김상호 등(2016)도 OECD 주요국의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선일보 복지 지수(KIHASA-Chosun Welfare Index, KCWI) 2011”을 보완하여 KCWI 2016을 발표하였다.

측정 차원에서는 첫째, 개념 차원에서 선정된 측정 목표와 용어에 부합하는 영역과 지표를 선정하고, 둘째, 지표 변환과 표준화 과정을 거쳐, 셋

째, 가중치 적용과 합산을 통해 최종 지수를 산출한다. 우선 영역과 지표 선정 과정에서는 데이터 가용성, 분석단위 간 차별성, 차원의 구체화 가능성, 양적 변수 확보 가능성, 분석단위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차원이나 지표를 포함 또는 제외 하거나 대리변수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면, 정해식 등(2016)과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지수를 구성하는 사회이동 영역의 학업중도탈락률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재하여 15~29세 집단의 NEET 비율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고, 사회갈등과 관리 영역에서 노사분규 횟수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해당 영역을 설명하는 주요한 지표로 선정되었으나 비교 대상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제외되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통계치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 비교 가능하도록 동일한 범위로 변환, 표준화한다. 이 과정에서 지푹값의 순위를 사용할 것인지 백분위 점수를 사용할 것인지 Z점수를 활용할 것인지 기준점 표준화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해야 한다. 정해식 등(2016)과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 그리고 김상호 등(2016)은 순기능 지표에 대해서는 $\frac{X_i - \min(X_i)}{\max(X_i) - \min(X_i)}$ 의 수식을, 역기능 지표에 대해서는 $\frac{\max(X_i) - X_i}{\max(X_i) - \min(X_i)}$ 의 수식을 적용하는 최소-최대 정규화 전환 방식을 활용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치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 변환과 표준화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지수로 합산한다. 이때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동일 가중치와 통계적 방식이나 참여 방식을 통해 산출된 비동일 가중치 중 선택해야 한다. 이 선택 이슈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쟁이 있는데 알키레와 포스터는 “엡킨슨 등이 관찰한 바와 같이, 동일 가중치가 직관적으로 적절하다(As

Atkinson et al. observe, equal weighting has an intuitive appeal.)(Alkire & Foster, 2011, p. 479)”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2017)에서 제안한 것처럼 통계적 방식이나 전문가 참여 방식을 통해 산출한 비동일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최종 지수의 수치 자체와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과 접근 방법에 따라 연구자는 지수화의 각 단계에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

〈표 2-10〉 지수화를 위한 단계별 선택 이슈

구분	단계	선택 이슈	내용
개념 차원	측정 목표와 용어 선정	분석단위	개인 vs. 집단
		접근 방법	주관 vs. 객관
		범위	단순 vs. 포괄
측정 차원	영역과 지표 선정	데이터 가용성	해당 차원/지표 제외
		분석단위 간 차별성	해당 차원/지표 제외
		차원 구체화 가능성	해당 차원 제외
		양적 변수 부족	대리변수 활용
		분석단위 간 비교 가능성	해당 차원/지표 제외
측정 차원	지표 변환과 표준화	순위	
		백분위 점수	
		Z-점수 표준화	(실제값-평균) / 표준편차
		기준점(goalpost) 표준화	{(실제값-최솟값) / (최댓값-최솟값)} × 100
가중치 적용과 합산	동일 가중치		
	비동일 가중치		

자료: Hirai, T.(2017), The Creation of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Palgrave macmillan, pp. 41-71에서 정리 및 보완.

센(2005)은 선택의 자유론을 확장하여 원하는 바를 개인의 삶을 통해 현실화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실현능력접근(capabilities approach)이 가지는 간결성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의 기능을 인정하면서(p. 157),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pp. 158-160). 첫째, 실현 능력의 영역과 지표 등을 목록화하지만 절대적으로 완결된 것은 아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정해진 목록에 영역이나 지표가 새롭게 더해질 수도 있고, 감해질 수도 있다. 둘째, 가중치 혹은 상대적 중요도 또한 결정적이지 않다. 영역이나 지표의 가중치는 개별 요소가 사전적으로 가중치가 낮은 어느 것보다 가중치가 높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게다가 영역이나 지표의 중요도 또한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우선되어야 할 영역이나 지표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다음 문제로 가중치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센은 관념적인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목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상적 목적을 이해하고 측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가변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공적 논의(public discussion)의 과정이 요구된다.

2.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접근 방법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행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즐거움이 아닌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가치 평가의 공리(公利)적 접근을 지향한다. 앞서 행복의 개념을 탐색한 1절의 내용에서와 같이, 광의적인

행복의 개념은 권리로서의 행복한 삶과 함께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에 대한 감정과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행복 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조건에 대한 평가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행복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행복(happiness),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등과 같은 다양한 유사 개념을 키워드로 하는 지표 혹은 지수 연구를 검토했다.

셋째,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현시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한다. 한국인의 행복 지표체계와 영역 및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의 가변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과 지표를 탐색한다. 그리고 일반국민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행복 수준 및 현황을 파악한다.

제 3 장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제1절 행복지수 체계 개발

제2절 행복지수 체계에 따른 행복도 평가

제3절 소결

3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 <<

제1절 행복지수 체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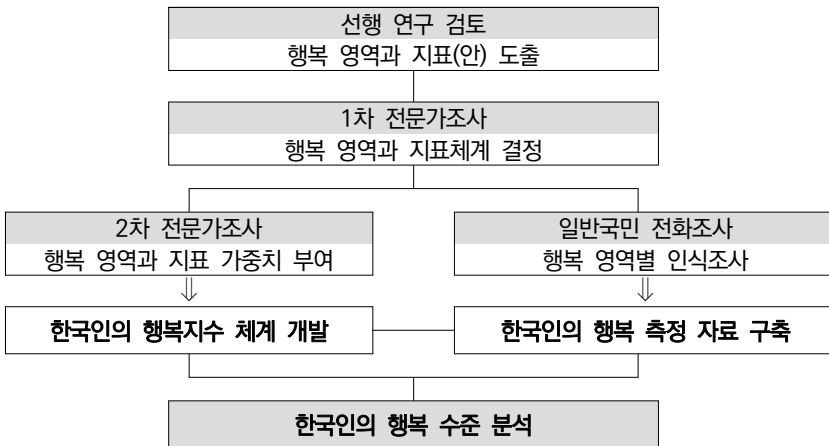
다차원적인 생활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영역과 측정 지표의 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와 숙의 과정을 통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Alkire et al., 2015, pp. 7-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론 검토에 바탕을 두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수 체계 구성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행복지수 체계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행복의 개념과 선행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각 영역의 측정 지표를 우선 도출한다. 그리고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이메일조사를 하여 행복의 영역과 지표 체계를 구축한다. 1차 조사를 통해 결정된 행복의 영역과 지표체계를 활용해 1차 조사 참여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하여 각 영역과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한다. 2차 전문가조사와 동시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행복 영역별 만족도, 행복도 조사를 수행한다. 대국민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사 자료는 그 자체로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보여 주지만, 동시에 전문가조사를 통해 개발된 행복 영역과 지표체계 및 가중치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의 전반적인 연구 개요는 다음 [그림 3-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장에서는 2장의 선행 연구 검토 단계와 4장의 행복 수준 분석 단계를 제외하고,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행복지수 체계를 개발하

는 각 단계의 세부 연구 내용을 보고한다.

[그림 3-1]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개발 개요



1. 행복 영역과 지표체계 결정

가. 조사 개요

한국인의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경제적 성장을 강조하는 이들은 소득이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고, 최근 주요한 사회 트렌드가 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이들은 생활의 질이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행복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각 영역별 중요도를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행복지수 개발의 첫 단계이다.²⁸⁾ 이 연구에서

28) 이러한 중요도 판단을 위한 조사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사 난이도로 인하여 타당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6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메일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설계 시에는 응답 목표 표본을 50명으로 정하였고, 응답 기한을 정하여 회수한 이유로 1차 조사의 최종 응답자는 55명이었으며 그 특성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1차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55	100.0
성별	남성	35	63.6
	여성	20	36.4
연령	30대 이하	1	1.8
	40대	21	38.2
	50대	25	45.5
	60대 이상	8	14.5
전공별	경상 계열	16	29.1
	사회 계열	39	70.9
소속 기관	대학	37	67.3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17	30.9
	기타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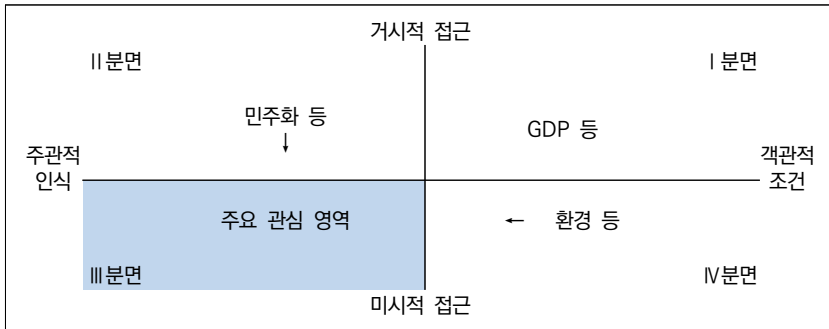
나. 행복 영역의 결정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본 연구의 연구진은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을 다음 <표 3-2>와 같이 초기 제안 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 선행 연구(김승권 등, 2008; 이종관 등, 2010)를 참고하였다.

연구진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 제고를 위해 개인 단위의 미시적 접근과 사회 단위의 거시적 접근 그리고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조건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였다. 연구진은 한국인의

행복함수에서 주관적 인식과 미시적 접근의 교차 영역에 주목하고자 하였음을 전문가조사 실시 과정에서 알렸다.

[그림 3-2] 연구진안의 한국인의 행복 영역의 도출 구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조사 조사표.

<표 3-2> 행복 영역 연구진안

영역	관련 항목
삶의 가치와 목표	삶의 목표 달성 정도, 미래 생활 준비 정도, 가치관 등
관계	가족결혼-출산,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등
환경	자연환경, 생태 다양성 및 회복력, 자연과의 조화, 물(공기)과 위생 등
생활의 질	일상생활, 문화와 여가, 시간 사용, 일과 삶의 조화, 정보와 언론에의 접근 등
경제적 안정	소득소비자산, 생활수준, 1인당 GNI 등
일	직업, 취업, 고용, 임금 등
건강	신체 건강, 영양과 기본 의료서비스, 스트레스 등
주거환경	주거의 질, 자가 소유 등
교육	교육, 대학 진학, 교육과 숙련, 기본 지식 및 고등교육에의 접근, 교육 연한 등
거버넌스의 질	정부와 사회참여,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주적 참여, 개인적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관용과 통합 등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조사 조사표.

전문가조사를 통해 행복 영역의 중요성을 진단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구진이 제안한 행복 영역이 중요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그러나 영역별로 중요도의 순서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를 합한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일 영역, 관계 영역,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 경제적 안정 영역, 생활의 질 영역에 대해서 80% 이상의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환경 영역, 주거환경 영역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낮았고, 특히 교육 영역, 거버넌스의 질 영역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60%대로 낮은 편이었으며,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10%대에 그쳤고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 이상이었다.

〈표 3-3〉 행복 영역 중요성 응답 결과

차원	매우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매우)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평균
관계		0.0	12.7	25.5	61.8	87.3	4.49	
환경		0.0	23.6	52.7	23.6	76.4	4.00	
생활의 질		1.8	14.5	41.8	41.8	83.6	4.24	
경제적 안정		0.0	14.5	45.5	40.0	85.5	4.25	
일	1.8		9.1	54.5	34.5	89.1	4.20	
건강		0.0	3.6	30.9	65.5	96.4	4.62	
주거환경	1.8	1.8	3.6	21.8	54.5	20.0	74.5	3.89
교육		7.3	7.3	27.3	52.7	12.7	65.5	3.71
거버넌스의 질		5.5	5.5	32.7	45.5	16.4	61.8	3.73

주: 공란은 응답이 없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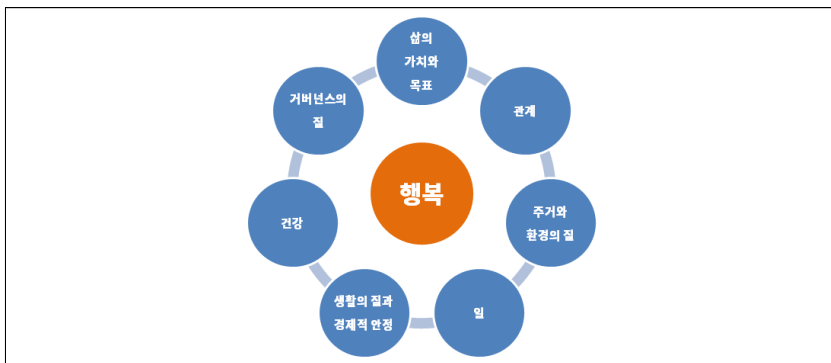
연구진은 1차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복 영역을 조정하였다. 그런데 이때 전문가 의견을 모두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일부 영역만 포함하였다. 먼저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질 영역은 상호 관계가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두 영역 중 하나를 삭제하는 방안과 두 영역을 통합하는 방안

중에서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한편 환경과 주거환경의 경우에도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여러 영역 중에서 중요도가 낮았던 두 영역-교육 영역과 거버넌스의 질 영역-에서는 각기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교육 영역은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였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질 영역은 사회구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여 영역에 포함하였다.²⁹⁾ 1차 전문가조사 와 연구진의 조정에 따라 확정된 행복 영역은 [그림 3-3]과 같다.

〈표 3-4〉 행복 영역 조정 내용

영역	내용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두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조정함.
환경의 질	생태적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조정함.
교육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행복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고,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함.
거버넌스의 질	박탈 수준과 느낌, 차별 경험, 불평등과 격차 인식 등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함.

[그림 3-3] 행복 영역 구성도



29) 한편,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낮은 평가는 객관적 지표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거버넌스의 수준이 중앙과 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이 해당 영역의 모호함과 그 모호함으로 인한 측정 지표의 산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행복 영역별 지표의 결정

1차 전문가조사에서 연구진안은 행복 영역과 동시에 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해당 지표의 적절성을 물었다. 먼저 <표 3-5>는 연구진이 제시한 영역별 지표이다. 이러한 영역별 지표 제시 역시 선행 연구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

<표 3-6>은 이러한 제시된 지표에 대하여 1차 전문가조사에서 적절성에 대해 진단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표에서 영역과 각 지표는 최종 확정된 영역 구조에 맞춰서 제시하였다. 질문의 순서에 따라 중요성을 묻고,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영역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의 적절성도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부터 ‘매우 적절하다’를 1~5점으로 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 수준이 4.49점으로 가장 높은 적절성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가족생활 만족도가 4.45점, 일과 삶의 조화가 4.40점, 부부 생활 만족도가 4.38점, 고용안정성이 4.35점, 스트레스·불안·우울이 4.33점, 삶에 대한 가치 평가가 4.31점으로 높은 적절성 평가를 받았다. 교육 영역에서(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으로 이동함)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지표는 3.55점으로 낮은 적절성 평가를 받았으며, 주거환경 영역의 교통 편의성 지표도 3.65점으로 낮은 적절성 평가를 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1차 전문가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표 수정 및 배치 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 수정 내용은 <표 3-7>에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영역별 지표는 가능한 한 4~6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영역의 조정과 더불어 지표의 배치를 조정하였는데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의 지표가 삭제된 교육 영역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으로 이동하였다.

84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표 3-5〉 행복 영역별 지표 연구진안

영역	지표
삶의 가치와 목표	1. 삶에 대한 가치 평가(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2. 자기효능감 (스스로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4. 미래에 대한 불안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기부, 자원봉사 등)
관계	6.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7. 부부 생활(이성 교제) 만족도 8.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9.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
환경	10. 거주지역의 자연환경(녹지, 공원 등) 만족도 11. 거주지역의 공해(대기오염, 수질오염) 정도
생활의 질	12.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13. 일과 삶의 조화
경제적 안정	14. 소득 충족감 15. 구매(소비) 유능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16. 재산 충족감
일	17.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18. 급여와 근무 환경 만족도 19. 일에 대한 보람 20. 고용안정성
건강	21. 주관적 건강 수준 22.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 23. 적절한 자기 관리(운동, 식이조절) 24. 의료비 부담 25. 스트레스, 불안, 우울
주거환경	26. 주거의 질 만족도(주택 수준, 거주지역 안전) 27. 교통 편의성 28. 주거 관련 지출 부담 29. 주거의 안정성(자가 소유, 안정적인 계약 기간)
교육	30. (본인 및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31.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32.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대인신뢰) 33.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34.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보호)
거버넌스의 질	35. 민주주의 수준 36. 유능한 정부 37.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38.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조사 조사표.

〈표 3-6〉 행복 영역별 지표 적절성 응답 결과

영역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삶의 가치와 목표	1. 삶에 대한 가치 평가	3.6	3.6	16.4	25.5	54.5	4.31
	2. 자기효능감(스스로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5.5	5.5	14.5	49.1	30.9	4.05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9.1	9.1	25.5	36.4	29.1	3.85
	4. 미래에 대한 불안	9.1	9.1	10.9	40.0	40.0	4.11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기부, 자원봉사 등)	1.8	1.8	38.2	41.8	18.2	3.76
	6.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3.6	3.6	36.4	43.6	16.4	3.73
	7.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3.6	1.8	47.3	30.9	16.4	3.55
관계	8.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1.8	1.8	5.5	38.2	54.5	4.45
	9. 부부 생활(이성 교제) 만족도	1.8	1.8	12.7	30.9	54.5	4.38
	10.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0.0	0.0	18.2	45.5	36.4	4.18
	11.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	3.6	3.6	16.4	38.2	38.2	4.04
	12. 거주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녹지, 공원 등)	0.0	0.0	18.2	56.4	25.5	4.07
주거와 환경의 질	13.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3.6	3.6	12.7	50.9	32.7	4.13
	14. 주거의 질 만족도(주택 수준, 거주지역 안전)	1.8	1.8	12.7	52.7	32.7	4.16
	15. 교통 편의성	1.8	1.8	43.6	41.8	12.7	3.65
	16. 주거 관련 지출 부담	5.5	5.5	29.1	47.3	18.2	3.78
	17. 주거의 안정성(자가 소유, 안정적인 계약 기간)	1.8	1.8	20.0	52.7	25.5	4.02
일	18.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3.6	3.6	16.4	47.3	32.7	4.09
	19. 급여와 근무 환경 만족도	0.0	0.0	10.9	52.7	36.4	4.25
	20. 일에 대한 보람	0.0	0.0	16.4	41.8	41.8	4.25
	21. 고용안정성	0.0	0.0	3.6	58.2	38.2	4.35

영역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22.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0.0	18.2	52.7	29.1	4.11
	23. 일과 삶의 조화		0.0	12.7	34.5	52.7	4.40
	24. 소득 충족감	1.8	1.8	10.9	41.8	45.5	4.31
	25. 구매(소비) 유능감(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5.5	5.5	29.1	36.4	29.1	3.89
	26. 재산 충족감	7.3	7.3	36.4	38.2	18.2	3.67
	27. 주관적 건강 수준	1.8	1.8	3.6	36.4	58.2	4.49
건강	28. 가족과 의미미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	1.8	1.8	20.0	43.6	32.7	4.04
	29. 적절한 자기 관리(운동, 식이조절 등)	3.6	3.6	23.6	50.9	21.8	3.91
	30. 의료비 부담	1.8	1.8	27.3	52.7	18.2	3.87
	31. 스트레스, 불안, 우울	1.8	1.8	7.3	47.3	43.6	4.33
거버넌스의 질	32.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1.8	1.8	16.4	40.0	40.0	4.15
	33.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8	1.8	23.6	40.0	34.5	4.07
	34.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 보호)	5.5	5.5	21.8	34.5	38.2	4.05
	35.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3.6	3.6	40.0	34.5	21.8	3.75
	36. 민주주의 수준	3.6	3.6	20.0	47.3	29.1	4.02
	37.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0.0	0.0	10.9	47.3	41.8	4.31
	38. 유능한 정부	1.8	3.6	36.4	38.2	20.0	3.71

주: 공란은 응답이 없는 경우임.

〈표 3-7〉 행복 영역별 지표 조정 내용

수정 영역	수정 지표	내용
	전체	영역별 지표 개수를 4~6개로 조정함.
삶의 가치와 목표	미래에 대한 불안	진급, 임금 상승 등 일의 미래 전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교육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교육' 영역을 삭제하고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으로 이동함. 삭제함.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노동 시간과 여가 시간, 시간 활용 자율성, 시간 사용과 빈곤, 여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건강	적절한 자기 관리	주관적 건강 수준에 포괄될 수 있음.
거버넌스의 질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유능한 정부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사회적 신뢰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적극적 자유로서의 '선택의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통합함.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로 조정함.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와 치안, 폭력, 범죄 등 인공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다른 지표의 상위개념이므로 삭제함.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빈곤, 박탈감 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지표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로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를 추가함.

2. 행복 영역과 지표 가중치 부여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한 영역과 지표의 수정 결과는 다음 [그림 3-4]와 같다. 먼저 영역은 10개 영역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를 포함한 7개 영역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지표는 38개 지표에서 삶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포함

한 36개 지표로 수정하였다.³⁰⁾

[그림 3-4] 행복 영역별 지표 구성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조사 조사표.

지표, 영역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연구진은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가중치 산출 방식을 계획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은 기술적으로 조종된(technical manipulations) 방식이 아니라는 점, 지수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정책화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OECD & EC JRC, 2008, p. 101).³¹⁾ 그러나 다른 가중치 산출 방식이 모두 그러하듯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도 단점이 있는데, 가중치의 신뢰도 문제와 지표 수의 증가에 따른 판단의 어려움 증가

30)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조사에서 행복 영역별 만족도만 조사하고 세부 지표별 만족도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각 지표를 수정하고, 가중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중요 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31) OECD & EC JRC(2008)의 보고서에서는 예산 할당을 위한 전문가 의견 반영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 중요도보다는 시급성에 따른 가중치 부여 문제가 그것이다(OECD & EC JRC, 2008, p. 101). 전문가 의견 수렴에 의한 가중치는 특히 한 지역의 가중치가 다른 지역의 가중치로 활용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것은 공간 외에도 시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한 시기의 가중치가 다른 시기의 가중치로 활용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지표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떤 지표가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지 인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지표 수가 10개를 넘어서면 불일치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은 각 개별 지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보다는 현재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조사를 통해서 가중치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먼저 각 지표의 객관적 수치가 없어 통계적 방식의 가중치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통계적 방식의 가중치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든 영역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를 벗어난다. 한편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가장 시급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진다.³²⁾

가. 조사 개요

2차 전문가조사는 1차 전문가조사 이후 약 1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전문가

32)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중요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으로도 지적된다. 즉, 한국인의 행복에 있어서 소득이 월등히 중요할 수 있음에도 소득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시급성의 측면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8>과 같다.

2차 전문가조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차 조사의 영역별 중요성에 대한 결과, 지표별 적절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앞서 [그림 3-4]와 같이 연구진이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영역과 지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먼저 각 영역별로 합산 값이 100%가 되도록 각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고, 이후에 전체 영역의 합산 값이 100%가 되도록 각 영역의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표 3-8> 2차 전문가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49	100.0
성별	남성	32	65.3
	여성	17	34.7
연령	40대	18	46.9
	50대	23	16.3
	60대 이상	8	26.5
전공별	경상 계열	13	73.5
	사회 계열	36	73.5
소속 기관	대학	36	24.5
	공공 및 민간 연구 기관	12	2.0
	기타	1	1.8

주: 1차 전문가조사 응답자 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임.

나. 행복 영역과 지표 가중치 부여 결과

2차 전문가조사의 조사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먼저 한국인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일 영역이 18.3%의 가중치를 얻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건강 영역이 17.4%, 관계 영역이 16.8%로 뒤따랐다.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은 14.9%의 가중치를,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은 13.3%의 가중치를, 거버넌스의 질은 10.1%의 가중치를, 주거와 환경의 질은 9.1%의 가중치를 보였다.

〈표 3-9〉 행복 영역과 지표 가중치

(단위: %)

영역	가중치	지표	가중치
삶의 가치와 목표	14.9	1. 삶에 대한 가치 평가	21.7
		2. 자기효능감	22.0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16.8
		4. 미래에 대한 불안	18.6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	11.1
		6.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9.8
관계	16.8	1.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33.2
		2. 부부 생활(이성 교제) 만족도	29.7
		3.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18.9
		4.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	18.2
주거와 환경의 질	9.1	1. 거주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	12.9
		2.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	13.7
		3. 주거의 질 만족도	22.1
		4. 교통 편의성	13.5
		5. 주거 관련 지출 부담	16.9
		6. 주거의 안정성	21.0
일	18.3	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22.2
		2. 급여와 업무 환경 만족도	28.4
		3. 일에 대한 보람	20.2
		4. 고용안정성	29.1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13.3	1.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18.4
		2. 일과 삶의 조화	28.0
		3. 소득 충족감	24.8
		4. 구매(소비) 유능감	13.3
		5. 재산 충족감	15.6
건강	17.4	1. 주관적 건강 수준	25.0
		2.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	20.0
		3. 적절한 자기 관리	17.4
		4. 의료비 부담	16.1
		5. 스트레스, 불안, 우울	21.5
거버넌스의 질	10.1	1.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18.2
		2.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8.2
		3.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	10.5
		4.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21.5
		5. 민주주의 수준	15.5
		6.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	16.1

본 연구의 행복 영역과 지표의 선정 및 가중치 부여 결과는 김승권 등(2008)의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김승권 등(2008)의 연구는 전문가 200명과 일반인 100명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인 단위의 행복결정요인을 산출한 바 있다. 약 10년의 시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어떠한 분야 및 지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먼저 확정된 행복 영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족 결혼과 개인적 관계를 구분하였던 이전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 영역으로 한정되었으며, 지역사회, 주거 영역을 주거와 환경의 질 영역으로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거버넌스의 질 영역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김승권 등(2008)의 연구가 상당히 미시적인 수준의 행복결정요인을 탐색하였던 바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인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주관적 인식을 포함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두 연구의 가중치 부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위 중심으로 살펴본다. 김승권 등(2008)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부분은 건강 영역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 영역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급여와 업무 환경 만족도, 일에 대한 보람 외에도 고용안정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3-10〉 김승권 등(2008)과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비교

김승권 등(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행복결정요인(인)	영역	영역	행복결정요인(인)
1.1.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 척도(0.057)	1. 심리적 안정 (8.7)	1. 삶의 가치와 목표(14.9)	1. 삶에 대한 가치 평가(21.7)
1.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0.056)			2. 자기효능감(22.0)
1.3.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만족도(0.054)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16.8)
2.1. 현재의 가족(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0.058)	2. 가족-결혼 (8.2)	1. 삶의 가치와 목표(14.9)	4. 미래에 대한 불안(18.6)
2.2. 현재의 부부 생활(이성 교제)에 대한 만족도(0.054)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11.1)
2.3. 출산 및 자녀 성장에 대한 만족도(0.049)			6.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9.8)
3.1. 가족원 관계에 대한 만족도(0.050)	3. 개인적 관계 (7.3)	1. 가족(결혼)생활 만족도(33.2)	1. 가족(결혼)생활 만족도(33.2)
3.2. 친구 및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0.047)			2. 부부 생활(이성 교제) 만족도(29.7)
3.3.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정도(0.045)			3.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18.9)
4.1.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0.026)	4. 지역사회 (5.0)	2. 관계(16.8)	4.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18.2)
9.1.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0.034)			3.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18.9)
7.1. 현재의 일 종류와 자신이 원하는 것과의 일치 정도 (0.050)			4.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음(18.2)
7.2. 현재 일에 대한 급여,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0.047)	9. 주거(7.8)	3. 주거와 환경의 질 (9.1)	1. 거주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12.9)
7.3.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 정도(0.047)			2.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13.7)
			3. 주거의 질 만족도(22.1)
			4. 교통 편의성(13.5)
			5. 주거 관련 지출 부담(16.9)
			6. 주거의 안정성(21.0)
			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22.2)
			2. 급여와 업무 환경 만족도(28.4)
			3. 일에 대한 보람(20.2)
			4. 고용안정성(29.1)

김승권 등(2008)		한국의 행복지수 체계	
행복결정요인(인)		행복결정요인(인)	
5.1. 만족스러운 수면(양, 질)(0.039)	영역 5. 일상생활 (6.3)	영역 5.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13.3)	1.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18.4)
5.2. 여가 및 휴식에 대한 만족도(0.041)			2. 일과 삶의 조화(28.0)
6.1. 원하는 만큼 재산(소득)을 소유(취득)하고 있다는 충족감 (0.044)	영역 6. 경제적 안정 (7.3)		3. 소득 충족감(24.8)
6.2.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유능감 (0.044)			4. 구매(소비) 유능감(13.3)
8.1. 자신의 주관적인 건강 수준(0.055)	영역 8. 건강(8.0)		5. 재산 충족감(15.6)
8.2. 가족의 건강 수준(0.057)			1. 주관적 건강 수준(25.0)
8.3. 규칙적인 운동 여부(0.046)			2.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20.0)
			3. 적절한 자기 관리(17.4)
			4. 의료비 부담(16.1)
			5. 스트레스, 불안, 우울(21.5)
			1.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18.2)
			2.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18.2)
			3.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 (10.5)
			4.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21.5)
			5. 민주주의 수준(15.5)
			6.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의 시민 보호(16.1)

주 1) 이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의 행복지수 체계 순서에 맞춰 김승권 등(2008)의 행복지수 체계 번호는 유지하되 순서를 조정함.
 주 2) 김승권 등(2008)의 영역의 괄호 안 수치는 결정요인의 영향정도(x_i)를 활용해 $[(x_i - \text{최소값}) / (\text{최대값} - \text{최소값})] \times 3.7 + 5.0$ 의 산식으로 계산된 영역의 영향도이며, 여기에서 개별 결정요인 최댓값 5.0과 최솟값 8.7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함. 지표의 괄호 안 수치는 결정요인의 영향정도(x_i)와 영역의 영향정도(y_i)를 활용하여 $(x_i \times y_i) / \sum (x_i \times y_i)$ 의 산식으로 계산된 지표가중치임.
 주 3) 한국의 행복지수 체계 가중치의 단위는 %임.

자료: 김승권, 정영철,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242(지표체계), 300(가중치).

제2절 행복지수 체계에 따른 행복도 평가

1. 영역별 행복도

다음 <표 3-11>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 영역별 만족도 점수를 제시한다.³³⁾ 이 중에서 가족,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 영역의 행복도가 7.32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거주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6.71점으로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평가가 6.52점, 본인 및 주변의 중요한 사람의 건강 영역의 행복도가 6.37점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의 행복 수준은 5.64점으로 낮았고, 거버넌스의 질 영역의 행복도 5.15점으로 매우 낮았다.

<표 3-11> 한국인의 영역별 행복도

구분		삶의 가치와 평가	관계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일	건강	거주 및 환경의 질	거버 넌스의 질
전체		6.52	7.32	5.64	6.22	6.37	6.71	5.15
성별	남성	6.37	7.23	5.58	6.15	6.44	6.70	5.06
	여성	6.68	7.40	5.71	6.30	6.29	6.71	5.24
연령	20대 이하	6.35	7.49	5.87	5.90	6.70	6.61	5.24
	30대	6.87	7.61	5.70	6.48	6.71	6.78	5.26
	40대	6.67	7.20	5.61	6.40	6.21	6.81	5.14
	50대	6.46	7.19	5.54	6.23	6.26	6.61	5.04
	60대 이상	6.06	7.06	5.52	5.92	5.89	6.67	5.0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88	6.77	4.71	5.30	5.51	6.12	5.00
	고졸 이하	6.24	7.16	5.41	5.96	6.17	6.56	4.90
	대졸 이상	6.79	7.49	5.94	6.52	6.63	6.89	5.31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5.67	6.64	4.56	4.67	5.47	5.69	4.53
	300만 원 이하	6.62	7.38	5.31	6.32	6.22	6.61	5.32
	400만 원 이하	6.46	7.21	5.45	6.20	6.64	6.67	5.04
	700만 원 미만	6.78	7.52	5.99	6.56	6.48	6.93	5.33
	700만 원 이상	6.89	7.68	6.77	7.19	7.03	7.54	5.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 원자료.

33) 일반국민조사에서는 항목 내 배타성을 고려하여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을 시간 및 여가와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분리하였으나, 영역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두 응답값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2. 행복함수를 이용한 영역별 가중치 도출

일반 국민의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영역별 행복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삶의 영역별 행복도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성별, 연령,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서 투입하였다. 이 중에서 교육 수준과 가구소득은 범주로 질문하였으므로, 각각을 더미변수군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³⁴⁾ 다만 회귀분석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의하지 않은 통제변수가 반영된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주관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2>와 같다.³⁵⁾ 모든 회귀식에서 영역별 행복도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주관적 만족도를 증가시킨다. 이 중에서 삶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만족도의 회귀계수가 0.70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의 행복도의 회귀계수가 0.617, 관계 영역의 행복도가 0.53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서 일 영역의 행복도가 0.519, 거주 및 환경의 질 영역의 행복도가 0.483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질 영역의 행복도의 회귀계수가 0.415로 가장 낮다.

[그림 3-5]는 이상의 방법을 통해 도출한 가중치와 전문가조사를 통한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이다. 직접 영역별 가중치를 질문한 전문가조사와는 달리 일반국민조사에서는 다중회귀식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으므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별 영역의 회귀계수 총합 대비 각 영역 회귀계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단위를 조정하였다.

34) 이 분석은 주된 주관적 행복도에 대한 영역별 행복도의 가중치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통제변수군의 영향력은 생략했다.

35) 상대적 중요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행복함수 모형에서 가중치를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각각의 행복 영역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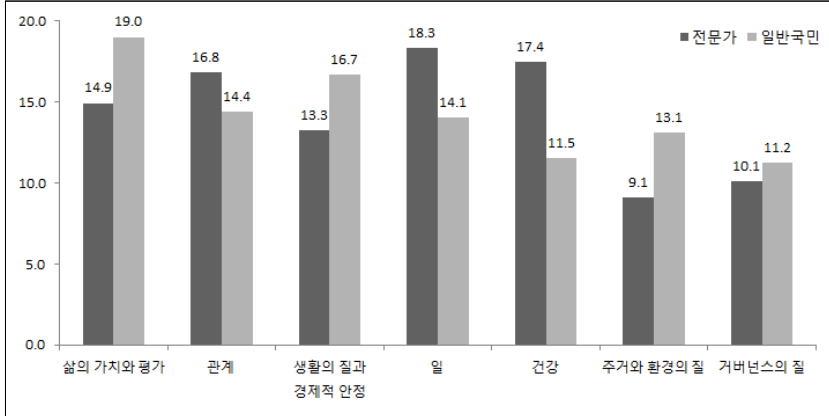
〈표 3-12〉 행복 영역별 만족도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삶의 가치와 평가	관계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일	건강	거주 및 환경의 질	거버넌스의 질
삶의 가치와 평가	0.702*** (0.022)						
관계		0.532*** (0.028)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0.617*** (0.025)				
일				0.519*** (0.023)			
건강					0.425*** (0.029)		
거주 및 환경의 질						0.483*** (0.028)	
거버넌스의 질							0.415*** (0.028)
통제변수	Y	Y	Y	Y	Y	Y	Y
상수	0.889** (0.310)	0.703 (0.403)	2.466*** (0.377)	2.564*** (0.346)	2.313*** (0.353)	1.692*** (0.416)	1.601*** (0.394)
adj. R-sq	0.553	0.321	0.303	0.402	0.388	0.240	0.297

주: 통제변수는 여성 더미변수(남성=0), 고졸 및 대졸 이상 교육 수준 더미변수군(중졸 이하=0), 100만~199만 원, 200만~299만 원, 300만~399만 원, 400만~499만 원, 500만~699만 원, 700만~999만 원, 1,000만 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더미변수군(100만 원 미만=0)을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관계, 일, 건강 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삶의 가치와 평가, 생활의 질과 경제적 만족, 주거와 환경의 질 영역이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조사에서는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에 대한 가중치를 질문한 데에 비해 일반국민조사에서는 항목 내 배타성을 고려하여 이 영역을 시간 및 여가와 경제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분리하여 질문하여 분석에서는 두 응답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3-5] 국민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가중치 비교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조사 원자료.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 원자료.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전문가조사와 일반국민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각 영역의 측정 지표를 도출하고자,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영역과 지표의 타당도를 묻는 1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행복 영역과 지표체계는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 등의 7개 영역과 36개 하위지표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서는 각 영역과 하위지표의 상대적 가중치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행복도와 영역별 만족도를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복 영역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와 일반국민조사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 영역, 건강 영역, 관계 영역에 높은 중요도를 두는

편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삶의 가치와 평가, 생활의 질과 경제적 만족, 주거와 환경의 질, 거버넌스의 질의 영역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보였다.³⁶⁾

36)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영역별 가중치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가중치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전문가에게는 직접 가중치를 묻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일반인 가중치는 전화조사 결과를 활용한 회귀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제 4 장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행복 불평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수준

제4절 행복의 불평등

제5절 소결

4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 행복 불평등

제1절 문제 제기

본 보고서의 일차적 목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행복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3장에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통하여 행복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였으며, 가중치 비교를 통해 전문가에 의해 얻어진 규범적 결과와 실제 국민들의 인식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반국민 전화조사 결과 영역별 행복지표에 앞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얻어진,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통해 행복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인구 특성·가구 특성별로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행복지수 점수를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객관적 소득계층별로 산출해 보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행복지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불평등’, ‘행복의 빈곤’이라는 개념을 시론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특히,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도와 빈곤율을 산출함으로써 계층 간 영위하는 행복의 격차를 비교해 볼 것이다.

제2절 분석 자료 및 방법

1. 분석 자료

이 장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 원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행복의 불평등도를 계측해 보고자 한다. 한국인의 행복 측정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일반국민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응답의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 전화조사(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CATI)를 실시하되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Random Digit Dialing, RDD) 방식을 활용하여 접촉된 응답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의 문항을 질문했다(부록 2 참조).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활용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을 통해 2017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 \pm 3.1\%p$ 이다.

〈표 4-1〉 일반국민조사 개요

구분	조사 개요
조사 대상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 적용된 CATI 시스템
표집틀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유효 표본	총 1,000명
신뢰 수준	95% 신뢰수준하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0\%p$
표본 추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법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17년 12월 11일~12월 20일
수행 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 결과 일반국민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남성이 50.8%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여성은 49.2%로 2015년 인구 센서스 기준 남성 49.9%, 여성 50.1%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하다. 연령 대별로는 20대가 17.4%, 30대가 21.1%, 40대가 24.7%, 50대가 22.8%, 60대 이상이 14.0%로 나타나 40대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가구 규모를 확인하면, 4인인 경우가 31.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2인이 23.5%, 3인이 22.9%로 나타나 최근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는 다소 상이하지만 이는 조사 방법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이 전체의 58.6%로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은 30.8%, 중졸 이하는 10.6%이다. 종교 활동 참여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lkes, 2006),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5.1%이다.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 소득 등의 경제력 또한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Jebb et al., 2018). 이 조사에서는 전화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가구소득을 범주화하여 확인했는데, 500만~699만 원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200만~299만 원대가 18.2%, 300만 원대가 16.8%, 400만 원대가 14.6%로 나타났는데, 가구 규모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면,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40.9%로 가장 많고,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26.3%, 비경제활동인구가 18.6%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소득계층을 확인하면 중간층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중하층이 23.4%, 중상층과 저소득층이 각각 14.9%와 14.6% 수준이었다.

〈표 4-2〉 일반국민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1,000	100.0
성별	남	508	50.8
	여	492	49.2
연령	20대 이하	174	17.4
	30대	211	21.1
	40대	247	24.7
	50대	228	22.8
	60대	140	14.0
가구원수	1명	102	10.2
	2명	235	23.5
	3명	229	22.9
	4명	314	31.4
	5명 이상	120	12.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06	10.6
	고졸	308	30.8
	대졸 이상	586	58.6
종교	종교 있다	451	45.1
	종교 없다	549	54.9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409	40.9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90	9.0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263	26.3
	실업자	52	5.2
	주부, 군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186	18.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72	7.2
	100만~199만 원	99	9.9
	200만~299만 원	182	18.2
	300만~399만 원	168	16.8
	400만~499만 원	146	14.6
	500만~699만 원	187	18.7
	700만~999만 원	72	7.2
	1000만 원 이상	74	7.4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146	14.6
	중하층	234	23.4
	중간층	455	45.5
	중상층	149	14.9
	상위층	16	1.6

2. 분석 방법

먼저, 핵심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행복지수는 앞서 3장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다. 표에서와 같이, 삶의 가치와 목표, 관계, 환경의 질, 일,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건강, 거버넌스의 질에 대해 각각 14.9%, 16.8%, 9.1%, 18.3%, 13.3%, 17.4%, 10.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으며, 최종 행복지수는 0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갖게 된다.

〈표 4-3〉 행복지수의 영역별 지표 가중치

(단위: %)

영역	가중치
삶의 가치와 목표	14.9
관계	16.8
환경의 질	9.1
일	18.3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13.3
건강	17.4
거버넌스의 질	10.1
합계	100.0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위에서와 같이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문항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각 문항은 0에서 10점까지의 캔ترل 사다리 척도(Cantril ladder Scale)로 측정되었다.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행복 점수를 검토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범주별, 가구 규모별, 최종 학력별, 종교 유무별 행복 점수와, 경제활동 상태별, 월소득 구간별, 주관적 소득계층별 행복 점수를 산출하였다. 주관적 계층의 경우, 앞서

기술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6%(16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중상층과 상위층을 하나로 묶어 '중상층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로써 주관적 계층은 4개 구간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행복 수준의 격차와 행복의 '결핍'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불평등도'와 '행복의 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과 같은 경제적 효용의 불평등도와 빈곤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와 빈곤율(head-count poverty ratio)을 행복지수 점수에 적용하였다.

제3절 한국인의 행복 수준

3장에서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와 행복 관련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지표는 삶의 만족도로 0.811에 이르며, 주관적 행복도는 이보다는 약간 낮지만 0.745의 상관도를 보였다. '행복' 본연의 개념과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이지만 최근 행복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 안정성과의 상관관계 역시 0.677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행복지수와 행복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행복지수의 타당도("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가")가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행복지수의 평균 점수는 6.329점으로, 주관적 행복도(6.505)보다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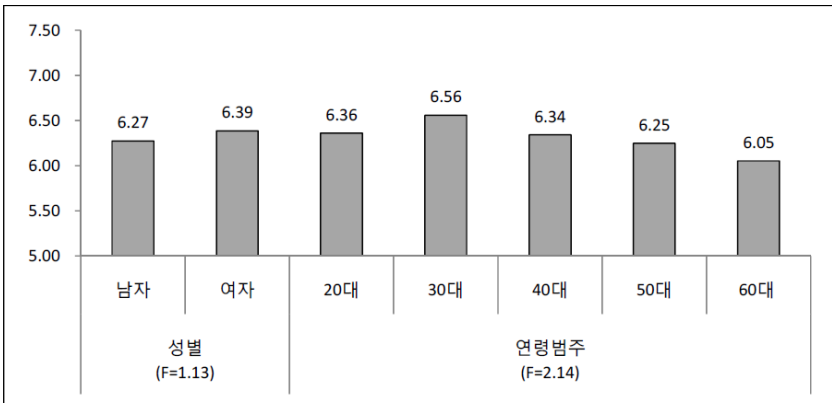
간 낮고, 삶의 만족도(6.352)와 거의 유사하며, 미래 안정성(5.7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³⁷⁾

〈표 4-4〉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점수

구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도	미래 안정성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1.000			
주관적 행복도	0.745	1.000		
삶의 만족도	0.811	0.751	1.000	
미래 안정성	0.677	0.618	0.721	1.000
평균 점수	6.329	6.505	5.740	6.352

아래 표는 개인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별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들의 평균 점수를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좀 더 높은 행복도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4-1〕 성별, 연령 범주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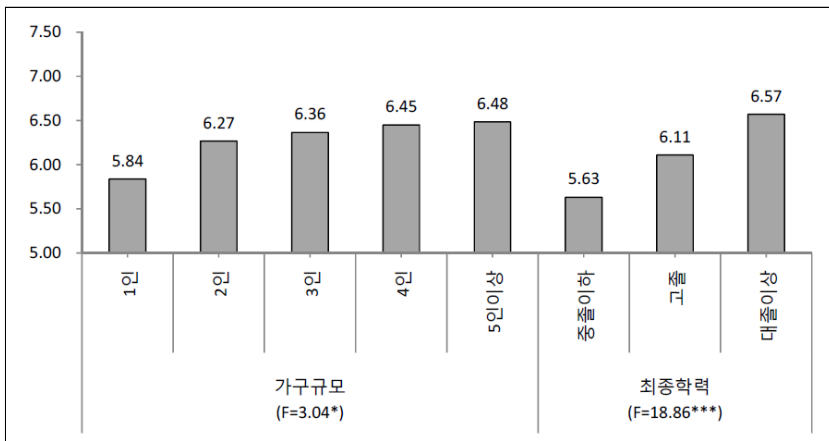


37) 여기에서 산출된 행복관련 지표의 평균 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4년 이래 매년 조사하고 있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점수와 매우 유사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산출된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6.7점과 6.3점이다(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등, 2017, pp. 408-409).

연령대별로 볼 때, 연령범주별로 볼 때 30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6.56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미래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행복 관련 수치에서 60대 이상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20대는 대체로 30대 다음으로 높은 행복도 점수를 보였으나, 미래 안정성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 빈곤 등 불안정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구 규모별로 볼 때 대체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행복도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행복도는 2인 이상 가구의 행복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자본 혹은 관계적 측면이 행복의 수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등(2014)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유무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진 바 있다.

[그림 4-2] 가구 규모별, 최종 학력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표 4-5) 개인 특성별, 경제적 지위별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의 평균 점수

구분	범주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성별	남자	6.27	6.28	6.28	5.61
	여자	6.39	6.74	6.42	5.88
연령 범주	20대	6.36	6.47	6.43	5.44
	30대	6.56	6.96	6.72	5.96
	40대	6.34	6.54	6.27	5.85
	50대	6.25	6.32	6.25	5.62
	60대	6.05	6.11	6.02	5.80
가구 규모	1인	5.84	5.94	5.57	5.02
	2인	6.27	6.41	6.42	5.80
	3인	6.36	6.55	6.38	5.74
	4인	6.45	6.64	6.47	5.78
	5인	6.53	6.62	6.42	6.12
	6인	6.41	7.16	6.95	6.05
	7인 이상	7.04	7.86	7.57	7.29
최종 학력	중졸 이하	5.63	5.67	5.31	4.93
	고졸	6.11	6.21	6.20	5.62
	대졸 이상	6.57	6.81	6.62	5.95
종교 유무	있음	6.49	6.71	6.59	6.03
	없음	6.20	6.34	6.16	5.5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6.51	6.67	6.49	5.87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	6.05	6.11	5.89	5.57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40	6.51	6.50	5.72
	실업자	5.39	5.31	5.12	4.46
	주부, 군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6.23	6.67	6.42	5.93
월소득	100만 원 미만	4.98	5.54	4.58	4.15
	100만~199만 원	5.62	5.45	5.40	5.07
	200만~299만 원	6.31	6.33	6.29	5.71
	300만~399만 원	6.30	6.43	6.42	5.71
	400만~499만 원	6.58	6.91	6.71	5.93
	500만~699만 원	6.56	6.81	6.73	6.06
	700만~999만 원	6.84	6.96	6.74	6.15
	1000만 원 이상	7.12	7.42	7.31	6.73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4.84	4.75	4.43	4.09
	중하층	5.92	6.03	5.81	5.24
	중간층	6.67	6.93	6.79	6.03
	중상층 이상	7.28	7.57	7.62	7.12
	전체	6.33	6.51	6.35	5.74

최종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지수 점수 또한 높았다. 예를 들면, 대졸 이상인 사람의 평균 행복지수 점수는 6.57점으로, 중졸 이하의 5.63점에 비해 0.94점 더 높았다. 이러한 학력 간 행복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은 무교인 사람에 비해 행복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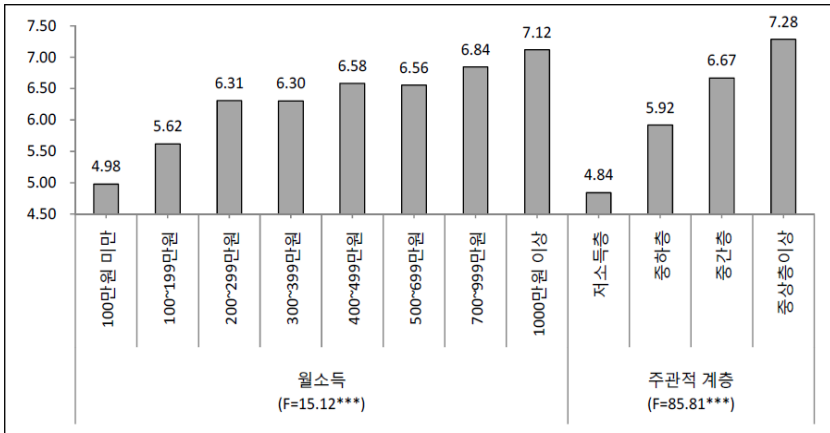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의 행복도 점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자,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복지수 점수는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업자의 경우, 행복지수 5.39점, 주관적 행복도 5.31점, 삶의 만족도 5.12점, 미래 안정성 4.46점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물론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도 행복도 점수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행복지수 4.98점, 주관적 행복도 5.54점, 삶의 만족도 4.58점, 미래 안정성 4.15점으로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월소득 구간별로 볼 때, 100만 원 미만과 이상, 100만~199만 원 미만과 이상 간의 점수 편차가 이 구간 이상 소득 간 격차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절대적 결핍과 박탈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이 중산층 이상인 사람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은 주관적 행복도보다 삶의 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요소의 복합체로서 '주관적 행복도'보다 삶의 만족도가 생활상의 결핍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평가하는 사람들의 평균 행복도 점수는 모두 4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 간의 행복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행

복도 점수들은 인구학적, 경제적 특성 변수들의 모든 범주들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앞서 월소득의 경우 가구원수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수준을 보여 주기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주관적 계층 변수가 실질적인 물질적 복지 수준을 보여 주는 좀 더 명확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분석에서는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주관적 계층 변수를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4-3] 월소득과 주관적 계층별 행복지수 평균 점수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도,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한 세 모형 모두에서 주관적 계층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변수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관적 계층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단순 회귀분석 결과에서 설명력(R-squared)은 20.5%에 이를 정도로 컸다.

〈표 4-6〉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들의 결정요인(회귀분석 결과)

	행복지수 b(s.e.)	주관적 행복도 b(s.e.)	주관적 삶의 만족도 b(s.e.)
주관적 계층			
중하층	0.970*** (0.158)	1.141*** (0.208)	1.236*** (0.213)
중간층	1.683*** (0.146)	1.952*** (0.192)	2.159*** (0.196)
중상층 이상	2.243*** (0.174)	2.565*** (0.229)	2.917*** (0.234)
성별(여자=0)	-0.045 (0.095)	-0.392** (0.125)	-0.035 (0.128)
연령 범주(20대=0)			
30대	0.076 (0.152)	0.336 (0.200)	0.146 (0.205)
40대	-0.063 (0.147)	0.01 (0.193)	-0.223 (0.197)
50대	-0.051 (0.153)	-0.083 (0.201)	-0.116 (0.206)
60대	-0.05 (0.185)	-0.082 (0.244)	-0.042 (0.249)
학력(중졸 이하=0)			
고졸	0.178 (0.182)	0.15 (0.239)	0.543* (0.244)
대졸 이상	0.387* (0.183)	0.444 (0.241)	0.628* (0.246)
종교(없음=0)	0.256** (0.098)	0.298* (0.129)	0.406** (0.131)
실업자(비실업자=0)	-0.487* (0.215)	-0.569* (0.282)	-0.665* (0.289)
상수	4.635*** (0.233)	4.672*** (0.307)	3.990*** (0.314)
N	1,000	1,000	1,000
r2	0.223	0.198	0.215

주: * p<0.05, ** p<0.01, *** p<0.001

주관적 계층 이외에도 모형에 따라 성별, 최종 학력, 종교, 실업 여부 등이 행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주관적으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는 사람에 비해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좀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모두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대로 실업자는 비실업자에 비해 모든 영역의 행복 수준이 통계적으로 더 낮았다.

제4절 행복의 불평등

1. 주관적 계층과 행복의 불평등

행복 연구에서 경제적 수준, 특히 소득이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 핵심은 ‘행복은 소득순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은 일정 수준까지는 ‘그렇다’는 것이며,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도 일종의 ‘유리천장(ceiling)’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을 들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추가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행복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김미곤 등, 2014). 이는 종단적 소득 상승과 횡단적 개인과 국가들 간의 비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행복도가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간 비교의 측면에서도 1인당 GDP가 약 3

만 달러를 넘어서면 그 이상으로 상승하더라도 행복도는 거의 평행한 곡선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Knutson, 2011; 김미곤 등, 2014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주장은 학술적 영역보다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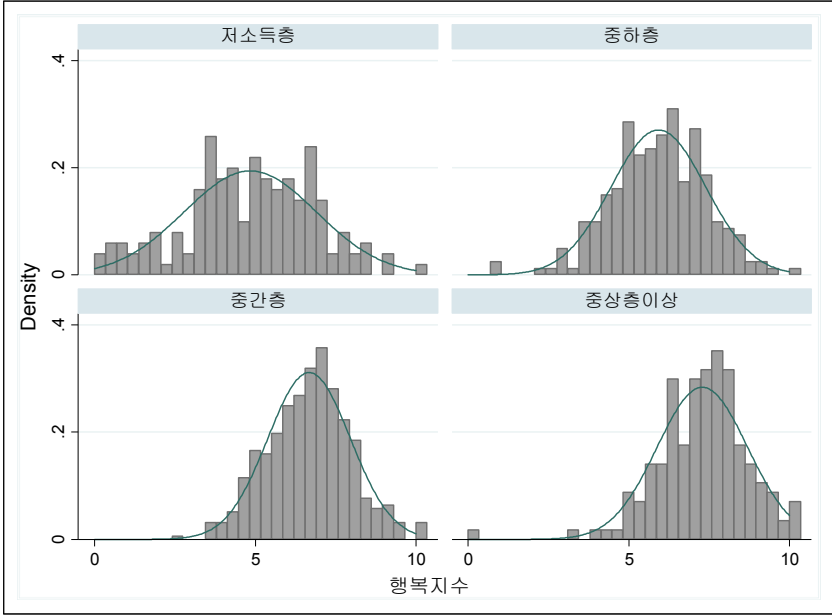
앞선 분석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소득과 주관적 계층이 상승할수록 행복지수와 관련 지표들은 일제히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들 간에는 100만 원의 간격에 따라 행복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지만, 그 이상에서는 상승폭이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즉, 경제적 수준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지만, 그 상승폭은 소득이 상승하면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계층별로 행복 10분위 점수를 산출한 결과, 각 계층 내에서 전체 평균 이상의 행복도를 영위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30% 내외, 중하층의 경우 40% 내외인 반면, 중간층은 60% 내외, 중상층은 8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적 지위가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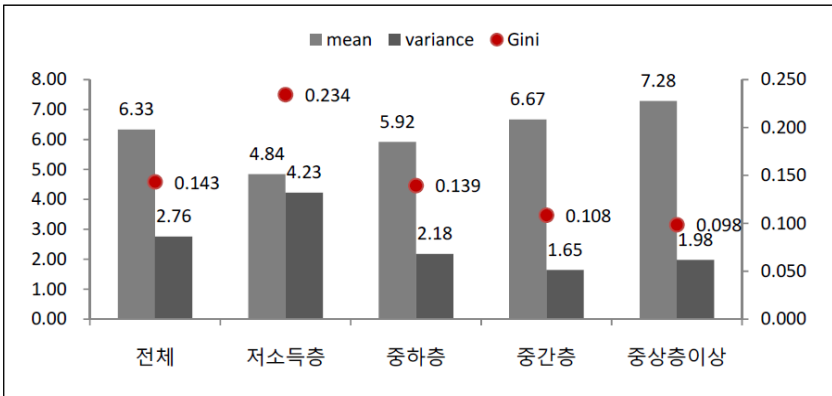
〈표 4-7〉 주관적 계층별 행복 10분위 점수

행복 10분위	전체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이상
1분위	3.07	1.03	3.30	4.42	4.64
2분위	4.69	2.80	4.42	5.26	6.00
3분위	5.33	3.55	4.96	5.79	6.44
4분위	5.85	4.03	5.36	6.22	6.92
5분위	6.29	4.64	5.76	6.59	7.25
6분위	6.68	5.22	6.18	6.89	7.53
7분위	7.07	5.79	6.47	7.18	7.84
8분위	7.45	6.39	6.99	7.54	8.16
9분위	7.93	6.93	7.43	7.92	8.67
10분위	8.94	8.27	8.42	8.93	9.51
전체	6.33	4.84	5.92	6.67	7.28

[그림 4-4]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지수 분포



[그림 4-5] 주관적 계층별 행복지수의 평균, 변량, 지니계수



한편, 그렇다면 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계층 내에서 행복의 수준도 어느 정도 동질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은 유사한 소득계층

내에서의 행복지수의 분포를 보여 준다.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저소득계층의 경우 행복지수의 분포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반면, 중간층과 중상층은 평균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 준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경우 행복지수 변량은 4.23으로 중간층(1.65)과 중상층(1.98)의 2배가 넘는다. 각 계층의 내부 지니계수를 비교해 보아도, 저소득층의 행복 지니는 0.234에 이르지만, 중상층 이상의 행복 지니는 0.098에 불과하다. 즉, 중상층은 상당히 균등하게 높은 수준의 행복도를 영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행복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2. 주관적 계층과 ‘행복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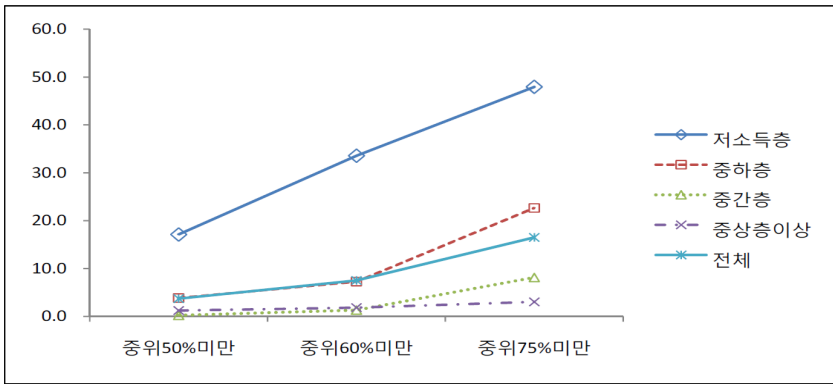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빈곤’ 개념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행복빈곤의 조작적 정의는 소득에서 주로 활용되는 상대적 빈곤개념과 유사하다. 즉,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 미만인 행복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전체 인구 중 이러한 인구의 비율을 행복빈곤율이라 칭하였다.

아래 그림과 표는 전체 인구와 주관적 계층별로 행복빈곤율을 제시한 것이다. 중위 행복도 50% 미만의 행복빈곤율은 3.7%이며, 중위 60% 미만의 경우 7.5%, 중위 75% 미만의 경우 16.5%에 이른다. 주관적 계층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행복빈곤율은 그 이상 계층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중위 행복도의 50%, 60%, 75% 행복빈곤율이 각각 17.1%, 33.6%, 47.9%로 전체 인구 행복빈곤율의 각각 4.6배, 4.5배, 2.9배 더

38) 실제로 주관적 계층별로 행복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모형에서만 종교 유무가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다. 즉, 저소득층은 행복감의 결핍을 경험할 위험 확률이 평균에 비해 2.9~4.6배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중상층 이상의 행복빈곤을 대비 저소득층의 행복빈곤율의 배율은 각각 14.3배, 18.6배, 16.0배에 이른다.

[그림 4-6]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



〈표 4-8〉 주관적 계층별 행복빈곤율 및 행복빈곤 위험률

(단위: %)

주관적 계층	행복빈곤율(중위값=6.46)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17.1	33.6	47.9
중하층	3.8	7.3	22.7
중간층	0.2	1.3	8.1
중상층 이상	1.2	1.8	3.0
전체	3.7	7.5	16.5
주관적 계층	계층별 행복빈곤 위험률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462.8	447.5	290.6
중하층	104.0	96.9	137.3
중간층	5.9	17.6	49.3
중상층 이상	32.8	24.2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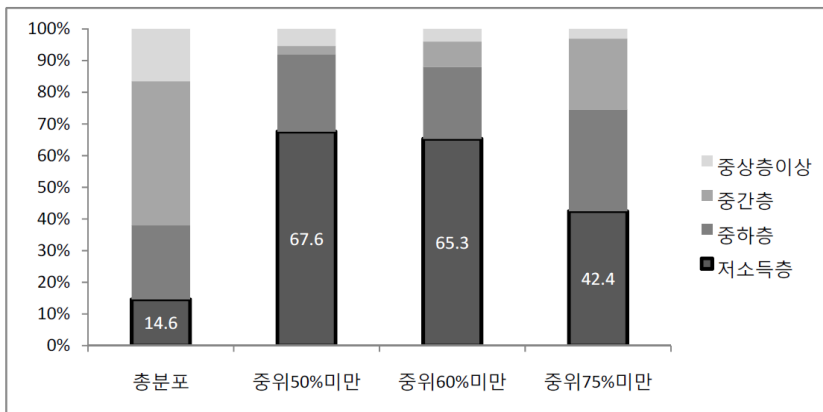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14.6%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이, 행복빈곤인구의 42.4~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 행복도의 50% 미만의 행복도를 가진 인구 중 67.6%는 저소득층이었으며, 중위 행복도 60% 미만의 행복도를 가진 인구 중 65.3%가 저소득층이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적 빈곤이 행복의 빈곤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복빈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다.

〈표 4-9〉 행복빈곤인구의 계층별 분포

(단위: %)

주관적 계층	총분포	행복빈곤인구의 분포		
		중위 50% 미만	중위 60% 미만	중위 75% 미만
저소득층	14.6	67.6	65.3	42.4
중하층	23.4	24.3	22.7	32.1
중간층	45.5	2.7	8.0	22.4
중상층 이상	16.5	5.4	4.0	3.0
전체	100.0	100.0	100.0	100.0

[그림 4-7] 행복의 빈곤 인구의 계층별 분포



제5절 소결

지금까지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전화조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수준과 행복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행복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행복지수의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가중치 적용 방식의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평균, 분포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행복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었다.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가중치 적용 행복지수 산출 방식은 타당성과 신뢰도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 수준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30대의 행복 수준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 종교 유무와 실업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보고서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행복 불평등도와 빈곤율 산출 결과,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았다. 즉, 이는 소득 이외에 요인에 의해 행복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측된 행복빈곤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

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즉,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은 행복의 결핍으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저소득층의 행복위험률은 평균의 2.9~4.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며, 소득과 소득 이외 요인들이 행복에 얼마나 혹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행복 연구가 좀 더 다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결론과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제2절 정책 건의

제1절 요약 및 함의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치자(治者)는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보여 주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 GDP를 사용하였다.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과 행복 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1974년 발표된 후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사회진보 측정 위원회’에서 사회진보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대안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체계를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 국민웰빙(National Well-being)을 발표하고 있다. 부탄에서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지수들은 삶의 질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거나 자국의 경제·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발되어, 우리의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행복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사회진보 지표로서의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상황하에서 연구진은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행복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진은 프라이(2015)의 행복 분류에 따라 행복을 (1) 순간적인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으로서의 행복감, (2) 전반적인 조건에 기반을 둔 충족감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 (3) 가능성을 계발하고 채우면서 얻는 삶의 질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또한 행복은 과거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와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포함하는 시간적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평가로서의 행복과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행복을 측정할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대부분의 연구들은 행복을 개인 및 사회의 측정 단위에 따라 주관적 만족, 관계, 지역사회, 자연환경, 생활의 질, 경제적 안정, 일, 건강, 주거, 교육, 참여와 거버넌스, 안전, 거시적 조건, 자유, 관용 등의 영역과 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고, 각각은 사회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요도(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행복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 혹은 가치 평가의 공리(公利)적 접근을 지향한다. 둘째, 문화적 공통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며 행복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인의 행복의

영역과 지표를 구성한다. 셋째, 관념적 개념으로서의 행복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과 지표를 선택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시대 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활용한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체계 개발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2차례의 전문가조사와 일반국민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연구진이 행복 영역의 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는 영역의 조정 및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진이 영역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결과 연구진이 제안한 10개 영역 38개 지표는 전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개 영역 36개 지표로 조정되었다. 가중치는 일 영역이 18.3%, 건강 영역이 17.4%, 관계 영역이 16.8%,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이 14.9%,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이 13.3%, 거버넌스의 질 영역이 10.1%, 환경의 질 영역이 9.1%로 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000명 대상으로 일반국민조사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행복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행복지수의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가중치 적용 방식의 행복지수는 삶의 만족도 점수와 평균, 분포 등에서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관적 행복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었다.

둘째,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 수준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주관적 계층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 종교 유무와 실업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셋째, 본 보고서에서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행복 불평등도와 빈곤율 산출 결과,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 요인에 의해 행복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측된 행복빈곤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아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은 행복의 결핍으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정책 건의

본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요인별 가중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복 개념을 탐색하고, 결정요인 및 요인별 가중치를 확인하였으며, 도출된 행복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행복지수 점수와 주관적 행복도, 삶의 만족도, 미래 안정성 점수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된 행복지수의 안정성과 타당도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발견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복에 대한 이스털린의 연구(1974) 이후, OECD 등의 국제기구와 영국, 캐나다, 부탄 등의 국가에서 행복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인의 행복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GDP에 견줄 만한 합의된 행복개념 또는 결정요인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행복 개념의 추상성과 행복 영역의 문화적, 역사적, 다차원성 때문이지만,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 이를 극복

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연구자의 능력, 연구 기간, 연구 예산 등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부분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향후에 행복 개념, 행복결정요인, 계층별 행복의 불평등성, 다차원적 행복빈곤, 박탈과 행복, 사회통합과 행복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행복 개념의 정치화 및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 영역’과 ‘건강 영역’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7개 영역 36개 지표를 조사하였다. 7개 영역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일 영역에 18.3%, 건강 영역에 17.4%, 관계 영역에 16.8%,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에 14.9%,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영역에 13.3%, 거버넌스의 질 영역에 10.1%, 환경의 질 영역에 9.1%의 가중치를 주었다. 이는 일과 건강이 다른 영역보다 행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역별로, 일 영역에서는 고용안정성이, 건강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관계 영역에서는 가족(결혼)생활 만족도가, 삶의 가치 영역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경제적 안정 영역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가,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가, 환경 영역에서는 주거 질 만족도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표보다는 이들 지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행복을 더 증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실업자, 저소득층의 행복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행복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행복 수준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행복의 수준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은 평균적으로 낮은 행복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행복의 내부 분산도도 다른 계

층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의 요인에 의해 행복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에 심층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중위 행복도(6.46점)의 50%, 60%, 75%로 계측된 행복빈곤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8%에 이를 정도로 높아 경제적 박탈과 결핍의 경험은 행복의 결핍으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또한 행복과 박탈과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연령별 행복도는 30대가 가장 높고 이후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4-1 참조). 외국의 연령별 행복도는 일반적으로 'U' 자형이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데이비드 블랜치플라워와 영국 워릭대학의 앤드루 오즈월드가 2011~2015년에 영국인 총 4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50대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U' 자형이다(Blanchflower & Oswald, 2017). 이러한 경향치는 유럽 28개국 조사에서도, 미국에서도 나타났다.³⁹⁾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사회통합조사에서도 U' 자형이 나타나지 않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직장에서의 조기 퇴직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행복도가 높을 수 없다. 따라서 중장년층 및 노인에 대한 노동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39) 심지어 침팬지, 오랑우탄의 경우도 'U' 자형 행복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eiss et al., 2012).

국내문헌

- 국가미래연구원. (분기별). 국민행복지수. 서울: 국가미래연구원.
- 김명식. (2002). 일반적 자유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성균관법학*, 14(2), 161-186.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호, 정해식, 임성은, 김성아. (2016).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아. (2017).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국민 불행률 감소를 위한 사회 실험.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제57호, 1-5.
- 김승권, 장영식, 조홍식, 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테오 리치. (1999). 천주실의 (송영배, 임금자, 장정란, 정인재, 조광, 최소자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1), 53-77.
- 박승희. (2015). 사회복지학자가 읽은 도덕경.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브루노 S. 프라이. (2015). 행복, 경제학의 혁명 (유정식, 흥훈, 박종현 옮김). 서울: 부키.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6-114.
- 아리스토텔레스.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김재홍, 이창우 역). 서울: 길.
- 이종관, 김홍중, 양현미, 조황희, 최항섭. (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기획재정부, 성균관대학교.
- 임형두. (2017. 7. 9.).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부탄'. 연합뉴스.

- 장기근. (2002). 개정증보판 신완역 논어. 명문당.
- 전찬희. (2010).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4), 317-326.
- 정해식, 정홍원, 구혜란, 김성근, 김성아, 우선희. (2016). 사회통합지수 개발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성아. (2016).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호, 75-88.
- 정해식, 우선희. (2017). 주관적 안녕의 추이와 합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7호, 1-8.
- 정해식, 구혜란, 김성아. (2017).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가중치 적용 방법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370-405.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프리 스카. (2010).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공리주의와 계몽운동 (스튜어트 매 크리디 편, 김석희 역). 행복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휴머니스트.
- 황명진,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 황중희. (2000). 명이대방록 (김덕균 역). 경기: 한길사.

국외문헌

-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8), 476-487.
- Alkire, S., Foster, J., Seth, S., Santos, M. E., Roche, J. M., & Ballon, P. (2015).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and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17). *Unhappiness and Pain in Modern America: A Review Essay, and Further Evidence, on*

- Carol Graham's Happiness for All?* NBER Working Paper No.w2408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oarini, R., Kolev, A., & McGregor, A. (2014).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 in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Towards a more universal conceptual framework. *OECD Development Centre Working Paper*. No.325. Paris: OECD Publishing.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2016).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2016 CIW National Report*. Waterloo, ON.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Cantril, H. (1965).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2015. 9.). *Summary of 2015 GNH Index*.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 Diener, E., Derrick, W., Biswas-Diener, R., Tov, W., Kim-Prieto, C., Choi, D., & Oishi, S. (2010). New Measures of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247-266.
- Gallup. (2014). *Worldwide Research Methodology and Codebook*. Gallup.
- Giovannini, E. (2017). Experiences and Challenges on GDP plus Beyond Issues.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DP plus Beyond 자료집*.
-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각 연도). *World Happiness Report*. New Work: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irai, T. (2017). *The Creation of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Palgrave macmillan.
-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Personal Wellbeing Index: 5th*

-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 Jebb, A. T., Tay, L., Diener, E., & Oishi, S. (2018). Happiness, income satiation and turning points around the world. *Nature Human Behaviour*, 2(1), 33-38. doi: 10.1038/s41562-017-0277-0
- Kahneman, D., Krueger, A. B., Schkade, D. A., Schwarz, N., & Stone, A. A. (2004).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DRM)*. *Instrument Documentation*: Supporting Online Material for Kahneman et al. (2004a), <http://www.sciencemag.org/cgi/data/306/5702/1776/DC1/1>.
- Knutsen, C. H. (2011). GDP, Inequality, Democracy and the Happiness of Nations. *UIO: Centre for the Study of Equality, Social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Working Paper*.
- Lelkes, O. (2006). Tasting freedom: Happiness, religion and econom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59(2), 173-194. doi: <https://doi.org/10.1016/j.jebo.2004.03.016>
- OECD & EC JRC.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cations. OECD. (2011) *How's Life?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4). *How's Life in Your Region?: Measuring Regional and Local Well-being for Policy Mak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 OECD Korea Policy Centre. (2014). *How's Life? 2013: OECD 국가들의*

웰빙 성과.

- ONS. (2016. 7.).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ersonal Well-being in the UK, 2014 to 2015*. ONS.
- ONS. (2016. 9.).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ONS.
- Sachs, J. D. (2013). Restoring virtue ethics in the quest for happiness, John Helliwell, Richard Layard and Jeffrey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New York: UN SDSN, pp. 80-97.
- Sen, A. (2005). Human Right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151-166.
- Sen, A. (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Skidelsky, R. & Skidelsky, E. (2013). *How Much is Enough? The Economics of The Good Life*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김병화 (역). 서울: 부키(주). (원저 2012 출판)
-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Stone, A. A., Schwartz, J. E., Broderick, J. E., & Deaton, A. (2010). A snapshot of the age distribu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22), 9985-9990.
- Porter, E. M., Stern, S., & Green, M. (2017) *Social Progress Index 2017*. Social Progress Imperative.
- UNDP. (1990).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UNDP.
- UNDP. (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Technical notes*. UNDP.
- van Zanden, J. L., Baten J., d'Ercole, M. M., Rijpma, A., Smith, C., & Timmer, M. (eds.). (2014).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 Paris. OECD Publishing. doi: 10.1787/9789264214262-en.
- Wang, S., Helliwell, J. F., Lee, G. E., Zhou, W., P. C., Barrington-Leigh, & Choi, S. (2014). *Measuring and Explaining Subjective Well-being in Korea* (S. Wang Ed.):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Weiss, A., King, J. E., Inoue-Murayama, M., Matsuzawa, T., & Oswald, A. J. (2012). Evidence for a midlife crisis in great apes consistent with the U-shape in human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ov 2012, 201212592..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qol.kostat.go.kr/blifeguide-proc.do>에서 2017. 8. 22. 인출.
- 통계청 사회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WDA05&conn_path=I3에서 2017. 12. 7. 인출.
- Centre for Bhutan Studies & GNH Research 홈페이지, <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articles-2/occasional-publications-on-gnh/>에서 2017. 11. 30. 인출.
-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홈페이지, www.oecdbetterlifeindex.org에서 2017. 12. 1. 인출.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news/communications-material/>에서 2017. 8. 21. 인출.

부록 1. 전문가조사표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금년도 수시과제로 수행중인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혹은 누가 어느 정도 불행한지 측정하기 위한 측정틀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영역과 각 영역의 지표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1차 조사와 조사된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2차 조사로 구성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아울러 최종 2차 조사까지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 조사대상: 관련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시·회·단체의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 조사업체: 한국농출입유통실험
- 조사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인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치차(治術)는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를 지표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행복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동안 GDP를 행복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득과 행복에 관한 횡단면 분석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대리변수로서의 GDP는 일정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행복간의 시계열 분석에서, 소득의 증가가 행복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1974년 '이스턴린의 역설(The Easterlin Paradox)'이 발표된 후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지표로서의 GDP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행복경제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 진보를 측정하는 대안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입국의 삶의 질을 파악, 비교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체계를 구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체계는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이는 국가군의 삶의 질 수준 비교를 목적으로 하여 단일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모든 비교국가가 공유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비전을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김미근 선임연구위원) 연구는 한국인이 경험하는 행복의 총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현 시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혹은 누가 어느 정도 불행한지 측정하기 위한 행복의 측정틀을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진은 학계에서 행복의 유사 개념으로 객관적 환경에 대한 묘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안녕(well-being), 삶의 질(quality of life), 풍요(flourishing) 등의 용어를,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개인 인식 차원의 주관적 묘사에서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등의 용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의 미시적 접근과 사회 단위의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4분면으로 나누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주관적 인식과 미시적 접근의 교차 영역인 3/4분면입니다(예,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 그리고 부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2/4분면(예, 민주화에 대한 인식 등)과 4/4분면입니다(예, 환경 등). 이는 2/4분면과 4/4분면의 지표들이 주요 관심영역인 3/4분면의 지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4 분면에 해당되는 GDP 등의 지표 들은 관심 영역이 아닙니다.



위의 행복지수 체계 4분면을 기준으로 행복의 차원(영역)과 그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들 선정격과 각 차원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조사진행계획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내용	행복 수준 측정을 위한 영역과 지표 타당성	행복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방법	델파이조사	델파이조사
예상일정	11월 중순	11월 하순

3. 행복 영역 도출을 위한 주요 참고문헌

국내 선행연구

김미곤 등(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등(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종관 등(2010)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기획재정부·성균관대학교.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황명진, & 심수진. (2008). 한국의 행복지수 개발. 조사연구, 9(3), 93-117.

국외 선행연구

부탄 국민총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영국 통계청(ONS) 국민웰빙. 문제 측정하기 (Measuring What Matters). ONS.
 유엔 지속가능한 발달 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개발계획 인간발달지수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캐나다 웰빙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Alkire, S. (2002). 인간발달의 영역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30(2), 181-205
 Helliwell, J. F., Layard, R., & Sachs, J. (각년도). 세계행복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
 OECD (2013). 주관적 안녕 측정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Publishing.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Better Life Index)
 Porter, E. M., Stern, S. & Green, M. (2017). 사회진보지수 (Social Progress Index 2017). Social Progress Imperative.
 Skidelsky, R. & Skidelsky, E. (2012). How Much is Enough? The Economics of The Good Life.

I. 행복의 의미

Q1. 귀하께서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 또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Ⅲ. 행복 영역 적절성

Q2. 연구진은 주요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행복의 주요 영역을 재분류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시하는 다음의 영역이 현실적 우리 사회 구성원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관련 항목	중요성				
		매우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삶의 기쁨과 목표	삶의 목표 달성 정도, 미래생활 준비 정도, 가치관 등	①	②	③	④	⑤
관계	가족결혼출산, 개인적 관계, 사회적 관계 등	①	②	③	④	⑤
환경	자연환경, 생태다양성 및 회복력, 자연과의 조화, 들(공기)과 위생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의 질	일상생활, 문화와 여가, 시간사용, 일과 삶의 조화, 정보와 언론에의 접근 등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안정	소득소비자산, 생활수준, 1인당 GNI 등	①	②	③	④	⑤
일	직업, 취업, 고용, 임금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	신체건강, 영양과 기본의료서비스, 스트레스 등	①	②	③	④	⑤
주거환경	주거의 질, 자가 소유 등	①	②	③	④	⑤
교육	교육, 대학진학, 교육과 숙련, 기본지식 및 고등교육에의 접근, 교육연한 등	①	②	③	④	⑤
거버넌스의 질	정부와 사회참여, 시민참여, 거버넌스, 민주적 참여, 개인적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관용과 통합 등	①	②	③	④	⑤

Q3.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영역 이외 어느 영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할 영역	
이유	

Q4.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영역 중 어느 부분들을 조정 혹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정해야 할 영역	
이유	
제외해야 할 영역	
이유	

IV. 행복의 영역별 지표 적절성

Q5. 다음은 연구진이 제안하는 행복의 영역별 측정 지표입니다. 각 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행복의 측정에 어느 정도 중요하든지 검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역	지표	적절성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삶의 가치와 목표	1. 삶에 대한 가치평가 (가치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①	②	③	④	⑤
	2. 자기효능감 (스스로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①	②	③	④	⑤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①	②	③	④	⑤
	4. 미래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⑤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 (기부, 자원봉사 등)	①	②	③	④	⑤
관계	6.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7. 부부생활 이상요율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동료·관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환경	9.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10. 거주 지역의 자연환경 (녹지, 공원 등)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생활의 질	11. 거주지역의 공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정도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안정	13. 일과 삶의 조화	①	②	③	④	⑤
	14. 소득 충족감	①	②	③	④	⑤
일	15. 구매(소비) 유능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①	②	③	④	⑤
	16. 재산 충족감	①	②	③	④	⑤
건강	17.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①	②	③	④	⑤
	18. 급여와 근무환경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19. 일에 대한 보람	①	②	③	④	⑤
	20. 고용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주거환경	21. 주관적 건강수준	①	②	③	④	⑤
	22.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수준	①	②	③	④	⑤
	23. 적절한 자기 관리 (운동, 식이조절)	①	②	③	④	⑤
	24. 의료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25. 스트레스 불안 우울	①	②	③	④	⑤
교육	26. 주거의 질 만족도 (주택수준, 거주지역 안전)	①	②	③	④	⑤
	27. 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28. 주거관련지출 부담	①	②	③	④	⑤
	29. 주거의 안정성 (자거소유, 안정적인 계약기간)	①	②	③	④	⑤
거버넌스의 질	30. (본인 및 자녀의) 희망 교육수준 달성 정도	①	②	③	④	⑤
	31.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①	②	③	④	⑤
	32.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대인신뢰)	①	②	③	④	⑤
	33.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34.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보호)	①	②	③	④	⑤
	35. 민주주의 수준	①	②	③	④	⑤
	36. 유능한 정부	①	②	③	④	⑤
	37.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	①	②	③	④	⑤
	38.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①	②	③	④	⑤

142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Q6.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 이외 어느 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할 지표	
이유	
Q7. 귀하께서는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 중 어느 부분들이 조정 혹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정해야 할 지표	
이유	
제외해야 할 지표	
이유	

V. 응답자 기본 정보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만 _____ 세
전공	① 경상계열 (세부전공: _____) ② 사회계열 (세부전공: _____) ③ 보건계열 (세부전공: _____)
소속기관	① 대학 ②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③ 사회단체 ④ 기타 (: _____)
<p>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2차 조사는 11월 하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p>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차 전문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수시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진행된 이 조사에 참여해 귀한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인 행복 영역과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께 한하여 실시되오니,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 유지를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종 2차 조사까지 응답을 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2017년 12월

- 조사대상: 관립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 조사입처: 한국통계실험실팀
- 조사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행복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1차 조사에서 한국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영역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음 그림과 같이 행복의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 영역 중요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

차원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평균
	매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삶의 가치와 목표		0.0	14.5	43.6	41.8	42.7
관계		0.0	12.7	25.5	61.8	44.9
환경		0.0	23.6	52.7	23.6	40.0
생활의 질	1.8	1.8	14.5	41.8	41.8	42.4
경제적 안정		0.0	14.5	45.5	40.0	42.5
일	1.8	1.8	9.1	54.5	34.5	42.0
건강		0.0	3.6	30.9	65.5	46.2
주거환경	1.8	1.8	3.6	21.8	54.5	38.9
교육		7.3	27.3	52.7	12.7	37.1
거버넌스의 질		5.5	32.7	45.5	16.4	37.3

※공란은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 제안 및 조정된 영역 >

영역	내용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두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조정
환경의 질	생태적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조정
교육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이 행복을 저해하는 반기능을 할 수 있고, 교육은 그 자체로서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함.
거버넌스의 질	비밀 수준과 느낌, 차별 경험, 불평등과 격차 인식 등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포괄해야 함.



II. 행복의 영역별 지표 적절성

1차 조사 결과에서 행복 영역별 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음 그림과 같이 지표를 조정된 영역에 할당했습니다.

영역/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삶의 가치와 목표										
1. 삶에 대한 가치평가 자기효능감		3.6	3.6	16.4	25.5	54.5	80.0	4.31		
2. (스스로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5.5	5.5	14.5	49.1	30.9	80.0	4.05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9.1	9.1	25.5	36.4	29.1	65.5	3.85		
4. 미래에 대한 불안		9.1	9.1	10.9	40.0	40.0	80.0	4.11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 (기부, 자원봉사 등)		1.8	1.8	38.2	41.8	18.2	60.0	3.76		
6. 희망 교육수준 달성 정도		3.6	3.6	36.4	43.6	16.4	60.0	3.73		
7.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3.6	1.8	5.5	47.3	30.9	16.4	47.3	3.55		
관계										
8. 가족(결혼)생활 만족도		1.8	1.8	5.5	38.2	54.5	92.7	4.45		
9.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1.8	1.8	12.7	30.9	54.5	85.5	4.38		
10.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0.0	18.2	45.5	36.4	81.8	4.18		
11.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음	3.6	3.6	7.3	16.4	38.2	38.2	76.4	4.04		
환경의 질										
12. 거주 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 (녹지, 공원 등)			0.0	18.2	56.4	25.5	81.8	4.07		
13.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3.6	3.6	12.7	50.9	32.7	83.6	4.13		
14. 주거의 질 만족도 (주택수준, 거주지역 안전)		1.8	1.8	12.7	52.7	32.7	85.5	4.16		
15. 교통 편의성		1.8	1.8	43.6	41.8	12.7	54.5	3.65		
16. 주거관련저출 부담		5.5	5.5	29.1	47.3	18.2	65.5	3.78		
17. 주거의 안정성 (자가소유, 안정적인 계약기간)		1.8	1.8	20.0	52.7	25.5	78.2	4.02		
일										
18.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3.6	3.6	16.4	47.3	32.7	80.0	4.09		
19. 급여와 근무환경 만족도			0.0	10.9	52.7	36.4	89.1	4.25		
20. 일에 대한 보람			0.0	16.4	41.8	41.8	83.6	4.25		
21. 고용안정성			0.0	3.6	58.2	38.2	96.4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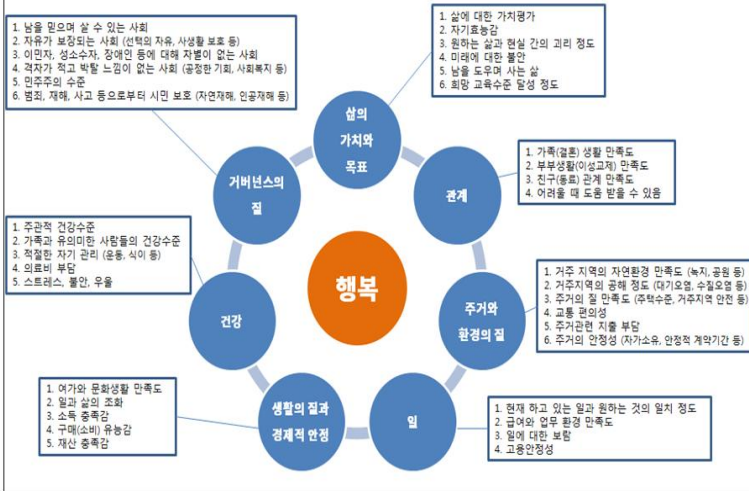
1차 조사 결과에서 행복 영역별 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해주셨고, 그 결과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지표를 각 영역에 할당했습니다.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22.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0.0	18.2	52.7	29.1	81.8	4.11		
23. 일과 삶의 조화			0.0	12.7	34.5	52.7	87.3	4.40		
24. 소득 충족감	1.8		1.8	10.9	41.8	45.5	87.3	4.31		
25. 구매(소비) 유능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5.5	5.5	29.1	36.4	29.1	65.5	3.89		
26. 재산 충족감		7.3	7.3	36.4	38.2	18.2	56.4	3.67		
건강										
27. 주관적 건강수준	1.8		1.8	3.6	36.4	58.2	94.5	4.49		
28.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수준	1.8	1.8	3.6	20.0	43.6	32.7	76.4	4.04		
29. 적절한 자기 관리 (운동, 식이조절 등)		3.6	3.6	23.6	50.9	21.8	72.7	3.91		
30. 의료비 부담		1.8	1.8	27.3	52.7	18.2	70.9	3.87		
31. 스트레스, 불안, 우울		1.8	1.8	7.3	47.3	43.6	90.9	4.33		
거버넌스의 질										
32.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1.8	1.8	3.6	16.4	40.0	40.0	80.0	4.15		
33.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1.8	1.8	23.6	40.0	34.5	74.5	4.07		
34.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보호)		5.5	5.5	21.8	34.5	38.2	72.7	4.05		
35.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3.6	3.6	40.0	34.5	21.8	56.4	3.75		
36. 민주주의 수준		3.6	3.6	20.0	47.3	29.1	76.4	4.02		
37. 범죄, 경제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			0.0	10.9	47.3	41.8	89.1	4.31		
38. 유능한 정부	1.8	3.6	5.5	36.4	38.2	20.0	58.2	3.71		

*공란은 응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 영역별 반영 사항 및 조정된 지표 내용 >

수정영역	수정치표	내용
	전체	영역별 지표 개수를 4~6개로 조정
삶의 가치와 목표	미래에 대한 불안	진급, 임금상승 등 일의 미래 전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교육	희망 교육 수준 달성 정도	"교육" 영역 삭제 및 "삶의 가치와 목표" 영역으로 이동
	평생교육에의 접근과 참여 정도	삭제함.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시간활용 자율성, 시간사용과 빈곤, 여행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건강	적절한 자기 관리	주관적 건강수준에 포함될 수 있음.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신뢰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거버넌스의 질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적극적 자유로서의 '선택의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서의 '사생활 보호'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통합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용	'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로 조정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와 치안, 폭력, 범죄 등 인공적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유능한 정부	다른 지표의 상위개념이므로 삭제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주관적 계층의식, 상대적 빈곤, 박탈감 등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지표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로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추가



III. 행복의 지표와 영역 가중치

Q1. 먼저 아래에 제시된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 합이 100점을 되도록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시오.

영역	지표	상대적 중요도	
삶의 가치와 목표	1. 삶에 대한 가치평가	%	총합 100% (자동계산)
	2. 자기효능감 (스스로의 능력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	
	3. 원하는 삶과 현실 간의 괴리 정도	%	
	4. 미래에 대한 불안	%	
	5. 남을 도우며 사는 삶	%	
	6. 희망 교육수준 달성 정도	%	
관계	1. 가족(결혼) 생활 만족도	%	총합 100% (자동계산)
	2. 부부생활(이성교제) 만족도	%	
	3. 친구(동료) 관계 만족도	%	
	4.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음	%	
환경의 질	1. 거주 지역의 자연환경 만족도 (녹지, 공원 등)	%	총합 100% (자동계산)
	2. 거주지역의 공해 정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	
	3. 주거의 질 만족도 (주백수준, 거주지역 안전 등)	%	
	4. 교통 편의성	%	
	5. 주거관련 지출 부담	%	
	6. 주거의 안정성 (자가소유, 안정적 계약기간 등)	%	
일	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것의 일치 정도	%	총합 100% (자동계산)
	2. 급여와 업무 환경 만족도	%	
	3. 일에 대한 보람	%	
	4. 고용안정성	%	
생활의 질과 경제력 안정	1. 여가와 문화생활 만족도	%	총합 100% (자동계산)
	2. 일과 삶의 조화	%	
	3. 소득 충족감	%	
	4. 구매(소비) 유능감 (원하는 것을 언제든 사거나 가질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	
	5. 재산 충족감	%	
건강	1. 주관적 건강수준	%	총합 100% (자동계산)
	2. 가족과 유의미한 사람들의 건강수준	%	
	3. 적절한 자기 관리 (운동, 식이 등)	%	
	4. 의료비 부담	%	
	5. 스트레스 불안 우울	%	
거버넌스의 질	1. 남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회	%	총합 100% (자동계산)
	2.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	
	3. 이민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사회	%	
	4. 격차가 적고 박탈 느낌이 없는 사회 (공정한 기회, 사회복지 등)	%	
	5. 민주주의 수준	%	
6. 범죄, 재해,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보호 (자연재해, 인공재해 등)	%		

Q2. 아래에 제시된 최종 7개 영역에 총점 100점을 할당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시오.

영역	내용	상대적 중요도
삶의 가치와 목표		%
관계		%
환경의 질		%
일		%
생활의 질과 경제적 안정		%
건강		%
거버넌스의 질		%

총합 100%
(자동계산)

IV. 답례품 수령 정보

능률협회 안 검토 후 적용

최종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제고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 마련에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부록 2. 일반국민조사표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대국민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 설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행복한지 혹은 누가 어느 정도 불행한지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조사와 관련된 신분 보장 및 비밀엄수 사항은 엄격히 지킬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한국인의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2017년 12월

- 조사대상: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지역, 성, 업력별로 추출한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인체: 한국농림업진흥청
- 조사주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매우 불행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하다’ 10점까지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매우 불행하다	←-----→	보통이다	←-----→	매우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귀하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치없다	←-----→	보통이다	←-----→	매우 가치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가족,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귀하는 전반적으로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소득, 소비, 재산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	보통이다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 자신과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귀하는 전반적으로 신뢰, 격차, 민주주의, 자유 등 우리 사회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귀하는 평소에 귀하께서 매사에 비판적이라고, 혹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판적이다	←-----보통이다-----→									매우 낙관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귀하는 귀하의 미래가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혹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안하다	←-----보통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일반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_____ 세

3. 가구원수: _____ 명
(※본인을 포함한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4. 거주지역

① 광역시 ② 시도

① 동 ② 읍 ③ 면

5.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상

6. 종교

① 있다 ② 없다

7.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한 가구소득)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699만원
⑦ 700~999만원 ⑧ 1,000만원 이상

8.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③ 고용주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④ 실업자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
⑤ 주부, 군인,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자료는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록 3. 일반국민조사 결과 기술통계표

〈부표 3-1〉 주관적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행 ← → 매우 행복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1	0.7	1.1	3.6	4.2	24.4	10.0	18.1	19.6	7.5	8.7	6.5
성별	남	3.1	1.0	1.4	3.7	4.3	26.4	10.6	18.1	17.3	5.5	8.5	6.3
	여	1.0	0.4	0.8	3.5	4.1	22.4	9.3	18.1	22.0	9.6	8.9	6.7
연령	20대 이하	1.7	1.1	0.0	5.2	5.7	18.4	13.2	21.8	19.0	6.9	6.9	6.5
	30대	1.4	0.9	0.5	2.8	2.4	16.6	8.5	21.8	25.6	9.5	10.0	7.0
	40대	1.2	0.8	0.8	3.2	4.9	24.3	10.1	18.6	21.5	7.7	6.9	6.5
	50대	3.5	0.4	1.3	3.9	5.3	26.8	8.8	15.8	18.0	7.0	9.2	6.3
	60대	2.9	0.0	3.6	2.9	2.1	40.0	10.0	10.7	10.7	5.7	11.4	6.1
가구원수	1명	2.9	1.0	2.9	2.9	7.8	30.4	7.8	20.6	15.7	0.0	7.8	5.9
	2명	1.7	0.0	1.7	6.0	3.0	29.8	8.5	14.0	18.3	7.2	9.8	6.4
	3명	1.7	0.4	0.9	3.1	3.5	24.5	11.4	17.9	22.7	7.4	6.6	6.6
	4명	2.2	1.0	0.0	2.9	5.4	19.1	11.1	21.3	18.8	10.5	7.6	6.6
	5명 이상	2.5	1.7	1.7	2.5	1.7	22.5	9.2	15.8	21.7	6.7	14.2	6.7
광역시/ 시도	광역시	1.9	0.6	1.7	2.6	4.3	23.6	10.6	18.7	18.9	8.3	8.7	6.6
	시도	2.3	0.8	0.6	4.5	4.2	25.1	9.4	17.5	20.2	6.8	8.7	6.5
동/읍/면	동	2.1	0.8	1.1	3.3	4.5	23.3	10.5	19.3	19.7	7.3	8.0	6.5
	읍	1.5	0.0	0.0	7.6	3.0	31.8	9.1	10.6	21.2	9.1	6.1	6.3
	면	2.3	0.0	2.3	3.5	2.3	29.1	5.8	11.6	17.4	8.1	17.4	6.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7.5	0.9	3.8	5.7	2.8	37.7	5.7	5.7	14.2	5.7	10.4	5.7
	고졸	1.3	1.3	0.6	5.2	5.2	30.5	9.1	16.9	18.8	4.2	6.8	6.2
	대졸 이상	1.5	0.3	0.9	2.4	3.9	18.8	11.3	21.0	21.0	9.6	9.4	6.8
종교	종교 있다	1.8	0.7	1.1	3.1	4.4	22.0	8.4	18.6	20.0	9.3	10.6	6.7
	종교 없다	2.4	0.7	1.1	4.0	4.0	26.4	11.3	17.7	19.3	6.0	7.1	6.3
		9.7	0.0	1.4	8.3	4.2	37.5	5.6	6.9	11.1	1.4	13.9	5.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1	2.0	4.0	6.1	7.1	33.3	8.1	14.1	12.1	3.0	5.1	5.5
	100만~199만 원	0.5	1.1	2.7	3.8	3.3	29.7	9.3	19.2	17.6	4.4	8.2	6.3
	200만~299만 원	2.4	0.6	0.0	3.0	6.5	23.2	12.5	16.7	23.2	4.8	7.1	6.4
	300만~399만 원	0.0	0.0	0.7	3.4	3.4	20.5	9.6	21.2	21.2	11.6	8.2	6.9
	400만~499만 원	0.5	0.0	0.0	2.1	4.3	24.6	8.6	20.3	22.5	9.6	7.5	6.8
	500만~699만 원	2.8	2.8	0.0	0.0	0.0	15.3	13.9	20.8	22.2	12.5	9.7	7.0
	700만~999만 원	1.4	0.0	0.0	4.1	2.7	5.4	13.5	20.3	21.6	14.9	16.2	7.4
경제활동 상태	1000만 원 이상	1.2	0.7	0.0	2.9	4.9	22.5	10.8	19.1	22.5	6.8	8.6	6.7
	상용직 임금근로자	3.3	1.1	5.6	2.2	5.6	27.8	7.8	15.6	14.4	6.7	10.0	6.1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7	0.8	1.5	3.8	3.0	24.3	9.5	17.1	19.4	9.1	8.7	6.5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8	0.0	1.9	13.5	7.7	30.8	5.8	17.3	13.5	0.0	3.8	5.3
	실업자	1.6	0.5	0.5	2.7	2.7	25.3	11.3	18.8	17.7	9.1	9.7	6.7
주관적 계층	비경제활동인구	11.0	1.4	4.8	11.6	8.2	33.6	5.5	7.5	10.3	1.4	4.8	4.7
	저소득층	0.9	1.3	1.7	4.3	6.8	31.6	11.1	18.8	14.5	3.8	5.1	6.0
	중하층	0.2	0.0	0.0	1.1	2.9	23.3	11.9	20.9	22.6	8.6	8.6	6.9
	중간층	0.7	1.3	0.0	2.0	0.7	10.1	8.1	20.8	26.2	13.4	16.8	7.5
	중상층	6.3	0.0	0.0	6.3	0.0	0.0	0.0	0.0	31.3	31.3	25.0	8.0

주: “귀하는 현재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매우 불행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하다’ 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의 응답 결과임.

〈부표 3-2〉 가치 있는 삶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구분		매우 가치 없음 ← → 매우 가치 있음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9	0.3	2.3	3.7	4.7	20.8	10.9	20.2	20.0	5.2	10.0	6.5
성별	남	2.8	0.4	1.8	4.9	4.7	21.3	12.2	17.9	21.3	3.7	9.1	6.4
	여	1.0	0.2	2.8	2.4	4.7	20.3	9.6	22.6	18.7	6.7	11.0	6.7
연령	20대 이하	1.7	0.0	2.3	6.9	6.9	18.4	11.5	20.1	19.5	2.3	10.3	6.4
	30대	0.9	0.9	1.9	1.4	3.8	14.7	11.4	23.7	26.5	4.3	10.4	6.9
	40대	1.2	0.4	2.4	4.5	4.5	18.6	8.9	21.1	19.8	8.1	10.5	6.7
	50대	3.5	0.0	0.9	1.8	4.8	23.2	12.3	21.5	18.4	3.9	9.6	6.5
	60대	2.1	0.0	5.0	5.0	3.6	32.9	10.7	11.4	13.6	7.1	8.6	6.1
가구원수	1명	2.0	0.0	4.9	7.8	6.9	22.5	5.9	16.7	22.5	1.0	9.8	6.1
	2명	1.7	0.0	2.6	3.4	3.8	26.0	9.8	17.9	17.9	6.4	10.6	6.5
	3명	0.9	0.0	1.7	3.9	7.4	18.3	11.8	23.1	20.5	3.9	8.3	6.5
	4명	2.2	0.6	1.9	3.2	2.9	18.5	12.1	22.0	21.7	5.4	9.6	6.6
	5명 이상	3.3	0.8	1.7	1.7	4.2	20.0	12.5	17.5	16.7	8.3	13.3	6.7
광역시/ 시도	광역시	1.5	0.2	3.0	2.8	4.7	22.1	9.8	19.6	21.5	4.5	10.4	6.6
	시도	2.3	0.4	1.7	4.5	4.7	19.6	11.9	20.8	18.7	5.8	9.6	6.5
동/읍/면	동	1.8	0.2	2.5	3.7	4.7	20.2	11.0	20.8	20.5	4.8	9.9	6.5
	읍	1.5	1.5	0.0	1.5	6.1	25.8	12.1	21.2	19.7	6.1	4.5	6.4
	면	3.5	0.0	2.3	5.8	3.5	23.3	9.3	14.0	15.1	8.1	15.1	6.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7	0.0	5.7	7.5	3.8	31.1	5.7	10.4	15.1	4.7	11.3	5.9
	고졸	1.9	0.3	3.2	5.2	5.5	22.7	12.7	18.5	16.9	4.2	8.8	6.2
	대졸 이상	1.4	0.3	1.2	2.2	4.4	17.9	10.9	22.9	22.5	5.8	10.4	6.8
종교	종교 있다	1.3	0.4	1.6	3.1	3.8	19.5	9.8	19.1	20.8	7.3	13.3	6.8
	종교 없다	2.4	0.2	2.9	4.2	5.5	21.9	11.8	21.1	19.3	3.5	7.3	6.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9	0.0	4.2	11.1	4.2	30.6	2.8	11.1	13.9	2.8	12.5	5.7
	100만~199만 원	3.0	0.0	6.1	11.1	7.1	24.2	10.1	15.2	11.1	5.1	7.1	5.7
	200만~299만 원	1.1	0.5	3.3	3.3	5.5	17.0	8.2	23.1	24.2	3.8	9.9	6.6
	300만~399만 원	2.4	0.6	1.8	1.2	4.2	22.6	15.5	22.0	16.7	3.0	10.1	6.5
	400만~499만 원	1.4	0.7	2.1	2.1	2.1	19.2	11.6	26.0	18.5	5.5	11.0	6.7
	500만~699만 원	0.0	0.0	0.5	2.1	5.9	20.3	12.3	20.3	23.0	5.9	9.6	6.8
	700만~999만 원	2.8	0.0	1.4	0.0	6.9	18.1	11.1	16.7	26.4	6.9	9.7	6.8
	1000만 원 이상	1.4	0.0	0.0	4.1	1.4	18.9	10.8	16.2	24.3	12.2	10.8	7.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0	0.7	0.5	2.7	6.4	20.0	11.7	20.3	23.0	4.4	9.3	6.6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1	0.0	5.6	10.0	4.4	21.1	11.1	12.2	15.6	8.9	10.0	6.2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7	0.0	2.3	2.3	1.1	20.5	10.3	24.0	20.9	4.9	11.0	6.7
	실업자	5.8	0.0	9.6	13.5	1.9	26.9	11.5	5.8	11.5	1.9	11.5	5.4
	비경제활동인구	2.2	0.0	2.7	2.2	7.0	21.0	9.7	22.6	16.7	6.5	9.7	6.5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9.6	0.0	11.0	13.0	4.8	21.9	6.8	8.2	12.3	4.1	8.2	5.1
	중하층	1.3	1.3	1.7	5.1	8.5	22.6	12.0	20.1	16.2	3.0	8.1	6.2
	중간층	0.2	0.0	0.2	1.1	3.1	22.2	12.3	26.2	20.2	4.8	9.7	6.9
	중상층	0.0	0.0	1.3	0.7	4.0	14.8	9.4	16.1	31.5	7.4	14.8	7.3
	상위층	6.3	0.0	0.0	0.0	0.0	0.0	6.3	0.0	31.3	37.5	18.8	8.1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3〉 관계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1	0.4	0.4	2.2	1.8	15.7	7.9	17.6	25.0	11.6	16.3	7.3
성별	남	1.2	0.2	0.8	2.6	2.2	15.6	7.1	18.7	26.6	10.8	14.4	7.2
	여	1.0	0.6	0.0	1.8	1.4	15.9	8.7	16.5	23.4	12.4	18.3	7.4
연령	20대 이하	1.7	0.0	0.6	2.9	2.9	10.3	6.9	16.1	25.3	13.8	19.5	7.5
	30대	0.9	0.5	0.5	0.9	1.9	9.0	5.7	21.3	28.4	15.2	15.6	7.6
	40대	0.8	0.0	0.0	3.6	0.8	15.0	10.9	19.0	27.1	11.3	11.3	7.2
	50대	0.9	0.9	0.4	0.9	1.8	22.4	7.0	15.4	24.6	9.2	16.7	7.2
	60대	1.4	0.7	0.7	2.9	2.1	22.9	8.6	15.0	16.4	7.9	21.4	7.1
가구원수	1명	1.0	1.0	1.0	6.9	2.9	15.7	8.8	16.7	20.6	8.8	16.7	6.9
	2명	0.9	0.9	0.4	2.1	2.6	21.7	7.7	17.4	17.4	10.6	18.3	7.1
	3명	0.9	0.0	0.4	1.7	2.2	13.5	8.7	19.7	28.4	10.0	14.4	7.3
	4명	1.3	0.0	0.3	1.6	1.0	13.4	7.6	17.5	29.3	15.0	13.1	7.4
	5명 이상	1.7	0.8	0.0	0.8	0.8	14.2	6.7	15.0	25.8	10.0	24.2	7.6
광역시/ 시도	광역시	1.1	0.2	0.4	2.8	1.9	15.5	6.8	18.1	26.8	10.6	15.7	7.3
	시도	1.1	0.6	0.4	1.7	1.7	15.8	8.9	17.2	23.4	12.5	16.8	7.3
동/읍/면	동	1.2	0.5	0.4	2.2	2.0	15.2	7.9	17.8	25.1	11.9	15.8	7.3
	읍	0.0	0.0	0.0	3.0	0.0	16.7	7.6	18.2	27.3	7.6	19.7	7.5
	면	1.2	0.0	1.2	1.2	1.2	19.8	8.1	15.1	22.1	11.6	18.6	7.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2.8	0.0	2.8	5.7	2.8	24.5	3.8	12.3	17.9	4.7	22.6	6.8
	고졸	1.6	1.0	0.3	2.6	1.0	19.2	8.4	16.2	22.1	10.1	17.5	7.2
	대졸 이상	0.5	0.2	0.0	1.4	2.0	12.3	8.4	19.3	27.8	13.7	14.5	7.5
종교	종교 있다	1.1	0.4	0.7	2.2	1.1	16.0	8.0	17.3	23.9	10.9	18.4	7.4
	종교 없다	1.1	0.4	0.2	2.2	2.4	15.5	7.8	17.9	25.9	12.2	14.6	7.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8	1.4	2.8	6.9	4.2	27.8	6.9	9.7	16.7	1.4	19.4	6.3
	100만~199만 원	4.0	0.0	1.0	4.0	1.0	22.2	8.1	14.1	17.2	10.1	18.2	6.9
	200만~299만 원	0.0	0.5	0.0	2.2	1.6	17.6	7.1	18.1	25.3	10.4	17.0	7.4
	300만~399만 원	1.2	0.6	0.6	1.8	1.2	17.9	4.2	22.0	26.8	11.9	11.9	7.2
	400만~499만 원	0.0	0.0	0.0	0.7	2.7	11.6	10.3	17.1	28.1	14.4	15.1	7.6
	500만~699만 원	0.0	0.5	0.0	0.5	2.1	15.0	10.7	15.5	26.2	14.4	15.0	7.5
	700만~999만 원	2.8	0.0	0.0	0.0	1.4	5.6	11.1	18.1	29.2	15.3	16.7	7.6
	1000만 원 이상	1.4	0.0	0.0	5.4	0.0	5.4	4.1	24.3	25.7	9.5	24.3	7.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2	0.0	1.7	1.7	13.2	9.5	18.3	26.4	14.7	13.7	7.4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0.0	0.0	1.1	3.3	3.3	21.1	8.9	10.0	18.9	15.6	17.8	7.2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9	0.4	0.8	3.0	1.1	15.2	6.1	18.6	26.2	8.7	17.9	7.3
	실업자	0.0	0.0	1.9	1.9	3.8	25.0	7.7	19.2	17.3	9.6	13.5	6.9
	비경제활동인구	2.2	1.1	0.0	1.6	1.6	16.7	6.5	17.7	25.3	7.5	19.9	7.3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5.5	0.7	2.7	7.5	3.4	24.0	8.2	11.6	14.4	7.5	14.4	6.2
	중하층	0.4	0.9	0.0	2.1	2.6	21.8	6.8	18.4	24.4	9.8	12.8	7.1
	중간층	0.0	0.0	0.0	0.9	1.3	12.7	8.1	20.2	26.2	12.5	18.0	7.6
	중상층	0.7	0.7	0.0	1.3	0.7	8.1	9.4	15.4	33.6	14.8	15.4	7.7
	상위층	6.3	0.0	0.0	0.0	0.0	6.3	0.0	6.3	18.8	18.8	43.8	8.3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가족,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4> 여가문화생활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5.5	1.8	3.8	8.5	5.0	22.8	10.3	13.6	15.0	6.2	7.5	5.8
성별	남	5.9	2.0	3.3	8.9	4.9	21.1	10.4	14.8	15.4	5.3	8.1	5.8
	여	5.1	1.6	4.3	8.1	5.1	24.6	10.2	12.4	14.6	7.1	6.9	5.8
연령	20대 이하	1.7	1.1	2.3	9.2	5.2	20.7	12.6	14.9	17.8	6.9	7.5	6.2
	30대	4.7	2.4	2.8	9.5	6.6	22.3	8.5	17.5	14.7	3.3	7.6	5.7
	40대	5.7	1.2	5.7	8.9	3.2	23.9	12.1	11.3	16.2	6.9	4.9	5.6
	50대	6.6	2.6	4.4	7.5	6.6	21.1	9.6	14.0	12.7	7.9	7.0	5.6
	60대	9.3	1.4	2.9	7.1	2.9	27.1	7.9	9.3	13.6	5.7	12.9	5.8
가구원수	1명	10.8	3.9	5.9	4.9	3.9	15.7	8.8	18.6	15.7	2.9	8.8	5.5
	2명	6.0	1.3	1.7	6.0	3.4	26.4	8.5	14.0	14.9	7.2	10.6	6.1
	3명	6.6	2.2	2.2	11.4	7.0	23.1	8.3	13.5	11.4	8.7	5.7	5.6
	4명	3.2	1.3	5.1	10.5	5.1	22.6	13.1	11.1	16.6	5.7	5.7	5.7
	5명 이상	4.2	1.7	5.8	5.8	5.0	21.7	11.7	15.0	17.5	3.3	8.3	5.9
광역시/ 시도	광역시	5.7	1.3	3.2	9.6	4.7	22.3	11.7	13.6	14.3	7.4	6.2	5.8
	시도	5.3	2.3	4.3	7.5	5.3	23.2	9.1	13.6	15.7	5.1	8.7	5.8
동/읍/면	동	5.5	1.9	3.8	8.7	4.5	22.2	10.5	13.6	15.8	6.4	7.2	5.8
	읍	3.0	0.0	1.5	9.1	12.1	24.2	10.6	18.2	7.6	7.6	6.1	5.8
	면	7.0	2.3	5.8	5.8	4.7	27.9	8.1	10.5	12.8	3.5	11.6	5.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7.0	1.9	2.8	9.4	3.8	29.2	3.8	10.4	7.5	2.8	11.3	4.9
	고졸	5.5	2.6	4.5	10.4	4.5	26.0	10.7	11.0	12.0	5.2	7.5	5.5
	대졸 이상	3.4	1.4	3.6	7.3	5.5	20.0	11.3	15.5	17.9	7.3	6.8	6.1
종교	종교 있다	6.7	1.8	2.2	8.2	4.4	22.0	11.3	14.4	15.1	5.1	8.9	5.8
	종교 없다	4.6	1.8	5.1	8.7	5.5	23.5	9.5	12.9	14.9	7.1	6.4	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3.6	0.0	4.2	9.7	1.4	25.0	2.8	11.1	6.9	2.8	12.5	4.7
	100만~199만 원	8.1	2.0	8.1	5.1	4.0	27.3	6.1	15.2	15.2	3.0	6.1	5.4
	200만~299만 원	6.6	4.4	2.7	6.6	6.0	25.8	8.8	12.1	16.5	6.6	3.8	5.5
	300만~399만 원	5.4	2.4	2.4	10.7	2.4	26.8	14.3	13.7	8.9	7.1	6.0	5.6
	400만~499만 원	1.4	0.7	3.4	9.6	5.5	23.3	11.6	13.7	18.5	4.1	8.2	6.1
	500만~699만 원	1.6	1.1	3.7	10.7	9.1	20.9	11.8	16.6	11.2	5.9	7.5	5.9
	700만~999만 원	1.4	0.0	4.2	6.9	5.6	9.7	13.9	12.5	25.0	12.5	8.3	6.7
	1000만 원 이상	4.1	1.4	4.1	5.4	1.4	14.9	8.1	10.8	25.7	9.5	14.9	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	2.2	3.7	9.0	5.9	23.2	12.0	15.2	14.4	5.9	6.6	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8.9	2.2	11.1	5.6	6.7	16.7	3.3	12.2	18.9	4.4	10.0	5.5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9.1	1.1	3.0	8.0	4.6	24.0	10.6	12.5	13.7	7.2	6.1	5.6
	실업자	9.6	0.0	0.0	9.6	1.9	25.0	13.5	13.5	17.3	3.8	5.8	5.7
	비경제활동인구	5.4	2.2	2.7	9.1	3.8	22.6	8.6	12.4	15.6	7.0	10.8	6.0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20.5	2.7	9.6	15.1	2.1	21.9	4.1	8.2	8.2	4.1	3.4	4.0
	중하층	5.1	4.3	6.4	9.8	6.8	28.6	6.4	12.8	11.5	2.6	5.6	5.2
	중간층	1.8	0.7	1.8	6.6	5.1	24.2	13.2	15.4	17.1	7.0	7.3	6.2
	중상층	2.0	0.7	0.7	6.7	5.4	12.8	14.8	15.4	20.1	10.1	11.4	6.7
	상위층	12.5	0.0	0.0	0.0	0.0	0.0	0.0	6.3	18.8	18.8	43.8	8.0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5〉 경제 수준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6	2.0	4.1	9.0	7.1	24.5	12.5	15.4	11.5	3.7	5.6	5.5
성별	남	5.5	1.6	3.9	8.9	8.3	26.0	13.4	14.0	10.6	2.4	5.5	5.4
	여	3.7	2.4	4.3	9.1	5.9	23.0	11.6	16.9	12.4	5.1	5.7	5.7
연령	20대 이하	3.4	1.1	3.4	10.9	6.9	24.1	16.1	14.4	11.5	2.3	5.7	5.6
	30대	5.2	2.8	3.3	6.6	7.1	18.0	16.1	17.5	14.7	2.4	6.2	5.7
	40대	3.2	1.2	4.0	6.5	7.7	29.1	14.2	15.4	10.9	4.5	3.2	5.6
	50대	5.3	2.2	5.3	10.5	6.6	25.0	8.3	16.2	8.3	5.3	7.0	5.4
	60대	6.4	2.9	4.3	12.1	7.1	25.7	6.4	12.1	12.9	3.6	6.4	5.3
가구원수	1명	8.8	2.9	5.9	10.8	12.7	18.6	11.8	14.7	3.9	3.9	5.9	4.9
	2명	3.0	2.1	6.0	11.5	5.1	26.8	10.2	11.9	14.0	3.0	6.4	5.5
	3명	5.2	0.9	4.4	7.4	8.3	24.9	12.7	17.9	8.7	4.8	4.8	5.5
	4명	3.5	1.9	2.5	7.6	7.0	24.8	14.3	17.5	12.1	3.5	5.1	5.7
	5명 이상	5.8	3.3	2.5	9.2	4.2	23.3	12.5	12.5	16.7	3.3	6.7	5.6
광역시/ 시도	광역시	3.0	2.8	4.9	9.8	7.9	21.3	16.0	15.1	10.9	2.8	5.7	5.5
	시도	6.0	1.3	3.4	8.3	6.4	27.4	9.4	15.7	12.1	4.5	5.5	5.5
동/읍/면	동	4.6	2.2	4.2	9.0	6.8	24.3	12.6	15.4	11.1	4.0	5.7	5.5
	읍	0.0	0.0	3.0	9.1	16.7	27.3	13.6	9.1	13.6	1.5	6.1	5.7
	면	8.1	1.2	3.5	9.3	2.3	24.4	10.5	19.8	14.0	2.3	4.7	5.5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3.2	2.8	6.6	14.2	9.4	24.5	2.8	9.4	8.5	3.8	4.7	4.5
	고졸	3.9	3.2	6.2	8.4	5.8	30.5	12.3	10.4	9.7	3.9	5.5	5.3
	대졸 이상	3.4	1.2	2.6	8.4	7.3	21.3	14.3	19.1	13.0	3.6	5.8	5.8
종교	종교 있다	3.5	2.2	3.8	7.3	7.8	24.8	9.5	16.6	12.6	4.7	7.1	5.7
	종교 없다	5.5	1.8	4.4	10.4	6.6	24.2	14.9	14.4	10.6	2.9	4.4	5.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22.2	1.4	9.7	19.4	6.9	19.4	5.6	5.6	2.8	0.0	6.9	3.7
	100만~199만 원	8.1	6.1	10.1	15.2	8.1	25.3	8.1	9.1	6.1	1.0	3.0	4.3
	200만~299만 원	4.9	1.1	6.0	9.3	13.2	26.4	13.7	7.7	12.1	2.2	3.3	5.1
	300만~399만 원	2.4	4.8	3.6	8.3	8.9	29.8	11.3	17.3	6.0	4.2	3.6	5.3
	400만~499만 원	0.7	0.0	2.1	11.6	4.1	28.1	17.8	19.9	8.2	0.7	6.8	5.8
	500만~699만 원	2.1	1.6	1.1	4.8	4.3	23.0	13.9	23.5	15.5	5.9	4.3	6.2
	700만~999만 원	4.2	0.0	1.4	2.8	2.8	18.1	11.1	23.6	16.7	8.3	11.1	6.6
1000만 원 이상	1.4	0.0	1.4	2.7	4.1	14.9	12.2	10.8	29.7	9.5	13.5	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2	1.7	1.7	7.3	9.5	24.7	14.2	17.8	10.0	4.9	4.9	5.7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	6.7	7.8	10.0	12.2	15.6	14.4	8.9	12.2	2.2	3.3	4.8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3	1.5	4.2	8.0	3.8	30.8	10.3	14.8	12.5	3.0	5.7	5.5
	실업자	11.5	1.9	13.5	15.4	7.7	17.3	13.5	3.8	9.6	0.0	5.8	4.3
	비경제활동인구	3.8	1.1	4.8	11.8	3.8	21.5	10.8	17.2	13.4	3.8	8.1	5.8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21.9	7.5	15.1	18.5	6.2	17.8	1.4	5.5	3.4	1.4	1.4	3.1
	중하층	3.0	3.8	5.6	15.4	15.0	29.9	10.3	9.0	3.8	1.7	2.6	4.7
	중간층	1.1	0.0	0.9	5.7	5.5	29.5	19.1	19.6	10.8	2.9	5.1	6.0
	중상층	0.7	0.0	1.3	0.7	1.3	9.4	8.1	24.2	32.9	10.1	11.4	7.4
	상위층	6.3	0.0	0.0	0.0	0.0	6.3	0.0	0.0	18.8	18.8	50.0	8.5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의 소득, 소비, 재산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6> 일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3.1	1.8	2.7	6.6	4.6	22.0	9.2	15.3	17.3	7.9	9.5	6.2
성별	남	3.3	2.6	2.4	6.1	4.5	23.2	9.3	15.0	16.9	8.1	8.7	6.1
	여	2.8	1.0	3.0	7.1	4.7	20.7	9.1	15.7	17.7	7.7	10.4	6.3
연령	20대 이하	1.7	2.3	3.4	10.9	8.0	20.1	10.3	14.4	13.2	8.6	6.9	5.9
	30대	1.9	1.9	1.9	5.2	3.8	18.0	11.8	20.4	18.5	6.2	10.4	6.5
	40대	2.8	0.4	3.2	6.9	3.2	19.8	10.1	14.6	21.1	9.3	8.5	6.4
	50대	3.5	2.6	0.9	6.1	4.4	25.9	7.5	14.9	15.8	6.6	11.8	6.2
	60대	6.4	2.1	5.0	3.6	4.3	27.9	5.0	10.7	16.4	9.3	9.3	5.9
가구원수	1명	7.8	3.9	4.9	6.9	4.9	16.7	12.7	16.7	11.8	5.9	7.8	5.6
	2명	3.4	0.9	2.6	8.5	4.3	25.1	6.0	14.0	19.1	6.0	10.2	6.2
	3명	2.2	2.2	3.1	4.8	5.7	19.7	7.9	20.1	15.3	9.6	9.6	6.4
	4명	1.6	1.6	1.6	7.0	4.5	23.9	11.1	12.4	18.8	8.6	8.9	6.3
	5명 이상	4.2	1.7	3.3	5.0	3.3	20.0	10.0	15.0	18.3	8.3	10.8	6.3
광역시/ 시도	광역시	2.8	1.9	3.2	5.3	5.7	19.8	10.0	16.0	19.6	6.8	8.9	6.3
	시도	3.4	1.7	2.3	7.7	3.6	24.0	8.5	14.7	15.3	8.9	10.0	6.2
동/읍/면	동	3.3	2.0	2.5	6.6	4.5	21.2	9.3	15.0	18.3	8.3	9.1	6.2
	읍	1.5	0.0	3.0	12.1	6.1	24.2	10.6	13.6	12.1	9.1	7.6	6.0
	면	2.3	1.2	4.7	2.3	4.7	27.9	7.0	19.8	11.6	3.5	15.1	6.3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4	3.8	6.6	4.7	6.6	29.2	5.7	6.6	11.3	4.7	11.3	5.3
	고졸	3.2	2.3	3.9	7.5	4.9	25.0	8.8	12.7	15.9	8.1	7.8	6.0
	대졸 이상	1.9	1.2	1.4	6.5	4.1	19.1	10.1	18.3	19.1	8.4	10.1	6.5
종교	종교 있다	2.7	1.3	2.4	6.7	3.3	21.5	9.1	12.6	18.0	9.8	12.6	6.5
	종교 없다	3.5	2.2	2.9	6.6	5.6	22.4	9.3	17.5	16.8	6.4	6.9	6.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8.1	6.9	11.1	13.9	4.2	20.8	2.8	9.7	1.4	1.4	9.7	4.0
	100만~199만 원	5.1	3.0	8.1	9.1	3.0	35.4	6.1	8.1	14.1	5.1	3.0	5.2
	200만~299만 원	0.5	1.6	1.6	8.2	5.5	22.0	11.5	16.5	15.4	7.7	9.3	6.3
	300만~399만 원	2.4	2.4	1.2	4.8	6.0	23.2	11.9	17.3	18.5	4.2	8.3	6.2
	400만~499만 원	2.7	0.0	1.4	6.2	4.8	21.2	10.3	15.8	17.1	8.9	11.6	6.5
	500만~699만 원	0.5	0.5	1.6	5.3	5.9	21.4	9.1	17.6	19.8	10.2	8.0	6.6
	700만~999만 원	2.8	2.8	1.4	4.2	1.4	11.1	9.7	20.8	20.8	15.3	9.7	6.8
1000만 원 이상	1.4	0.0	0.0	2.7	1.4	16.2	5.4	10.8	29.7	12.2	20.3	7.5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1.2	0.7	5.1	5.9	19.6	10.8	18.1	19.6	8.8	9.8	6.6
	임사·일용직 임금근로자	1.1	4.4	4.4	10.0	6.7	22.2	8.9	12.2	15.6	7.8	6.7	5.8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7	1.9	3.0	6.5	1.9	23.6	7.2	16.0	17.5	8.4	11.4	6.4
	실업자	19.2	3.8	9.6	15.4	1.9	25.0	5.8	3.8	5.8	5.8	3.8	4.0
	비경제활동인구	5.9	1.1	3.8	5.9	5.4	24.2	9.7	12.9	16.1	5.9	9.1	5.9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13.7	7.5	10.3	13.0	3.4	24.0	3.4	8.9	7.5	1.4	6.8	4.2
	중하층	1.7	2.6	2.1	8.1	6.0	29.1	11.5	15.4	13.2	4.7	5.6	5.8
	중간층	0.9	0.2	1.1	5.1	4.4	20.2	11.0	17.6	20.9	9.5	9.2	6.7
	중상층	1.3	0.0	1.3	3.4	4.7	16.8	6.0	16.1	21.5	12.1	16.8	7.1
	상위층	6.3	0.0	0.0	0.0	0.0	0.0	6.3	0.0	25.0	31.3	31.3	8.3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7〉 건강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0	0.6	1.8	4.2	4.4	23.3	11.5	21.4	17.4	6.0	7.4	6.4
성별	남	1.6	0.2	1.8	4.1	5.7	22.8	9.4	22.8	17.3	5.5	8.7	6.4
	여	2.4	1.0	1.8	4.3	3.0	23.8	13.6	19.9	17.5	6.5	6.1	6.3
연령	20대 이하	1.1	0.6	1.1	5.7	4.6	16.1	12.6	22.4	14.9	8.0	12.6	6.7
	30대	0.0	0.0	1.4	2.4	4.3	22.3	10.4	24.2	21.8	6.6	6.6	6.7
	40대	1.6	0.8	1.2	4.9	4.0	25.1	14.2	21.5	17.8	4.9	4.0	6.2
	50대	2.2	0.4	1.3	3.9	4.4	29.8	10.5	17.5	18.0	3.5	8.3	6.3
	60대	6.4	1.4	5.0	4.3	5.0	20.0	8.6	22.1	12.1	8.6	6.4	5.9
가구원수	1명	3.9	0.0	3.9	7.8	2.9	23.5	7.8	22.5	20.6	0.0	6.9	6.0
	2명	2.1	0.9	2.6	5.1	5.1	26.8	10.6	20.0	12.3	6.0	8.5	6.2
	3명	1.3	0.4	1.7	2.6	4.8	24.0	12.2	19.2	20.5	6.1	7.0	6.5
	4명	1.3	0.6	0.6	4.1	4.1	21.7	12.7	23.9	17.5	7.6	5.7	6.5
	5명 이상	3.3	0.8	1.7	2.5	4.2	19.2	11.7	20.8	18.3	6.7	10.8	6.6
광역시/ 시도	광역시	1.9	0.9	2.1	3.2	4.0	23.4	11.3	22.8	17.4	6.0	7.0	6.4
	시도	2.1	0.4	1.5	5.1	4.7	23.2	11.7	20.2	17.4	6.0	7.7	6.4
동/읍/면	동	1.9	0.7	1.7	3.9	4.1	24.1	11.0	21.8	17.5	6.1	7.3	6.4
	읍	0.0	0.0	3.0	7.6	7.6	18.2	10.6	19.7	22.7	4.5	6.1	6.3
	면	4.7	0.0	2.3	4.7	4.7	19.8	17.4	18.6	12.8	5.8	9.3	6.2
최종 학력	중졸 이하	7.5	0.0	7.5	4.7	3.8	32.1	6.6	16.0	10.4	1.9	9.4	5.5
	고졸	2.3	1.0	1.9	4.5	5.8	26.3	12.0	15.6	17.9	7.1	5.5	6.2
	대졸 이상	0.9	0.5	0.7	3.9	3.8	20.1	12.1	25.4	18.4	6.1	8.0	6.6
종교	종교 있다	1.8	0.7	2.4	3.3	3.8	22.8	13.7	17.5	19.1	6.4	8.4	6.4
	종교 없다	2.2	0.5	1.3	4.9	4.9	23.7	9.7	24.6	16.0	5.6	6.6	6.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1.1	0.0	6.9	9.7	5.6	33.3	5.6	5.6	11.1	2.8	8.3	5.0
	100만~199만 원	5.1	1.0	3.0	4.0	4.0	28.3	16.2	16.2	13.1	2.0	7.1	5.8
	200만~299만 원	1.1	0.0	1.6	3.8	7.1	28.6	9.9	19.2	19.2	5.5	3.8	6.2
	300만~399만 원	0.6	1.2	1.8	4.2	1.8	19.0	11.9	26.8	16.7	8.3	7.7	6.6
	400만~499만 원	1.4	0.7	0.7	2.1	6.2	21.9	11.6	22.6	16.4	8.9	7.5	6.6
	500만~699만 원	0.5	1.1	1.1	4.3	5.3	21.9	11.8	26.2	17.6	3.2	7.0	6.4
	700만~999만 원	0.0	0.0	0.0	5.6	1.4	19.4	15.3	20.8	13.9	11.1	12.5	6.9
	1000만 원 이상	1.4	0.0	1.4	2.7	0.0	13.5	9.5	23.0	31.1	6.8	10.8	7.1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2	0.7	1.2	4.4	5.6	17.8	13.4	25.9	16.6	6.6	7.3	6.6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	0.0	2.2	3.3	4.4	27.8	13.3	18.9	20.0	2.2	6.7	6.3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5	0.0	1.9	3.4	1.5	27.0	11.0	21.3	18.3	6.5	7.6	6.5
	실업자	7.7	1.9	3.8	9.6	5.8	23.1	7.7	13.5	11.5	5.8	9.6	5.6
	비경제활동인구	5.4	1.1	2.2	3.8	5.4	28.0	8.1	15.1	18.3	5.9	7.0	6.0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6.8	2.1	6.2	7.5	4.8	31.5	6.8	11.0	17.1	1.4	4.8	5.3
	중하층	1.3	0.4	3.0	6.0	6.4	25.6	11.5	23.9	13.2	4.7	3.8	6.0
	중간층	1.1	0.2	0.4	3.1	4.6	23.5	12.7	23.5	16.9	7.3	6.6	6.5
	중상층	0.7	0.7	0.0	2.0	0.7	13.4	11.4	22.1	24.8	8.1	16.1	7.3
	상위층	6.3	0.0	0.0	0.0	0.0	18.8	12.5	25.0	12.5	25.0	7.6	7.6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 자신과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8〉 주거·환경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6	0.5	1.2	4.2	3.2	20.9	10.5	19.1	19.3	8.3	11.2	6.7
성별	남	1.6	0.4	1.2	3.7	3.3	20.7	10.0	20.9	21.7	5.1	11.4	6.7
	여	1.6	0.6	1.2	4.7	3.0	21.1	11.0	17.3	16.9	11.6	11.0	6.7
연령	20대 이하	0.0	0.0	2.3	5.7	5.2	21.3	12.6	14.4	20.1	8.6	9.8	6.6
	30대	2.4	0.9	1.4	2.4	2.8	15.6	8.1	29.9	18.5	8.1	10.0	6.8
	40대	1.6	0.0	0.8	3.2	4.5	19.8	9.7	19.0	21.1	9.3	10.9	6.8
	50대	0.9	0.9	0.9	4.4	1.8	25.9	12.3	18.9	16.2	6.1	11.8	6.6
	60대	3.6	0.7	0.7	6.4	1.4	22.1	10.0	9.3	21.4	10.0	14.3	6.7
가구원수	1명	3.9	1.0	2.0	9.8	2.0	27.5	7.8	16.7	17.6	3.9	7.8	6.0
	2명	1.3	0.4	0.9	5.1	2.6	26.8	9.4	15.3	17.9	7.2	13.2	6.7
	3명	1.3	0.9	1.7	3.5	1.3	20.5	11.8	22.3	20.1	8.3	8.3	6.7
	4명	0.6	0.3	0.6	3.2	4.8	16.6	10.8	21.3	19.4	10.2	12.1	7.0
	5명 이상	3.3	0.0	1.7	1.7	5.0	15.8	11.7	16.7	21.7	9.2	13.3	6.8
광역시/ 시도	광역시	1.9	0.2	1.1	4.0	3.6	20.4	12.3	20.0	18.5	8.1	9.8	6.6
	시도	1.3	0.8	1.3	4.3	2.8	21.3	8.9	18.3	20.0	8.5	12.5	6.8
동/읍/면	동	1.9	0.5	1.1	3.8	3.1	21.1	11.0	19.7	19.5	8.5	10.0	6.7
	읍	0.0	0.0	0.0	9.1	4.5	16.7	12.1	21.2	19.7	6.1	10.6	6.7
	면	0.0	1.2	3.5	4.7	3.5	22.1	4.7	11.6	17.4	8.1	23.3	7.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4.7	1.9	0.9	7.5	1.9	31.1	6.6	12.3	13.2	6.6	13.2	6.1
	고졸	1.3	0.6	1.0	6.2	4.5	23.4	10.4	15.6	16.6	8.1	12.3	6.6
	대졸 이상	1.2	0.2	1.4	2.6	2.7	17.7	11.3	22.2	21.8	8.7	10.2	6.9
종교	종교 있다	1.6	0.2	0.9	3.8	3.5	17.7	10.2	17.5	20.6	9.3	14.6	7.0
	종교 없다	1.6	0.7	1.5	4.6	2.9	23.5	10.7	20.4	18.2	7.5	8.4	6.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1.1	2.8	1.4	13.9	2.8	31.9	1.4	5.6	9.7	2.8	16.7	5.3
	100만~199만 원	4.0	1.0	1.0	10.1	4.0	25.3	12.1	13.1	16.2	7.1	6.1	5.9
	200만~299만 원	0.5	0.5	1.1	4.9	3.8	23.6	11.5	17.6	19.2	6.6	10.4	6.6
	300만~399만 원	0.6	0.6	1.8	1.2	4.8	23.8	8.9	25.0	16.1	8.3	8.9	6.7
	400만~499만 원	0.0	0.0	1.4	4.1	2.1	19.2	16.4	17.8	19.2	6.2	13.7	6.9
	500만~699만 원	0.5	0.0	1.1	1.6	3.7	17.1	9.6	25.7	21.9	10.7	8.0	7.0
	700만~999만 원	0.0	0.0	0.0	1.4	0.0	13.9	12.5	22.2	23.6	13.9	12.5	7.4
1000만 원 이상	1.4	0.0	1.4	1.4	1.4	10.8	6.8	13.5	29.7	12.2	21.6	7.6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5	0.7	2.9	3.4	21.0	12.2	21.3	19.1	8.3	10.0	6.8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3	0.0	2.2	7.8	5.6	27.8	8.9	15.6	15.6	6.7	6.7	6.0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2.3	0.8	0.8	3.8	2.3	17.9	9.9	19.8	20.2	8.0	14.4	6.9
	실업자	3.8	0.0	1.9	9.6	7.7	26.9	3.8	19.2	13.5	5.8	7.7	5.9
	비경제활동인구	1.6	0.5	2.2	4.3	1.6	19.9	10.2	15.1	22.0	10.2	12.4	6.8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8.2	2.7	2.1	13.0	6.2	28.8	6.8	7.5	10.3	6.2	8.2	5.3
	중하층	1.3	0.4	1.7	5.6	5.6	27.8	11.5	22.2	11.1	6.4	6.4	6.2
	중간층	0.0	0.0	0.9	2.0	2.2	19.6	13.2	21.5	21.5	9.0	10.1	7.0
	중상층	0.0	0.0	0.7	0.7	0.0	8.1	5.4	19.5	34.9	10.1	20.8	7.9
	상위층	6.3	0.0	0.0	0.0	0.0	6.3	0.0	6.3	12.5	18.8	50.0	8.4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과 주변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9〉 거버넌스의 질 영역 행복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3	1.7	3.6	11.4	9.4	28.1	15.0	15.0	7.3	1.8	2.4	5.1
성별	남	5.1	2.0	3.5	12.6	9.1	28.0	14.8	12.8	7.3	2.2	2.8	5.1
	여	3.5	1.4	3.7	10.2	9.8	28.3	15.2	17.3	7.3	1.4	2.0	5.2
연령	20대 이하	1.7	0.6	4.6	11.5	10.9	32.2	14.4	10.3	9.2	3.4	1.1	5.2
	30대	4.3	2.4	3.3	10.9	8.1	24.2	18.0	17.5	6.2	1.4	3.8	5.3
	40대	4.0	2.0	3.2	12.1	7.3	27.9	17.0	16.6	6.9	1.2	1.6	5.1
	50대	3.9	1.8	3.5	12.7	12.3	28.9	11.4	14.9	7.0	1.3	2.2	5.0
	60대	8.6	1.4	3.6	8.6	8.6	27.9	13.6	14.3	7.9	2.1	3.6	5.1
가구원수	1명	7.8	2.9	8.8	6.9	10.8	30.4	14.7	10.8	3.9	2.0	1.0	4.6
	2명	3.8	0.9	3.8	14.9	9.4	28.5	11.9	13.2	8.1	2.1	3.4	5.1
	3명	6.1	1.7	3.5	8.7	7.9	28.8	15.7	14.0	8.7	1.3	3.5	5.2
	4명	2.2	1.9	1.9	13.4	8.3	26.8	18.8	17.5	7.3	1.0	1.0	5.2
	5명 이상	4.2	1.7	3.3	8.3	14.2	27.5	10.0	17.5	5.8	4.2	3.3	5.3
광역시/ 시도	광역시	3.4	1.9	3.4	11.3	9.4	28.3	14.3	16.6	7.9	1.9	1.7	5.2
	시도	5.1	1.5	3.8	11.5	9.4	27.9	15.7	13.6	6.8	1.7	3.0	5.1
동/읍/면	동	4.2	1.8	3.9	11.6	9.8	27.9	15.7	14.3	7.0	1.9	2.0	5.1
	읍	3.0	0.0	1.5	7.6	10.6	31.8	15.2	21.2	6.1	0.0	3.0	5.5
	면	5.8	2.3	2.3	12.8	4.7	26.7	8.1	17.4	11.6	2.3	5.8	5.4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1.3	1.9	3.8	7.5	5.7	32.1	8.5	14.2	6.6	2.8	5.7	5.0
	고졸	5.5	2.3	5.2	12.3	10.4	28.6	11.7	12.7	7.8	1.3	2.3	4.9
	대졸 이상	2.4	1.4	2.7	11.6	9.6	27.1	17.9	16.4	7.2	1.9	1.9	5.3
종교	종교 있다	3.8	1.6	3.8	12.4	8.4	26.2	15.5	16.9	7.1	1.8	2.7	5.2
	종교 없다	4.7	1.8	3.5	10.6	10.2	29.7	14.6	13.5	7.5	1.8	2.2	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3.9	4.2	8.3	12.5	6.9	31.9	5.6	4.2	4.2	1.4	6.9	4.2
	100만~199만 원	8.1	2.0	8.1	10.1	7.1	32.3	8.1	14.1	5.1	2.0	3.0	4.7
	200만~299만 원	3.3	1.6	3.3	12.6	7.1	22.0	20.9	15.9	9.9	1.1	2.2	5.3
	300만~399만 원	4.8	2.4	2.4	14.3	8.3	26.2	12.5	19.6	8.9	0.6	0.0	5.0
	400만~499만 원	0.7	1.4	4.8	7.5	12.3	28.8	16.4	16.4	4.8	2.7	4.1	5.4
	500만~699만 원	3.2	1.1	1.6	10.7	11.2	31.6	15.0	13.4	9.6	1.6	1.1	5.2
	700만~999만 원	1.4	0.0	2.8	12.5	12.5	26.4	19.4	15.3	5.6	4.2	0.0	5.3
1000만 원 이상	4.1	1.4	0.0	10.8	9.5	29.7	17.6	14.9	4.1	2.7	5.4	5.4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	1.2	3.9	11.0	9.5	29.8	16.9	15.4	7.1	1.0	1.5	5.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4	2.2	3.3	11.1	8.9	32.2	12.2	10.0	10.0	4.4	1.1	5.1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5.7	1.9	3.0	12.2	8.4	26.2	15.2	16.7	4.9	2.3	3.4	5.1
	실업자	9.6	3.8	1.9	9.6	7.7	23.1	9.6	11.5	17.3	3.8	1.9	5.1
	비경제활동인구	4.3	1.6	4.3	11.8	11.3	26.3	13.4	15.1	7.0	1.1	3.8	5.1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15.1	5.5	7.5	17.8	4.8	24.0	8.2	11.6	3.4	1.4	0.7	3.9
	중하층	3.8	2.6	5.1	16.2	13.2	26.5	9.8	12.8	7.3	0.9	1.7	4.8
	중간층	2.0	0.7	2.4	9.5	9.2	31.2	18.0	14.7	7.5	2.2	2.6	5.4
	중상층	1.3	0.0	1.3	4.7	8.7	26.2	18.1	22.8	10.7	2.7	3.4	5.9
	상위층	6.3	0.0	0.0	0.0	6.3	18.8	37.5	12.5	6.3	0.0	12.5	6.1

주: “귀하는 전반적으로 신뢰, 격차, 민주주의, 자유 등 우리 사회의 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10> 비관적 vs. 낙관적

(단위: %, 점)

구분		매우 비관적 ← → 매우 낙관적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5	0.1	0.5	2.8	3.1	19.7	11.4	20.8	20.7	8.2	11.2	6.9
성별	남	1.8	0.2	0.4	3.3	3.0	21.5	13.0	20.1	21.9	6.1	8.9	6.7
	여	1.2	0.0	0.6	2.2	3.3	17.9	9.8	21.5	19.5	10.4	13.6	7.1
연령	20대 이하	1.1	0.0	0.6	2.9	5.7	20.1	14.4	17.8	16.7	8.6	12.1	6.8
	30대	0.0	0.0	0.0	1.4	3.8	14.7	12.3	28.9	21.8	5.2	11.8	7.1
	40대	1.6	0.0	0.4	4.0	1.6	20.6	12.6	19.8	20.2	9.7	9.3	6.8
	50대	2.2	0.0	0.9	1.8	3.1	20.2	7.9	18.0	25.9	8.8	11.4	6.9
	60대	2.9	0.7	0.7	4.3	1.4	24.3	10.0	18.6	16.4	8.6	12.1	6.6
가구원수	1명	2.9	0.0	0.0	4.9	2.0	25.5	13.7	17.6	20.6	6.9	5.9	6.4
	2명	0.9	0.0	0.4	3.0	3.0	20.4	8.5	20.9	22.6	4.3	16.2	7.0
	3명	2.2	0.0	0.0	3.1	2.2	17.9	10.5	24.0	21.0	8.7	10.5	6.9
	4명	0.6	0.3	0.6	1.9	4.1	21.7	14.0	17.8	18.5	10.2	10.2	6.8
	5명 이상	2.5	0.0	1.7	2.5	3.3	11.7	10.0	25.0	22.5	10.8	10.0	7.0
광역시/ 시도	광역시	0.9	0.0	1.1	3.0	3.2	20.0	10.9	20.0	22.1	8.7	10.2	6.9
	시도	2.1	0.2	0.0	2.6	3.0	19.4	11.9	21.5	19.4	7.7	12.1	6.9
동/읍/면	동	1.4	0.1	0.6	2.8	3.2	19.2	11.6	20.4	21.3	8.5	10.8	6.9
	읍	1.5	0.0	0.0	1.5	1.5	21.2	18.2	24.2	13.6	7.6	10.6	6.8
	면	2.3	0.0	0.0	3.5	3.5	23.3	4.7	22.1	19.8	5.8	15.1	6.8
최종 학력	중졸 이하	7.5	0.0	1.9	3.8	3.8	30.2	8.5	14.2	13.2	4.7	12.3	6.0
	고졸	1.9	0.0	0.3	1.9	3.9	20.1	12.0	20.8	20.5	7.5	11.0	6.8
	대졸 이상	0.2	0.2	0.3	3.1	2.6	17.6	11.6	22.0	22.2	9.2	11.1	7.0
종교	종교 있다	1.1	0.0	0.4	2.9	2.2	18.4	9.8	22.2	21.3	9.5	12.2	7.0
	종교 없다	1.8	0.2	0.5	2.7	3.8	20.8	12.8	19.7	20.2	7.1	10.4	6.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9.7	0.0	0.0	6.9	4.2	31.9	9.7	9.7	9.7	2.8	15.3	5.8
	100만~199만 원	2.0	0.0	2.0	6.1	4.0	25.3	8.1	21.2	17.2	6.1	8.1	6.3
	200만~299만 원	0.0	0.0	0.5	2.7	2.7	18.7	13.2	23.6	21.4	6.0	11.0	6.9
	300만~399만 원	0.6	0.0	0.6	1.2	2.4	23.2	10.7	20.2	21.4	8.9	10.7	7.0
	400만~499만 원	0.7	0.0	0.0	2.1	3.4	17.8	14.4	18.5	21.9	6.8	14.4	7.1
	500만~699만 원	1.6	0.0	0.0	2.1	3.2	18.7	11.2	19.8	22.5	11.8	9.1	7.0
	700만~999만 원	0.0	0.0	0.0	4.2	2.8	5.6	18.1	23.6	22.2	15.3	8.3	7.2
	1000만 원 이상	1.4	1.4	1.4	0.0	2.7	14.9	2.7	29.7	24.3	6.8	14.9	7.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5	0.0	0.0	2.7	2.9	18.3	12.7	24.4	19.1	7.6	11.7	7.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1.1	0.0	0.0	3.3	3.3	26.7	16.7	13.3	18.9	6.7	10.0	6.6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9	0.4	1.5	2.3	2.7	17.5	7.6	19.8	26.6	9.1	10.6	6.9
	실업자	3.8	0.0	0.0	7.7	1.9	25.0	9.6	17.3	17.3	7.7	9.6	6.4
	비경제활동인구	2.7	0.0	0.5	2.2	4.3	21.0	11.8	18.8	17.7	9.1	11.8	6.7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5.5	0.0	1.4	6.8	4.8	26.7	12.3	15.1	16.4	6.2	4.8	5.9
	중하층	1.7	0.0	0.9	3.4	3.4	25.2	14.5	19.7	17.5	6.0	7.7	6.5
	중간층	0.4	0.0	0.2	2.2	2.9	17.8	11.6	21.8	22.9	7.9	12.3	7.1
	중상층	0.0	0.0	0.0	0.0	2.0	12.1	6.0	24.2	24.8	12.8	18.1	7.7
	상위층	6.3	6.3	0.0	0.0	0.0	0.0	0.0	31.3	6.3	25.0	25.0	7.5

주: “귀하는 평소에 귀하께서 매사에 비관적이라고, 혹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11〉 미래 안정성 전망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안 ← → 매우 안정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4.0	1.1	3.7	7.9	7.5	23.6	12.9	14.6	14.5	3.8	6.4	5.7
성별	남	5.1	1.0	3.3	8.3	8.1	23.8	13.2	15.0	13.4	2.8	6.1	5.6
	여	2.8	1.2	4.1	7.5	6.9	23.4	12.6	14.2	15.7	4.9	6.7	5.9
연령	20대 이하	1.7	1.7	4.0	10.3	10.9	24.1	15.5	16.7	10.3	0.0	4.6	5.4
	30대	2.4	1.4	3.3	6.6	5.7	19.4	18.0	17.5	18.0	2.8	4.7	6.0
	40대	4.0	0.4	4.0	5.7	5.3	28.3	10.9	15.8	14.2	6.5	4.9	5.8
	50대	4.8	1.3	3.1	10.5	8.3	21.9	11.4	14.0	14.0	4.4	6.1	5.6
	60대	7.9	0.7	4.3	6.4	8.6	23.6	7.9	6.4	15.7	4.3	14.3	5.8
가구원수	1명	8.8	1.0	6.9	10.8	10.8	22.5	8.8	8.8	13.7	3.9	3.9	5.0
	2명	3.0	0.0	3.4	7.2	10.2	27.7	10.6	12.3	15.7	2.1	7.7	5.8
	3명	3.5	0.9	3.5	10.9	5.7	24.5	9.6	16.2	15.7	3.9	5.7	5.7
	4명	3.5	1.9	3.5	6.1	7.0	22.6	15.0	17.5	13.4	4.8	4.8	5.8
	5명 이상	4.2	1.7	2.5	5.8	4.2	17.5	21.7	13.3	13.3	4.2	11.7	6.1
광역시/ 시도	광역시	3.4	1.1	3.4	8.5	7.9	22.6	15.1	14.5	14.9	3.2	5.5	5.7
	시도	4.5	1.1	4.0	7.4	7.2	24.5	10.9	14.7	14.2	4.3	7.2	5.8
동/읍/면	동	3.8	1.3	3.9	7.8	8.1	23.3	13.2	13.8	15.4	3.7	5.7	5.7
	읍	3.0	0.0	4.5	9.1	0.0	28.8	13.6	24.2	6.1	3.0	7.6	5.8
	면	7.0	0.0	1.2	8.1	7.0	22.1	9.3	15.1	11.6	5.8	12.8	6.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1	0.0	5.7	12.3	4.7	27.4	5.7	4.7	9.4	3.8	11.3	4.9
	고졸	4.2	1.9	4.5	8.8	7.8	22.1	12.0	14.0	15.6	2.6	6.5	5.6
	대졸 이상	1.9	0.9	2.9	6.7	7.8	23.7	14.7	16.7	14.8	4.4	5.5	6.0
종교	종교 있다	3.5	1.1	2.2	7.1	8.4	21.7	11.8	14.2	14.6	6.0	9.3	6.0
	종교 없다	4.4	1.1	4.9	8.6	6.7	25.1	13.8	14.9	14.4	2.0	4.0	5.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8.1	0.0	9.7	16.7	8.3	23.6	5.6	2.8	4.2	2.8	8.3	4.2
	100만~199만 원	9.1	0.0	5.1	10.1	11.1	33.3	5.1	6.1	8.1	3.0	9.1	5.1
	200만~299만 원	2.2	1.6	3.8	8.8	8.2	24.7	12.1	14.3	16.5	2.2	5.5	5.7
	300만~399만 원	4.2	1.2	2.4	7.1	7.1	25.0	14.9	17.9	11.3	4.2	4.8	5.7
	400만~499만 원	0.0	0.7	4.1	4.8	9.6	24.0	20.5	14.4	15.1	1.4	5.5	5.9
	500만~699만 원	2.1	1.1	1.6	7.0	7.0	19.8	16.6	18.2	16.6	7.0	3.2	6.1
	700만~999만 원	1.4	1.4	5.6	11.1	1.4	13.9	12.5	20.8	20.8	4.2	6.9	6.2
1000만 원 이상	2.7	2.7	1.4	1.4	4.1	23.0	4.1	16.2	23.0	5.4	16.2	6.7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0	1.2	2.7	7.1	8.8	23.0	14.2	16.9	16.4	3.7	4.2	5.9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6.7	1.1	6.7	5.6	6.7	22.2	17.8	8.9	11.1	3.3	10.0	5.6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4.9	0.8	3.8	7.6	6.1	25.5	11.8	14.8	14.1	4.6	6.1	5.7
	실업자	13.5	3.8	5.8	15.4	13.5	11.5	7.7	11.5	13.5	0.0	3.8	4.5
	비경제활동인구	3.2	0.5	3.8	9.1	5.4	26.3	10.8	12.9	12.9	4.3	10.8	5.9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16.4	0.7	10.3	17.1	7.5	25.3	4.1	6.2	4.8	2.1	5.5	4.1
	중하층	3.4	2.1	4.7	9.0	11.5	28.2	15.0	10.3	9.0	3.8	3.0	5.2
	중간층	1.5	0.7	1.8	6.4	6.8	24.2	16.3	18.9	15.4	2.6	5.5	6.0
	중상층	0.0	0.7	2.0	2.7	4.0	14.1	8.7	18.1	28.9	6.7	14.1	7.1
	상위층	6.3	6.3	0.0	0.0	0.0	12.5	6.3	0.0	25.0	25.0	18.8	7.2

주: “귀하는 귀하의 미래가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혹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12>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 → 매우 만족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2.8	0.8	1.5	4.8	6.1	18.8	11.7	21.3	18.3	6.1	7.8	6.4
성별	남	3.5	1.0	1.8	3.1	6.5	19.7	10.8	23.0	18.3	4.7	7.5	6.3
	여	2.0	0.6	1.2	6.5	5.7	17.9	12.6	19.5	18.3	7.5	8.1	6.4
연령	20대 이하	0.6	0.6	2.3	4.0	9.8	14.4	15.5	21.3	19.0	5.2	7.5	6.4
	30대	0.9	0.5	1.9	3.3	3.3	17.1	12.3	27.0	18.0	4.7	10.9	6.7
	40대	2.0	1.6	0.8	4.9	5.3	21.1	12.6	21.1	20.6	6.1	4.0	6.3
	50대	4.8	0.4	0.4	6.1	6.1	22.4	7.5	18.4	18.4	6.1	9.2	6.2
	60대	6.4	0.7	2.9	5.7	7.1	17.1	11.4	17.9	13.6	9.3	7.9	6.0
가구원수	1명	6.9	1.0	5.9	3.9	9.8	22.5	8.8	19.6	11.8	2.0	7.8	5.6
	2명	3.0	0.4	0.9	4.3	6.4	19.1	14.0	19.1	15.7	8.9	8.1	6.4
	3명	2.2	0.4	0.4	5.2	6.1	20.5	13.1	21.0	18.3	4.4	8.3	6.4
	4명	1.9	1.0	1.6	4.1	5.7	16.2	11.8	23.6	21.7	6.7	5.7	6.5
	5명 이상	2.5	1.7	0.8	7.5	3.3	18.3	6.7	21.7	20.0	5.8	11.7	6.5
광역시/ 시도	광역시	2.3	0.9	1.3	4.5	7.0	19.4	11.9	20.4	18.3	6.8	7.2	6.4
	시도	3.2	0.8	1.7	5.1	5.3	18.3	11.5	22.1	18.3	5.5	8.3	6.3
동/읍/면	동	2.7	0.9	1.7	4.2	6.4	19.5	11.4	21.0	19.0	6.1	7.1	6.3
	읍	1.5	0.0	0.0	10.6	3.0	21.2	10.6	28.8	9.1	4.5	10.6	6.3
	면	4.7	0.0	1.2	5.8	5.8	10.5	15.1	18.6	18.6	7.0	12.8	6.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4.2	0.9	2.8	6.6	6.6	23.6	5.7	14.2	10.4	6.6	8.5	5.3
	고졸	2.3	1.0	1.3	6.5	6.2	21.8	12.7	17.9	19.2	4.5	6.8	6.2
	대졸 이상	1.0	0.7	1.4	3.6	6.0	16.4	12.3	24.4	19.3	6.8	8.2	6.6
종교	종교 있다	3.1	0.7	1.1	4.4	4.7	16.2	11.5	20.8	19.3	8.2	10.0	6.6
	종교 없다	2.6	0.9	1.8	5.1	7.3	20.9	11.8	21.7	17.5	4.4	6.0	6.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19.4	2.8	2.8	13.9	2.8	25.0	5.6	9.7	2.8	4.2	11.1	4.6
	100만~199만 원	6.1	0.0	5.1	5.1	12.1	26.3	13.1	15.2	10.1	1.0	6.1	5.4
	200만~299만 원	0.5	1.1	1.6	5.5	8.2	21.4	10.4	22.0	17.6	4.9	6.6	6.3
	300만~399만 원	1.8	1.2	1.2	3.0	6.0	18.5	13.7	25.0	17.9	5.4	6.5	6.4
	400만~499만 원	0.0	0.0	1.4	4.8	6.2	17.8	13.0	18.5	23.3	4.8	10.3	6.7
	500만~699만 원	1.1	0.0	0.0	2.7	5.9	17.1	12.3	25.1	21.4	9.1	5.3	6.7
	700만~999만 원	1.4	2.8	0.0	6.9	2.8	9.7	9.7	26.4	23.6	8.3	8.3	6.7
1000만 원 이상	1.4	0.0	1.4	1.4	0.0	12.2	12.2	21.6	24.3	12.2	13.5	7.3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0.7	0.7	0.7	4.2	6.1	19.1	13.9	24.2	18.3	5.4	6.6	6.5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4.4	1.1	3.3	3.3	13.3	23.3	5.6	14.4	20.0	4.4	6.7	5.9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3.0	1.1	1.1	3.8	2.7	19.4	13.3	20.5	19.8	6.5	8.7	6.5
	실업자	13.5	0.0	5.8	15.4	3.8	13.5	11.5	7.7	17.3	5.8	5.8	5.1
	비경제활동인구	3.2	0.5	1.6	5.4	8.1	16.7	7.5	23.1	15.6	8.1	10.2	6.4
주관적 계층	저소득층	16.4	2.7	5.5	10.3	11.6	20.5	9.6	6.2	10.3	2.1	4.8	4.4
	중하층	0.4	1.3	1.3	7.7	12.0	26.9	11.5	20.5	10.7	3.4	4.3	5.8
	중간층	0.4	0.0	0.7	2.9	3.1	17.8	14.5	25.9	21.1	6.2	7.5	6.8
	중상층	0.0	0.7	0.7	1.3	1.3	9.4	6.7	24.2	28.9	11.4	15.4	7.6
	상위층	6.3	0.0	0.0	0.0	0.0	0.0	0.0	12.5	25.0	31.3	25.0	8.2

주: “귀하는 요즘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부표 3-13〉 주관적 소득계층

(단위: %, 점)

구분		저소득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위층	합계
전체		14.6	23.4	45.5	14.9	1.6	100.0
성별	남	15.4	25.0	42.1	15.6	2.0	100.0
	여	13.8	21.7	49.0	14.2	1.2	100.0
연령	20대 이하	12.1	24.1	48.3	15.5	0.0	100.0
	30대	10.0	22.7	51.7	14.7	0.9	100.0
	40대	13.0	24.3	45.3	14.2	3.2	100.0
	50대	16.7	24.6	43.0	14.9	0.9	100.0
	60대	24.3	20.0	37.1	15.7	2.9	100.0
가구원수	1명	29.4	26.5	37.3	6.9	0.0	100.0
	2명	16.2	20.9	46.8	14.5	1.7	100.0
	3명	14.0	25.8	45.0	14.0	1.3	100.0
	4명	10.5	23.6	46.5	17.8	1.6	100.0
	5명 이상	10.8	20.8	48.3	16.7	3.3	100.0
광역시/시도	광역시	14.9	26.8	43.0	14.5	0.9	100.0
	시도	14.3	20.4	47.7	15.3	2.3	100.0
동/읍/면	동	14.4	24.3	44.7	15.0	1.7	100.0
	읍	12.1	21.2	51.5	13.6	1.5	100.0
	면	18.6	16.3	48.8	15.1	1.2	100.0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5.8	24.5	32.1	5.7	1.9	100.0
	고졸	18.5	25.0	43.5	12.3	0.6	100.0
	대졸 이상	8.7	22.4	49.0	17.9	2.0	100.0
종교	종교 있다	14.6	22.0	41.9	18.8	2.7	100.0
	종교 없다	14.6	24.6	48.5	11.7	0.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5.6	20.8	20.8	1.4	1.4	100.0
	100만~199만 원	44.4	29.3	26.3	0.0	0.0	100.0
	200만~299만 원	17.0	36.8	39.0	7.1	0.0	100.0
	300만~399만 원	11.3	31.0	50.6	6.0	1.2	100.0
	400만~499만 원	2.7	19.2	61.6	16.4	0.0	100.0
	500만~699만 원	2.7	17.1	56.1	23.0	1.1	100.0
	700만~999만 원	2.8	9.7	50.0	34.7	2.8	100.0
	1000만 원 이상	1.4	5.4	36.5	44.6	12.2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8	24.2	50.1	16.9	1.0	100.0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7	27.8	28.9	5.6	1.1	100.0
	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13.3	20.5	49.0	14.4	2.7	100.0
	실업자	36.5	25.0	26.9	9.6	1.9	100.0
	비경제활동인구	14.5	23.1	43.5	17.2	1.6	100.0

주: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응답 결과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